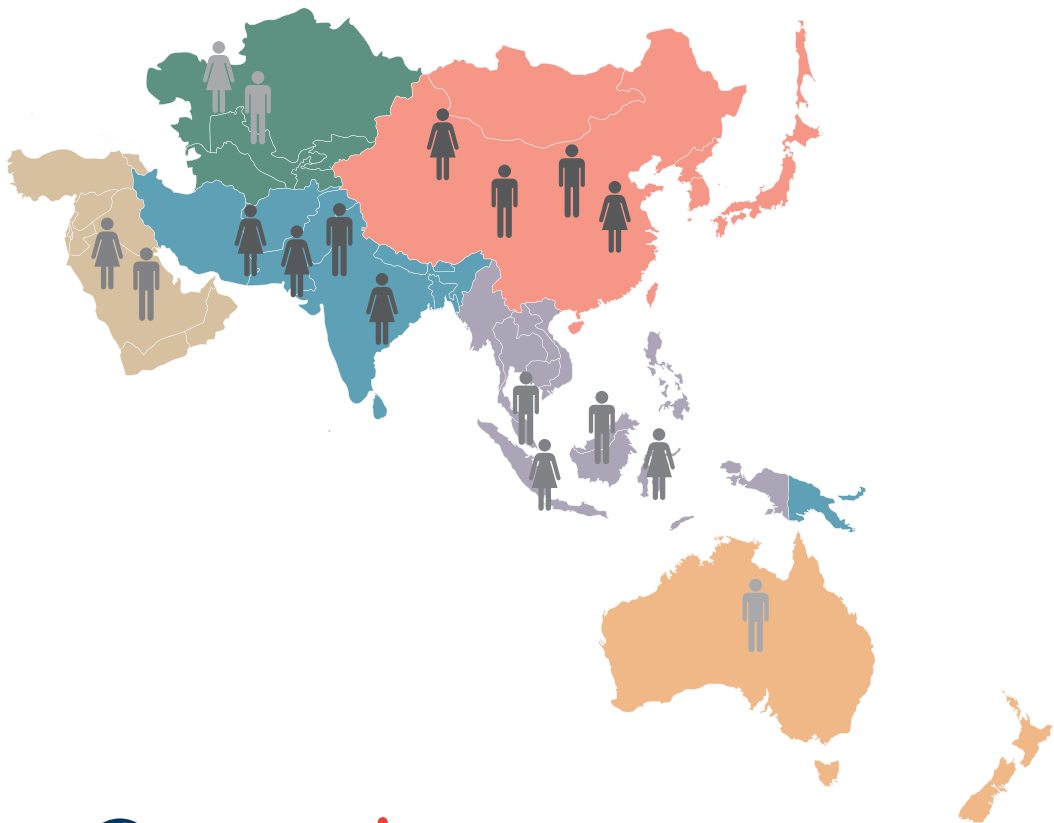


INFOGRAPHICS

그래프로 보는 아태지역 인구

황선재 · 윤유정 · 최 슬



INFOGRAPHICS 그래프로 보는 아태지역 인구

지은이 황선재 · 윤유정 · 최 솔
발행처 (재)한국통계진흥원 인구사회연구센터
주 소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48, 매그놀리아빌딩 302호
전 화 042-482-9328
URL <http://www.appi.re.kr>
ISBN 979-11-960023-1-2

머리말

인구통계는 사회 구조와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계량적인 정보로써 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국가 간 교류가 중요시 되는 세계화 시대에 각국의 인구현상을 이해하고 인구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태지역 인구연구 발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세기 초 일부 선진국에서부터 나타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21세기 들어오면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인구현상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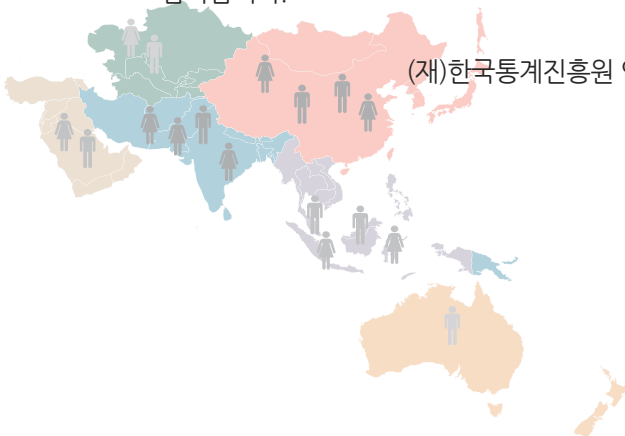
인구사회연구센터는 통계청의 지원을 받아, UN의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5 Revision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도, 차트를 활용하여 인구변동자료를 재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사회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 자료들을 한 책에 모았습니다.

이 책이 아태지역의 인구현상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센터에서는 더욱 다양한 인구통계자료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좋게 재구성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재)한국통계진흥원 인구사회연구센터
센터장 김 태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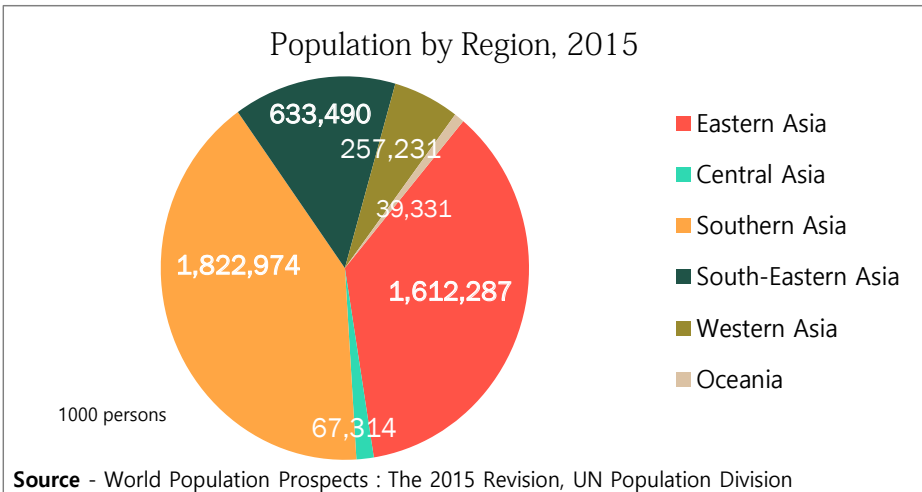
목 차

1. 아태지역 인구	01
2. 아태지역 인구밀도	05
3. 아태지역 인구구조	09
4. 아태지역 부양비	13
5. 아태지역 고령인구	17
6. 아태지역 출생성비	21
7. 아태지역 출산력 지표 (1)	25
8. 아태지역 출산력 지표 (2)	29
9. 아태지역 사망력 지표 (1)	33
10. 아태지역 사망력 지표 (2)	37
11. 아태지역 사망력 지표 (3)	41
12. 아태지역 국제이주 스톡통계	45
13. 세계 속의 아태지역 (1) : 인구 및 인구밀도	49
14. 세계 속의 아태지역 (2) : 인구구조 및 부양비	53
15. 세계 속의 아태지역 (3) : 출산력 지표	57
16. 세계 속의 아태지역 (4) : 사망력 지표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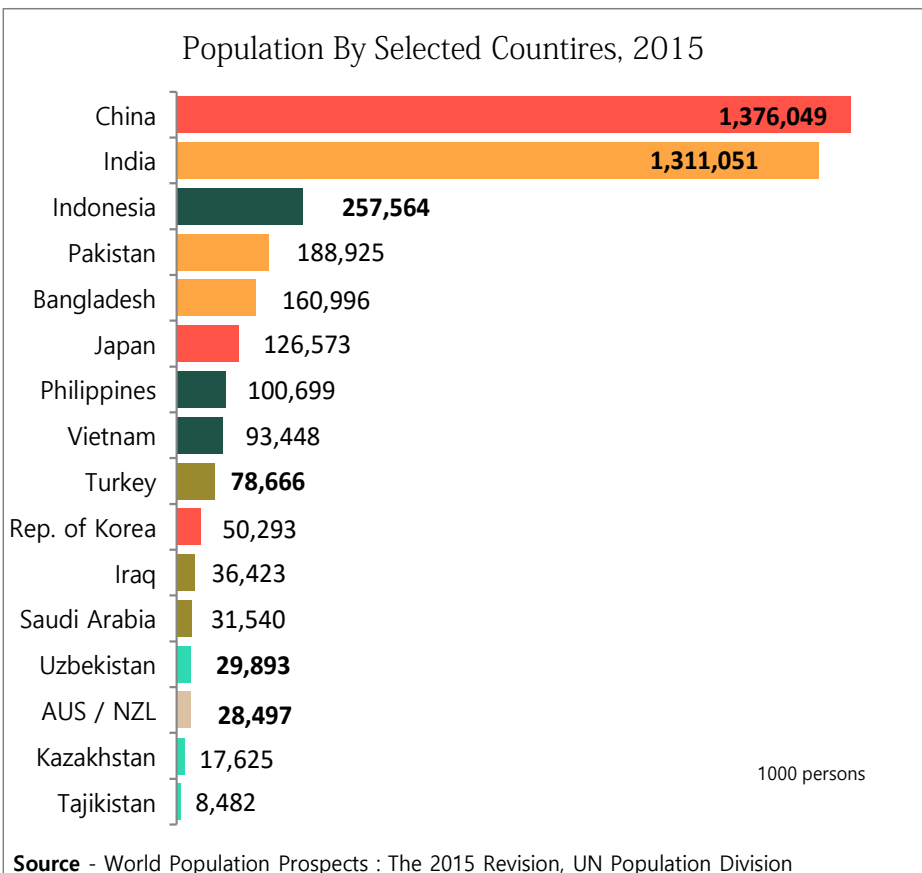


1-1. 아태지역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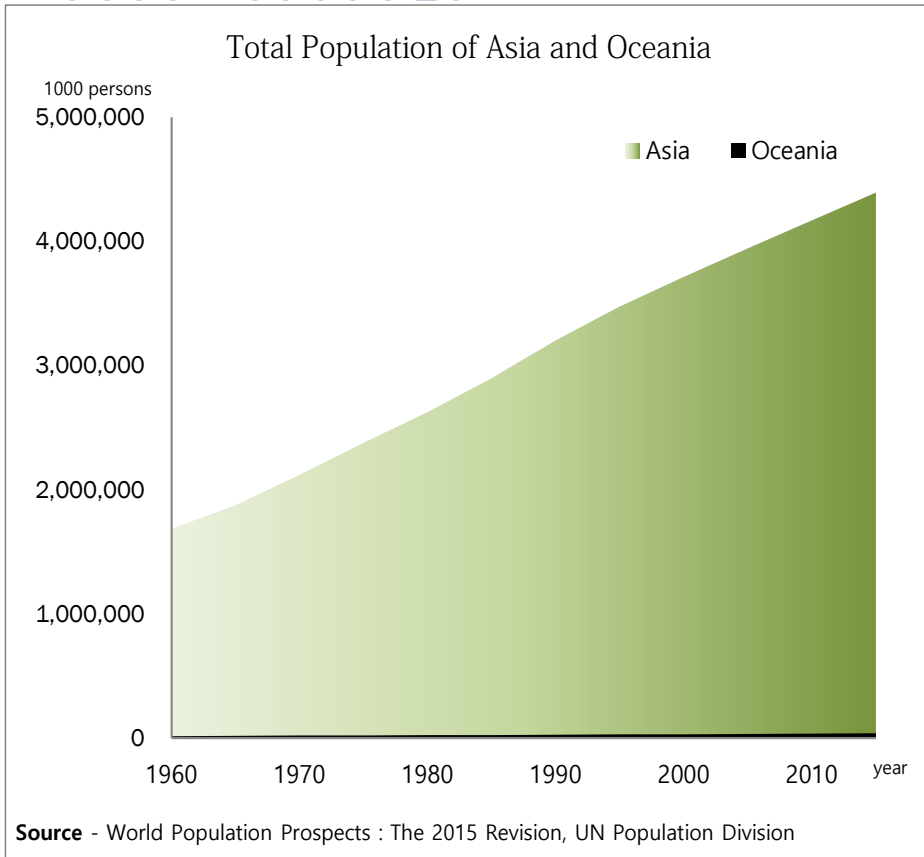
* 아태지역 지역별 인구 (2015)



* 아태지역 주요국가별 인구 (2015)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인구



❖ 아태지역 지역별 인구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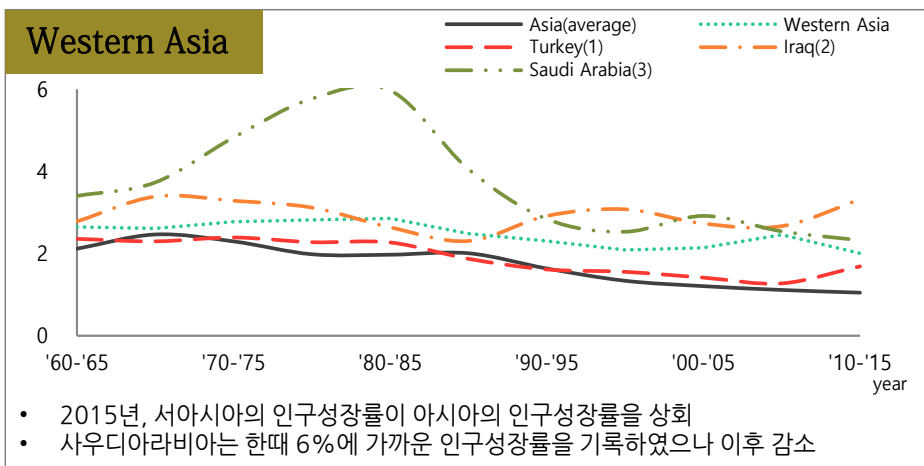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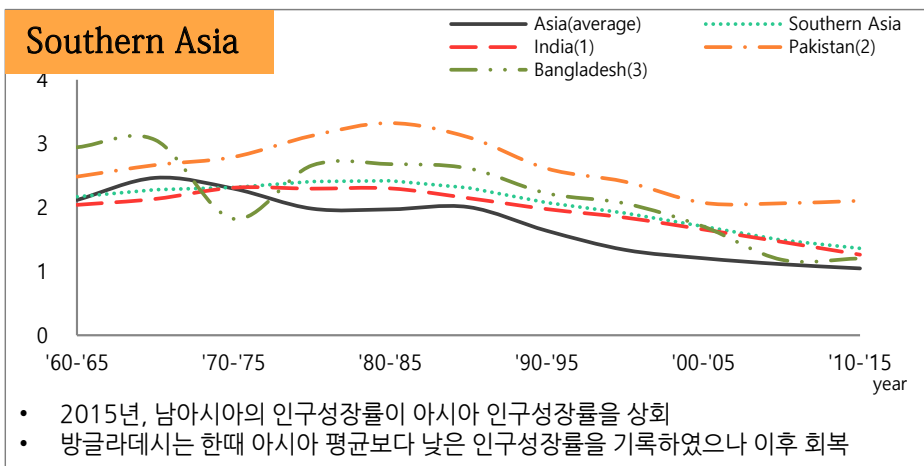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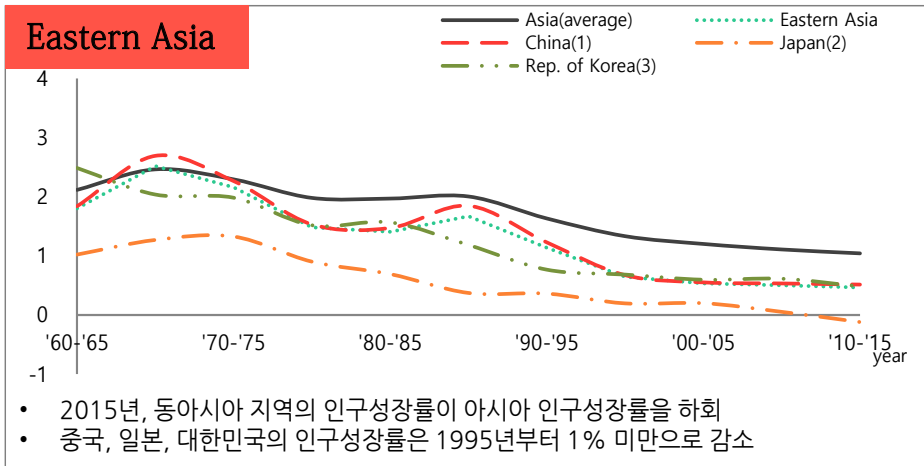
- **아시아:** 아시아 총 인구 중 각 지역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남아시아 41.9%, 동아시아 36.70%, 동남아시아 14.42%, 서아시아 5.86%, 중앙아시아 1.53%임

❖ 아태지역 주요국가별 인구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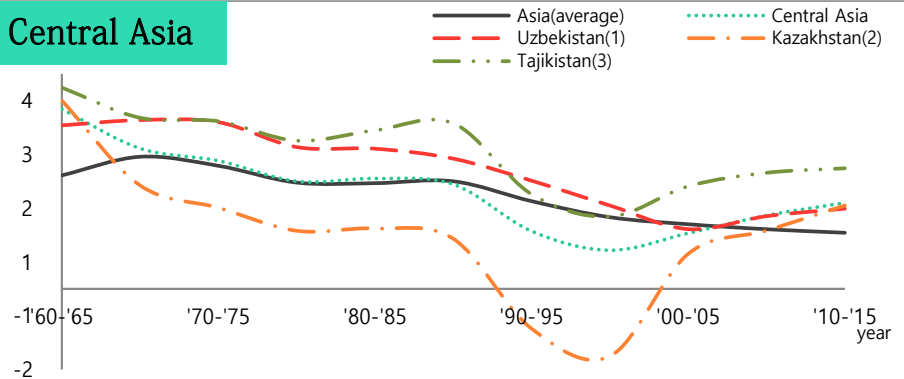
- **동아시아:** 아시아 총 인구 중 중국 31.32% 일본 2.88%, 한국 1.14% 차지
- **중앙아시아:** 아시아 총 인구 중 우즈베키스탄 0.68%, 카자흐스탄 0.40%, 타지키스탄 0.19% 차지
- **남아시아:** 아시아 총 인구 중 인도 29.84%, 파키스탄 4.30%, 방글라데시 3.66% 차지
- **동남아시아:** 아시아 총 인구 중 인도네시아 5.86%, 필리핀 2.29%, 베트남 2.13% 차지
- **서아시아:** 아시아 총 인구 중 터키 1.79%, 이라크 0.83%, 사우디아라비아 0.72% 차지
-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총 인구 중 호주/뉴질랜드 72.46%, 멜라네시아 24.47%, 폴리네시아 1.74%, 미크로네시아 1.34% 차지

1-2. 아태지역 인구

* 아태지역 주요국가별 인구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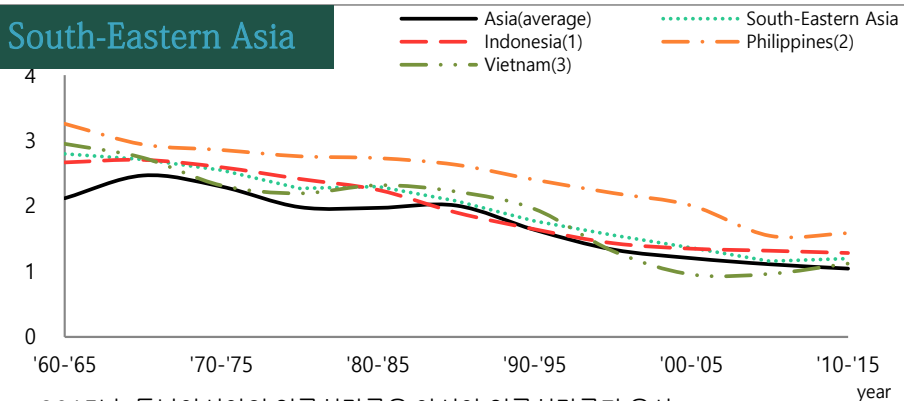


Central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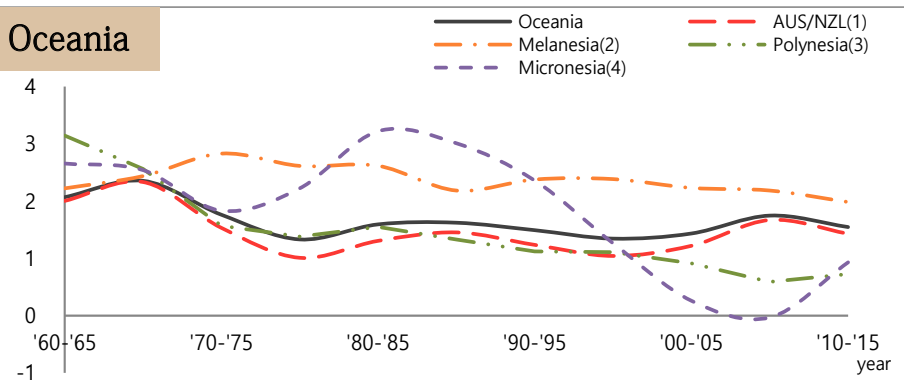
- 2015년, 중앙아시아 인구성장률이 아시아 인구성장률을 상회
- 카자흐스탄은 한때 마이너스 인구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 증가

South-Eastern Asia



- 2015년, 동남아시아의 인구성장률은 아시아 인구성장률과 유사
-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구성장률의 변화 추이는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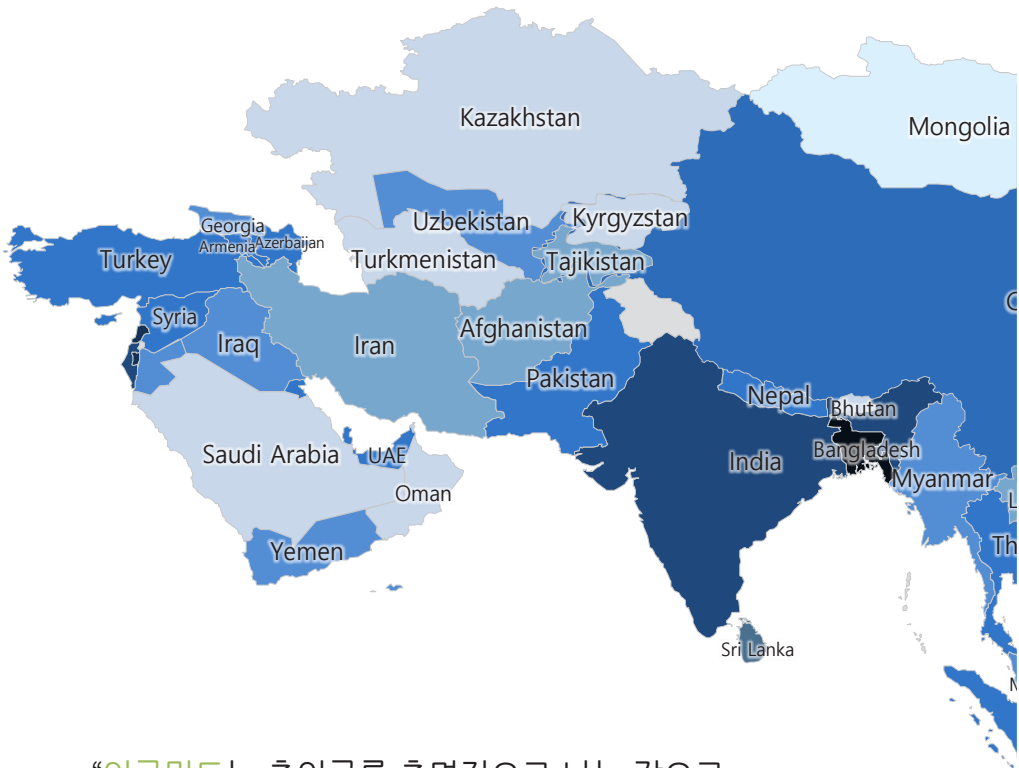
Oceania



- 2015년, 호주/뉴질랜드 지역은 오세아니아의 인구성장률의 변화 추이와 유사
- 미크로네시아 인구성장률 증감 폭이 큼

2-1. 아태지역 인구밀도

* 아태지역 주요국가별 인구밀도 (2015)



“인구밀도”는 총인구를 총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1km^2 면적 당 인구를 의미한다.



Unit: persons per square km



2-2. 아태지역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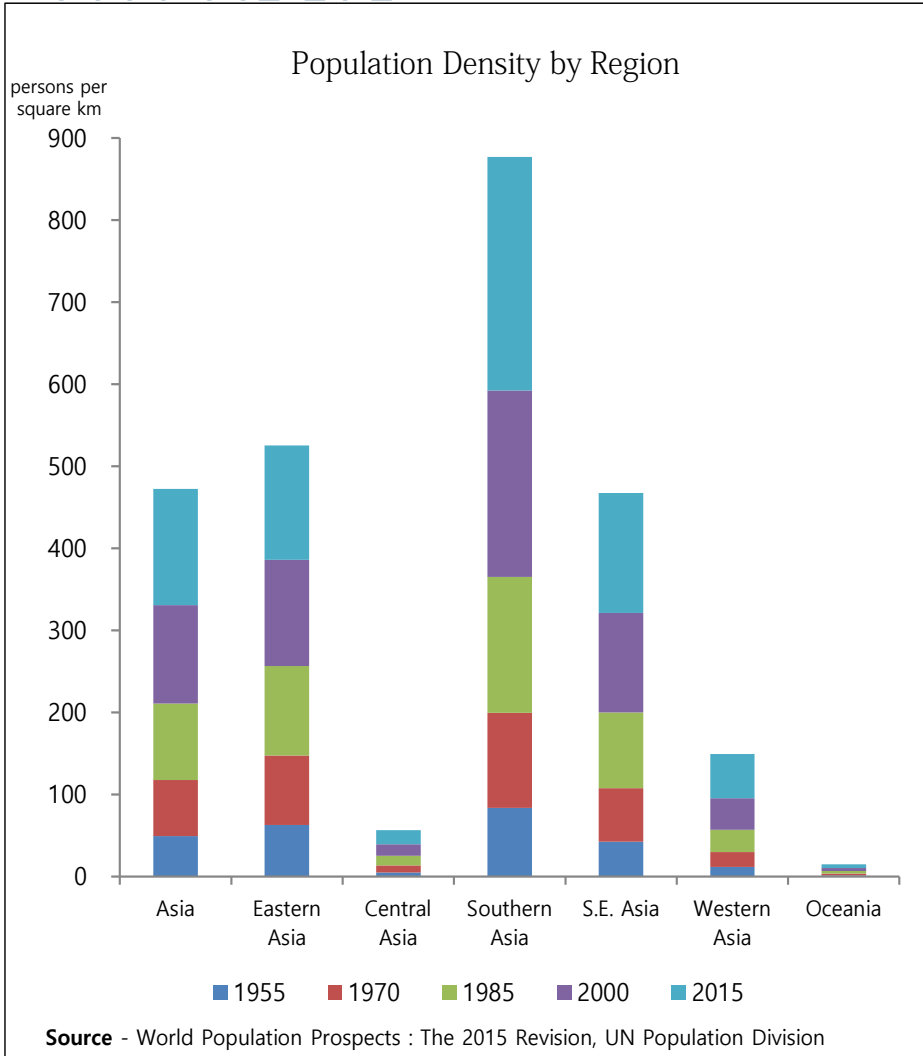
* 아태지역 주요국가별 인구밀도

	1955	1970	1985	2000	2015
CHN(1)	63.8	86.1	112.1	135.3	146.6
JPN(2)	242.5	284.5	329.1	344.8	347.2
KOR(3)	217.7	323.3	416.6	475.2	517.3
UZB(1)	18.3	28.1	42.7	57.6	70.3
KAZ(2)	3.0	4.9	5.8	5.5	6.5
TJK(3)	12.7	20.9	32.4	44.2	60.6
IND(1)	137.7	186.3	263.0	354.3	441.0
PAK(2)	52.4	75.4	119.6	179.3	245.1
BGD(3)	323.6	499.7	714.6	1008.5	1236.8
IDN(1)	42.7	63.4	91.1	116.8	142.2
PHL(2)	74.4	120.1	182.2	261.4	337.7
VNM(3)	90.8	140.0	196.9	258.9	301.4
TUR(1)	31.5	45.2	63.9	82.2	102.2
IRQ(2)	15.0	22.8	35.9	54.3	83.9
SAU(3)	1.7	2.7	6.2	10.0	14.7
AUS/NZL(1)	1.4	2.0	2.4	2.9	3.6
Melanesia(2)	4.5	6.2	9.3	13.2	18.2
Polynesia(3)	33.9	50.6	63.4	75.7	84.6
Micronesia(4)	53.9	78.3	112.6	156.8	166.0

■ Eastern Asia ■ Central Asia ■ Southern Asia ■ South-Eastern Asia ■ Western Asia ■ Oceania



* 아태지역 지역별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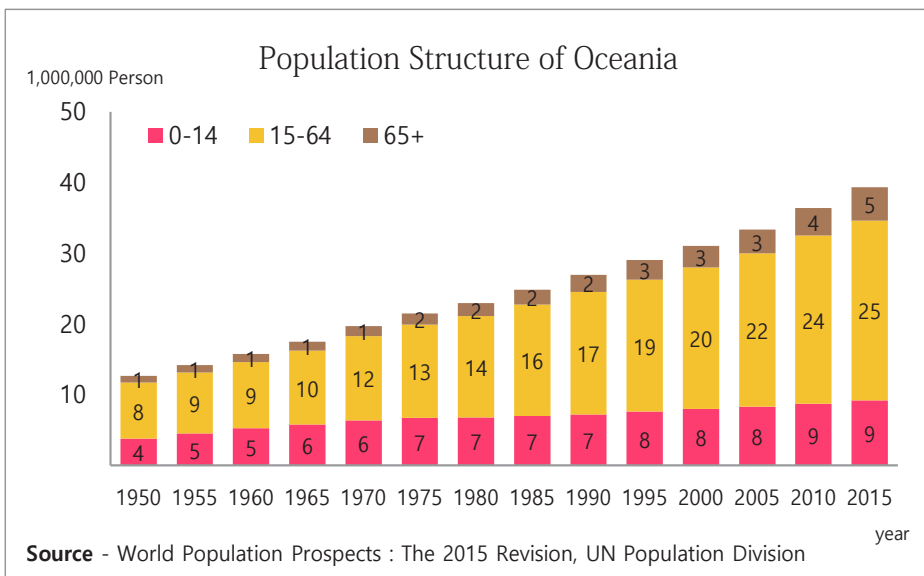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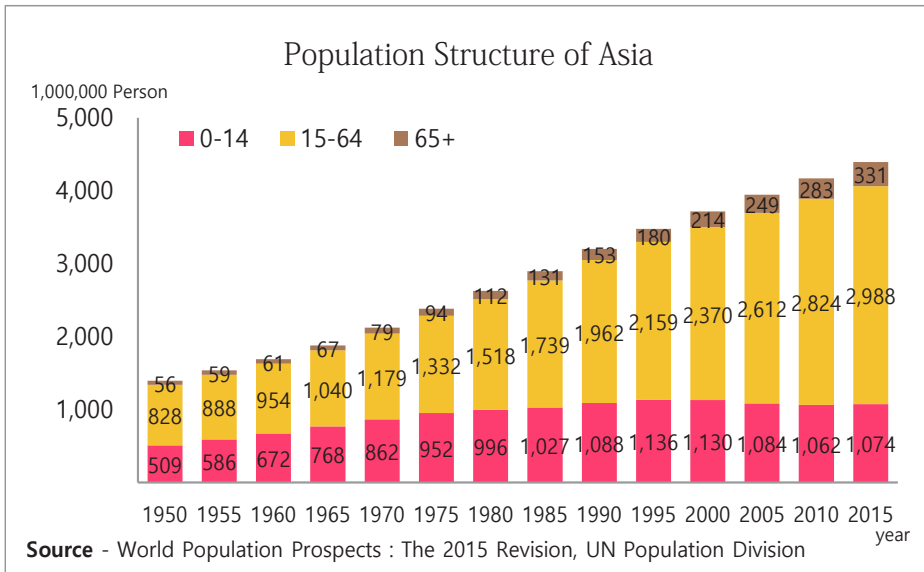


❖ 아태지역 지역별 인구밀도

- 남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지역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음
- 중앙아시아 지역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낮음
- 1955년에는 일본의 인구밀도가 한국보다 높았으나 1970년부터는 한국의 인구밀도가 일본을 역전함
- 1955년에는 베트남의 인구밀도가 필리핀보다 높았으나 2000년부터는 필리핀의 인구밀도가 베트남을 역전함
- 방글라데시는 2000년부터 1000/km² 이상의 인구밀도 기록
- 호주/뉴질랜드 지역은 2015년에도 5/km² 미만의 인구밀도 기록

3-1. 아태지역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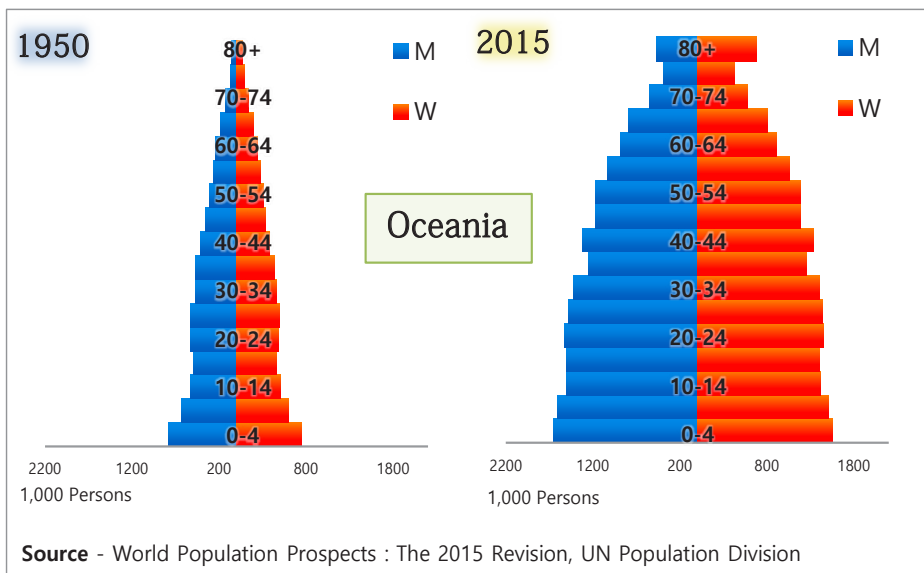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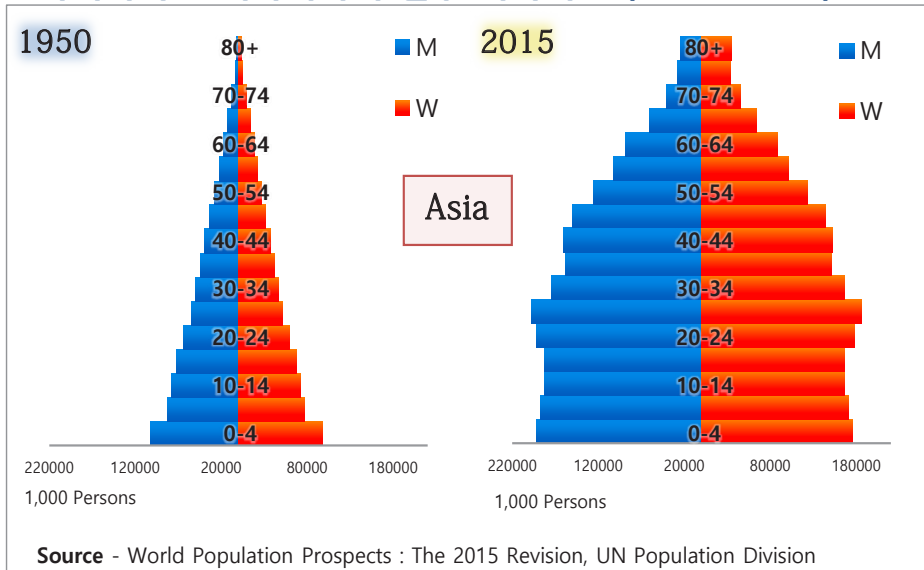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인구구조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인구구조

- **아시아:** 2015년 아시아 인구는 43억 9천만 명으로, 1950년도에 비해 3.15배 증가함. 0-14세의 인구는 약 2.1배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5.8배 증가
- **오세아니아:** 2015년 오세아니아 인구는 3천 9백만 명으로, 1950년도에 비해 3.1배 증가함. 0-14세의 인구는 약 2.4배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5배 증가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인구 피라미드 (1950,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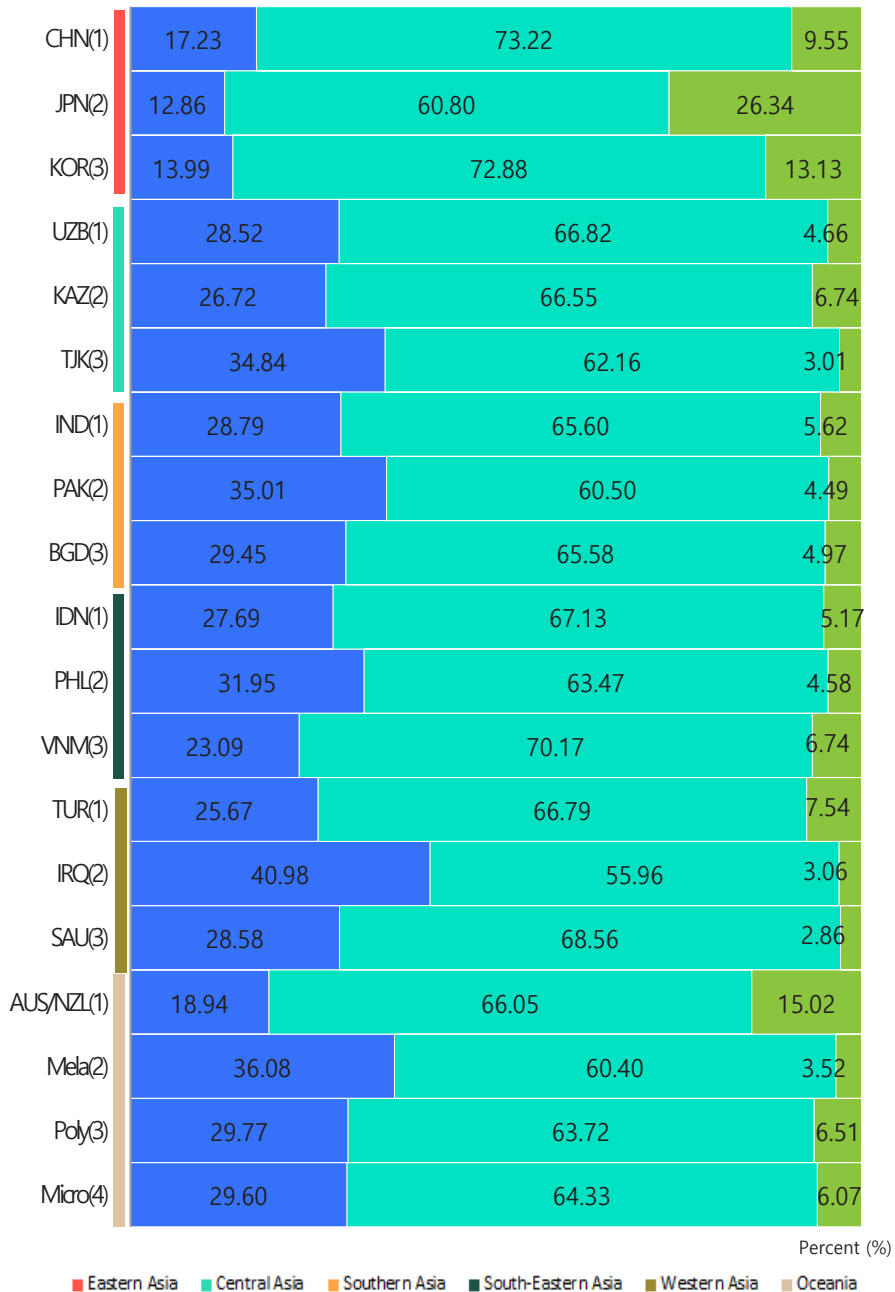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인구 피라미드 (1950, 2015)

- 1950년도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고 평균 수명이 낮은 인구구조를 보였으나 이후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노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인구구조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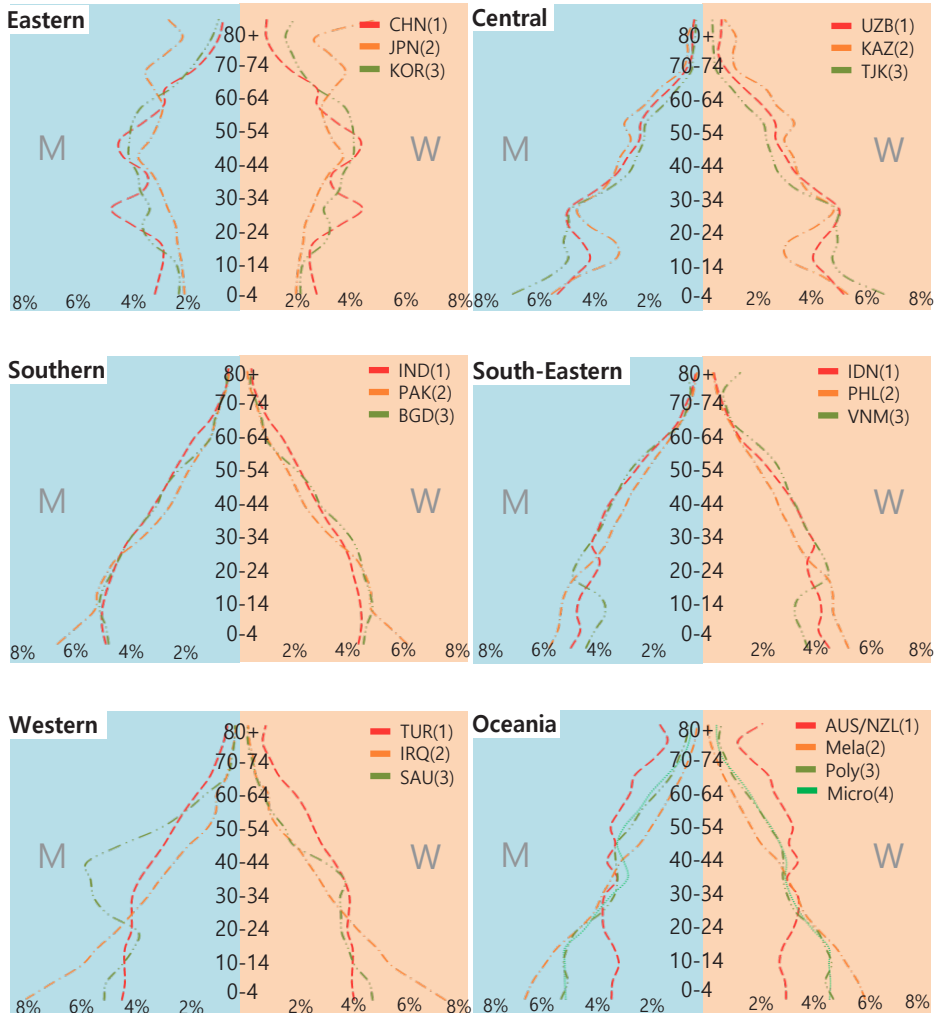
3-2. 아태지역 인구구조

* 아태지역 주요국가별 인구구조 (2015) ■ 0-14 ■ 15-64 ■ 65+



Source -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UN Population Division

* 아태지역 주요국가의 연령별 인구구조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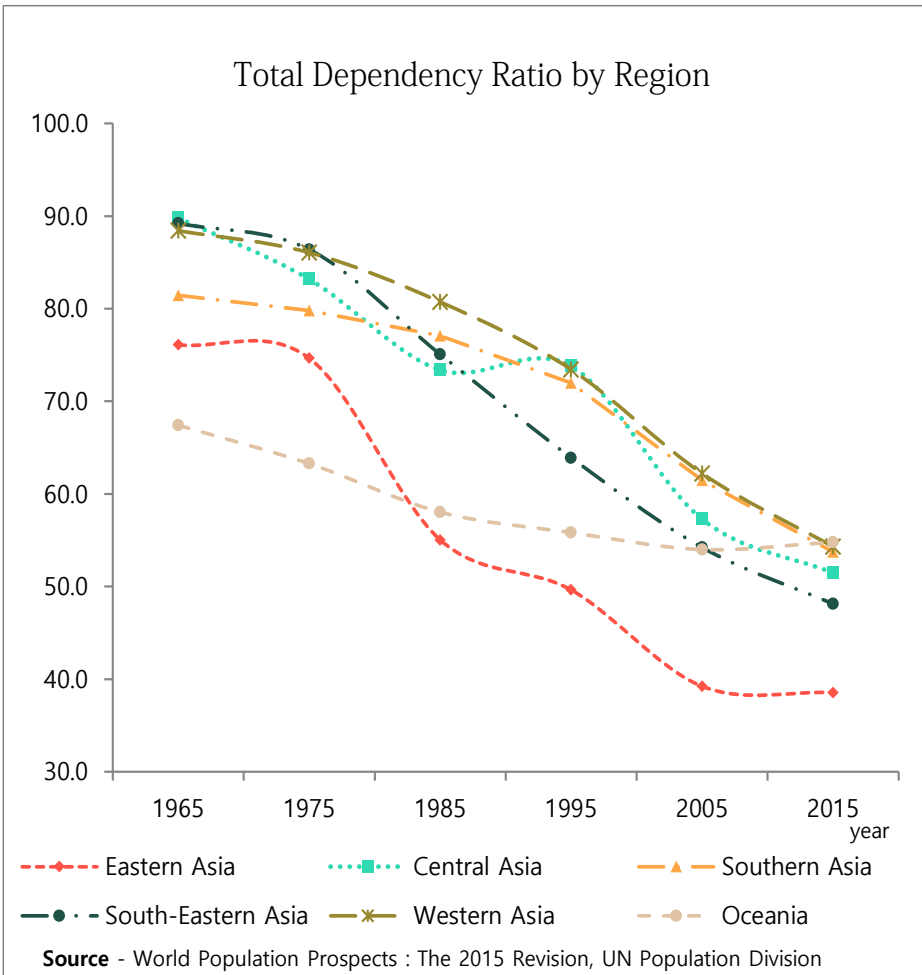
Source -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UN Population Division

❖ 아태지역 주요국가의 연령별 인구구조 (2015)

- 전체인구에서 0-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서아시아 30.1%, 남아시아 29.6%, 중앙아시아 29.1%, 동남아시아 26.5%, 동아시아 16.8% / 오세아니아 23.5%
-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동아시아 11.0%, 동남아시아 5.9%, 남아시아 5.4%, 서아시아 5.1%, 중앙아시아 4.9% / 오세아니아: 11.9%

4-1. 아태지역 부양비

* 아태지역 지역별 총 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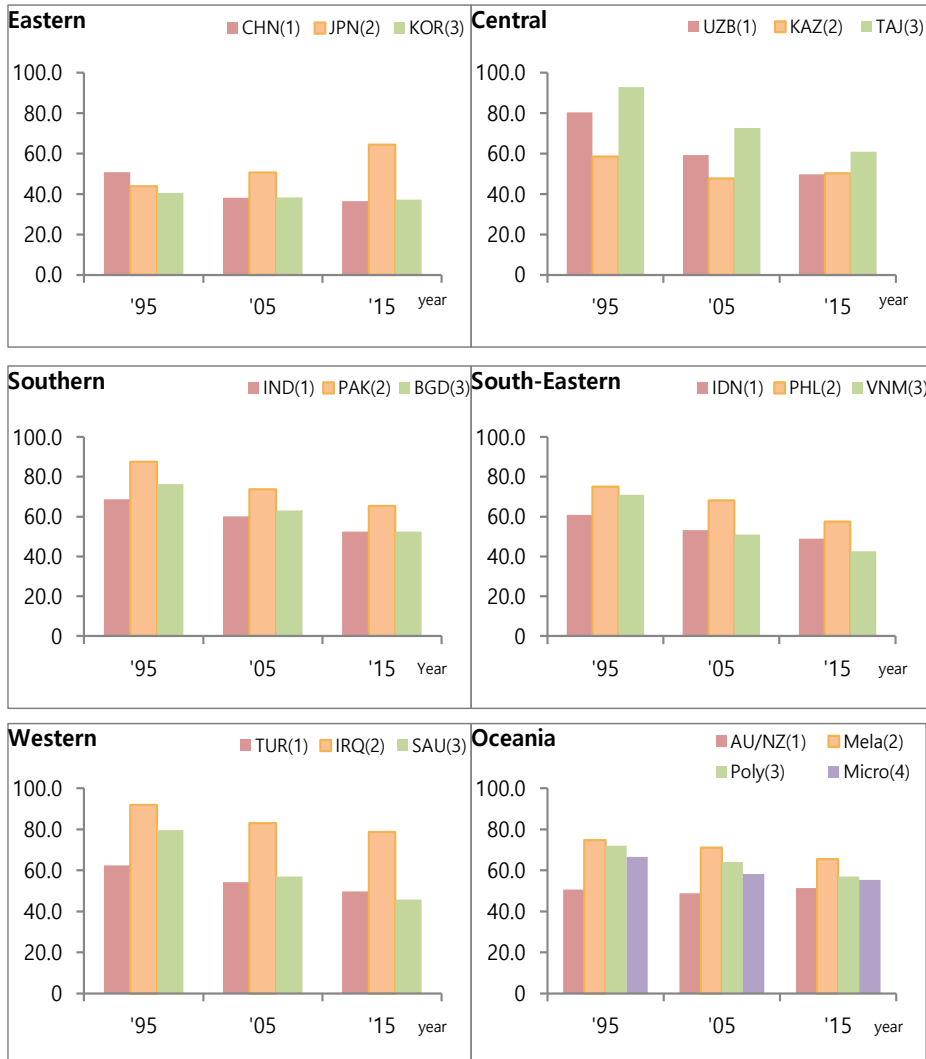
● 부양비 (dependency ratio)

-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하는 비생산연령인구(0-14세, 65세 이상)의 비율로,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피부양 인구. 총 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로 계산
- 유소년부양비: 0-14세 인구/ 15-64세 인구, 노년부양비: 65세 이상 인구/ 15-64세 인구

❖ 아태지역 지역별 총 부양비

- 동아시아: 1965년 76.1이었으며, 1995년 49.6, 2015년 38.6 기록
- 중앙아시아: 1965년 89.8이었으며, 1995년 73.4, 2015년 51.5 기록
- 남아시아: 1965년 81.4였으며 1995년 72.0, 2015년 53.7 기록
- 동남아시아: 1965년 89.2였으며, 1995년 63.9, 2015년 48.1 기록
- 서아시아: 1965년 88.4였으며, 1995년 73.4, 2015년 54.3 기록
- 오세아니아: 1965년 67.4였으며, 1994년 55.8, 2015년 54.8 기록

* 아태지역 주요국가별 총 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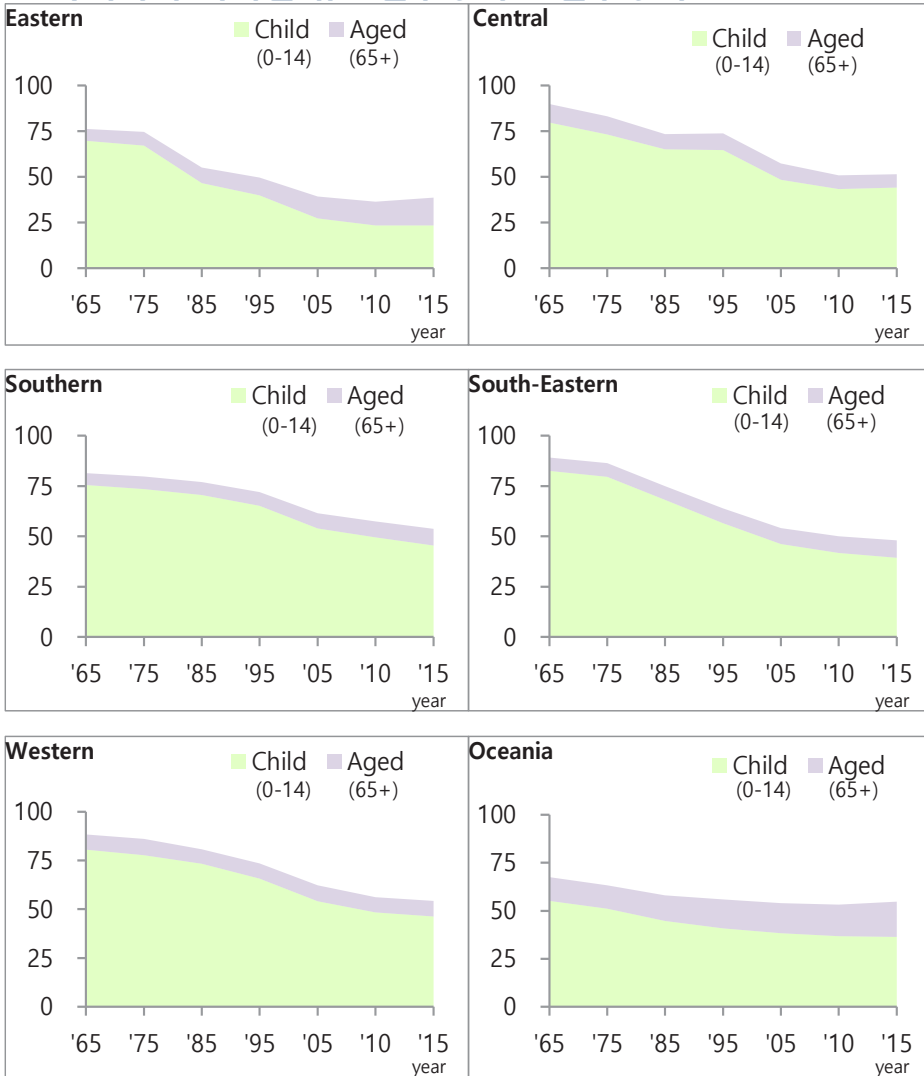
Source -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UN Population Division

❖ 아태지역 주요국가별 총 부양비

- **동아시아**: 세 국가중 일본의총부양비가가장 높으며 2015년 기준 64.5 기록
- **중앙아시아**: 세 국가중 타지키스탄의총부양비가가장 높으며 2015년 기준 60.9 기록
- **남아시아**: 세 국가중 파키스탄의총부양비가가장 높으며 2015년 기준 65.3 기록
- **동남아시아**: 세 국가중 필리핀의총부양비가가장 높으며 2015년 기준 54.6 기록
- **서아시아**: 세 국가중 이라크의총부양비가가장 높으며 2015년 기준 78.7 기록
- **오세아니아**: 네 지역중 멜라네시아지역의총부양비가가장 높으며 2015년 기준 65.6 기록

4-2. 아태지역 부양비

* 아태지역 지역별 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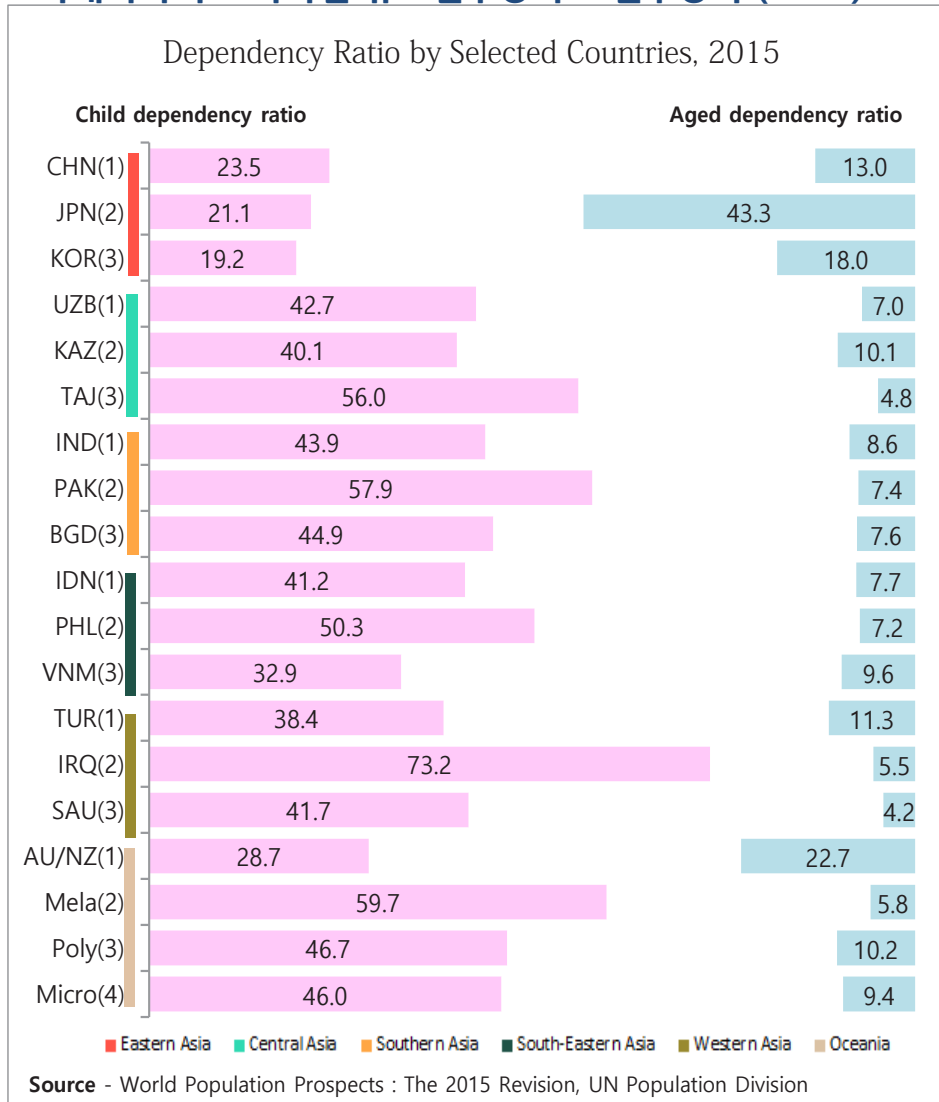


Source -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UN Population Division

❖ 아태지역 지역별 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

- **동아시아:** 유소년부양비는 2015년 기준, 23.3으로 감소/노년부양비는 2015년 기준, 15.3으로 증가
- **중앙아시아:** 유소년부양비는 2015년 기준, 44.0으로 감소/노년부양비는 2015년 기준, 7.4로 감소
- **남아시아:** 유소년부양비는 2015년 기준, 45.4로 감소/노년부양비는 2015년 기준, 8.3으로 증가
- **동남아시아:** 유소년부양비는 2015년 기준, 39.3으로 감소/노년부양비는 2015년 기준, 8.8로 증가
- **서아시아:** 유소년부양비는 2015년 기준, 46.4로 증가/노년부양비는 2015년 기준, 7.9로 큰차이 없음
- **오세아니아:** 유소년부양비는 2015년 기준, 36.3으로 증가/노년부양비는 2015년 기준, 18.5로 증가

* 아태지역 주요국가별 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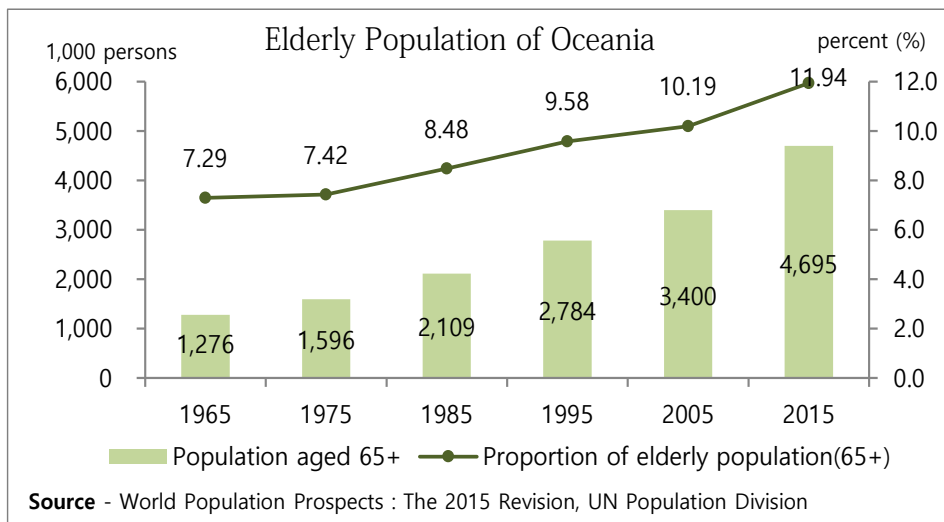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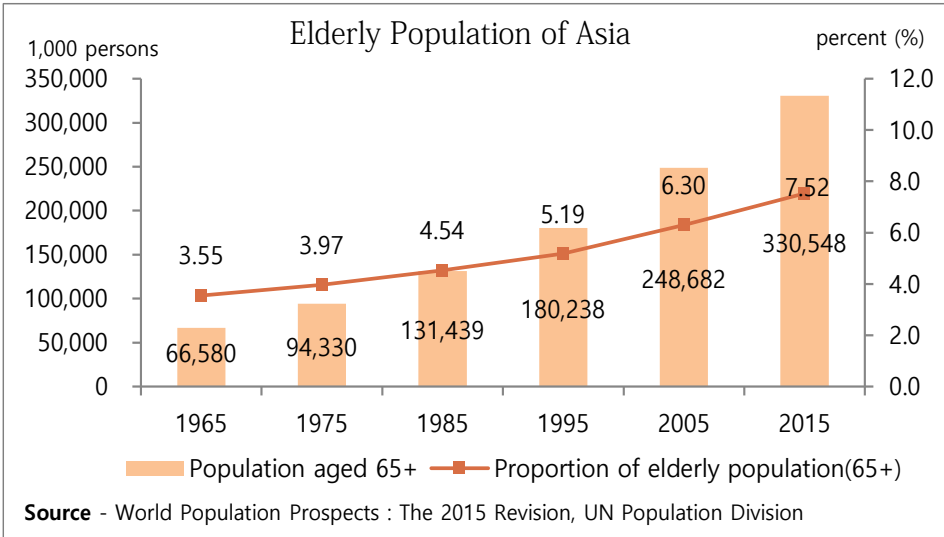


❖ 아태지역 주요국가별 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 (2015)

- **동아시아:** 유소년부양비는 중국이 23.5, 노년부양비는 일본이 43.3으로 가장 높음
- **중앙아시아:** 유소년부양비는 타지키스탄이 56.0, 노년부양비는 카자흐스탄이 10.1로 가장 높음
- **남아시아:** 유소년부양비는 파키스탄이 57.9, 노년부양비는 인도가 8.6으로 가장 높음
- **동남아시아:** 유소년부양비는 필리핀이 50.3, 노년부양비는 베트남이 9.6으로 가장 높음
- **서아시아:** 유소년부양비는 이라크가 73.2, 노년부양비는 터키가 11.3으로 가장 높음
- **오세아니아:** 유소년부양비는 멜라네시아지역이 59.7, 노년부양비는 호주, 뉴질랜드지역이 22.7로 가장 높음

5-1. 아태지역 고령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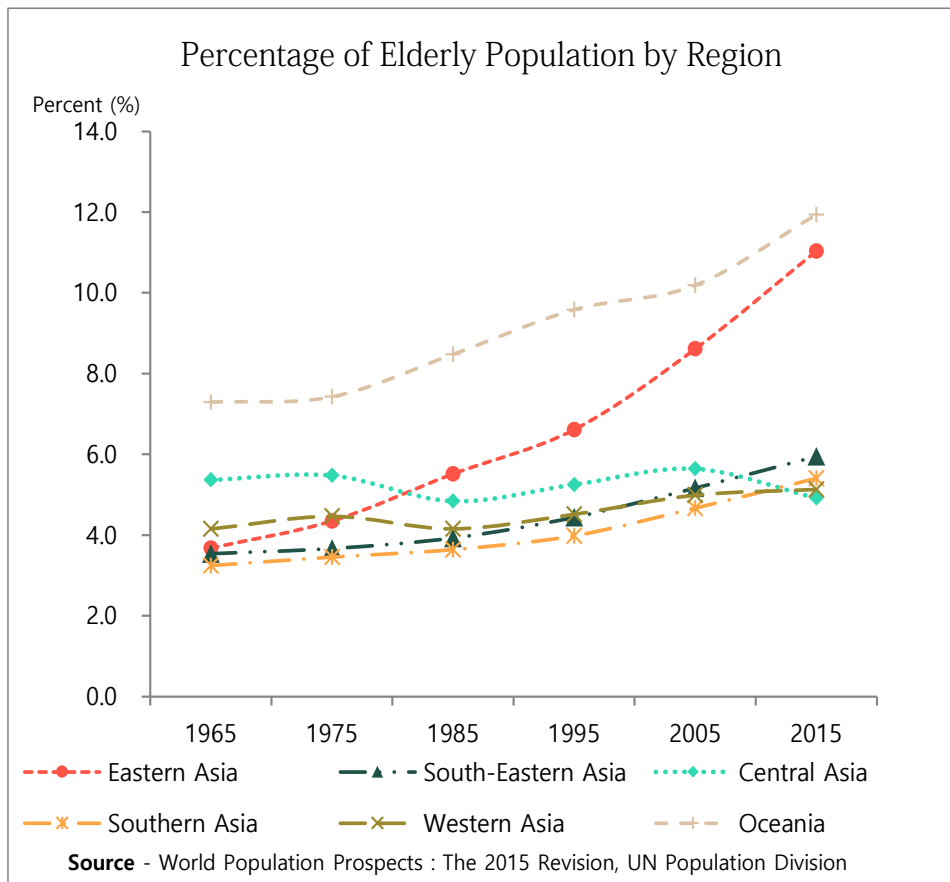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고령인구 및 고령인구비율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고령인구 및 고령인구비율

- **아시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을 보면, 1965년 3.5%였고 1995년에 5.19%로 5%를 넘어섰으며, 2015년에는 고령화 사회를 의미하는 7.52%로 증가. 2015년 기준, 아시아의 총인구인 약 44억 명 중 고령인구는 약 3억 3천만 명 기록
- **오세아니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을 보면, 1965년 7.29%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였으며, 2005년 10.19%로 10%를 넘어섰고 2015년에는 11.94%를 기록. 2015년 기준, 오세아니아의 총인구인 약 4천만 명 중 고령인구는 약 470만 명 기록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개념은 다음 페이지 참조)

* 아태지역 지역별 고령인구비율



❖ 아태지역 지역별 고령인구비율

- **동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을 보면 1965년에는 3.77%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8.61%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5년에는 11.03% 기록
-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을 보면 1965년에는 5.36%이었고 1985년에 4.8%로 조금 감소. 이후 다시 5%대의 고령인구비율을 유지하다가 2015년에는 4.91%로 다소 감소
- **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을 보면 1965년에는 3.24%였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면서 2015년에는 5.40%를 기록
-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을 보면 1965년에는 3.54%였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면서 2015년에는 5.95%를 기록
- **서아시아:** 서아시아 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을 보면 1965년에는 4.15%였고 이후 4%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에는 5.13%로 다소 증가
-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의 고령인구비율을 보면 1965년에는 7.29%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5년에는 11.94% 기록

5-2. 아태지역 고령인구

* 아태지역 주요국가별 고령인구 비율

Perce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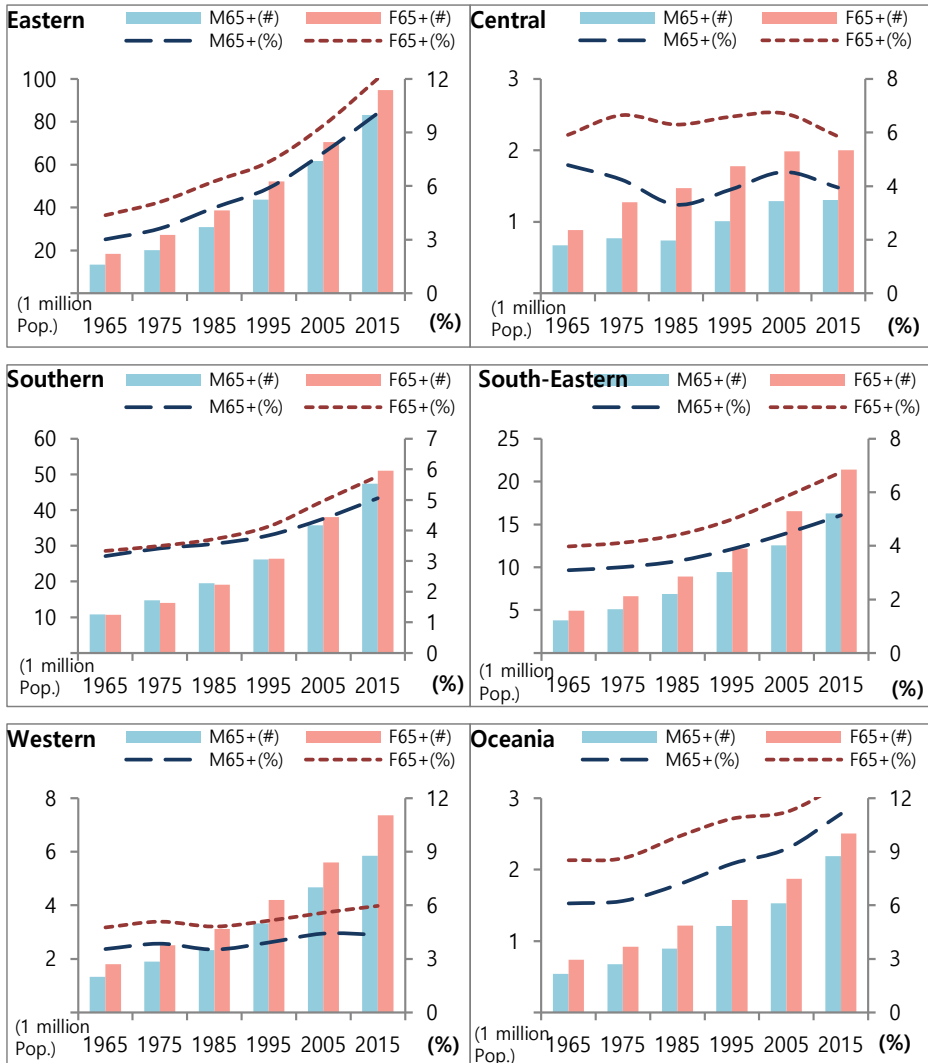
	1955	1970	1985	2000	2015
CHN(1)	4.05	3.66	5.06	6.65	9.55
JPN(2)	5.31	7.03	10.20	17.18	26.34
KOR(3)	3.39	3.32	4.33	7.34	13.13
UZB(1)	6.17	5.90	4.41	4.66	4.66
KAZ(2)	6.48	5.39	5.67	6.82	6.74
TJK(3)	5.04	5.11	4.03	3.54	3.01
IND(1)	3.16	3.32	3.73	4.41	5.62
PAK(2)	4.90	3.81	3.88	4.10	4.49
BGD(3)	3.02	2.74	3.00	3.82	4.97
IDN(1)	3.81	3.32	3.63	4.71	5.17
PHL(2)	3.33	2.99	3.17	3.23	4.58
VNM(3)	4.48	5.39	5.49	6.42	6.74
TUR(1)	3.17	3.94	4.39	5.99	7.54
IRQ(2)	2.64	4.01	4.02	3.47	3.06
SAU(3)	3.53	3.44	2.59	2.91	2.86
AUS/NZL(1)	8.55	8.27	10.27	12.25	15.02
Melanesia(2)	2.99	2.30	2.45	2.75	3.52
Polynesia(3)	2.54	2.65	3.34	4.63	6.51
Micronesia(4)	3.19	2.85	3.41	3.84	6.07

■ Eastern Asia ■ Central Asia ■ Southern Asia ■ South-Eastern Asia ■ Western Asia ■ Oceania

❖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개념

-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7%가 넘는 사회
- 고령사회(Aged Society):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14%가 넘는 사회

* 성별에 따른 아태지역 지역별 고령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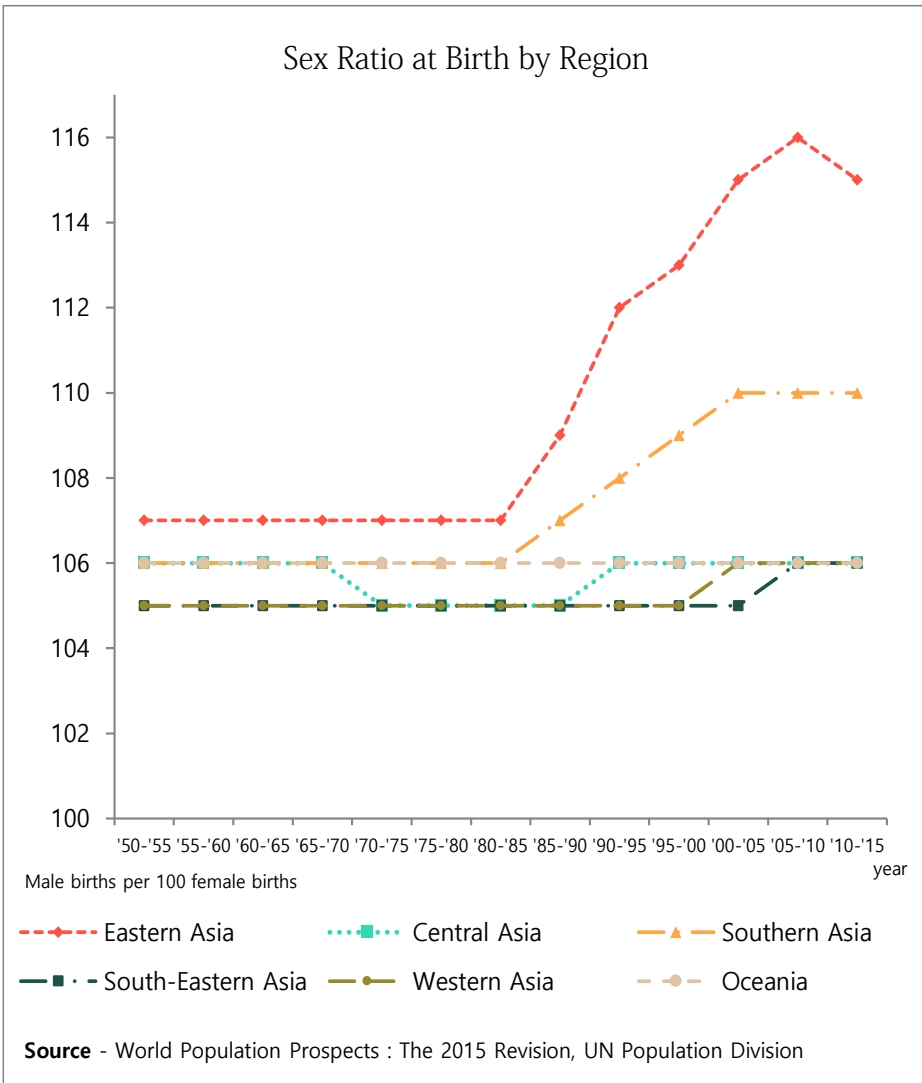
Source -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UN Population Division

❖ 성별에 따른 아태지역 지역별 고령인구비율

- 동아시아: 2015년 기준, 남성 - 10.09%, 여성 - 12.02%
- 중앙아시아: 2015년 기준, 남성 - 3.95%, 여성 - 5.85%
- 남아시아: 2015년 기준, 남성 - 5.05%, 여성 - 5.78%
- 동남아시아: 2015년 기준, 남성 - 5.14%, 여성 - 6.74%
- 서아시아: 2015년 기준, 남성 - 4.36%, 여성 - 5.97%
- 오세아니아: 2015년 기준, 남성 - 1.11%, 여성 - 12.76%

6-1. 아태지역 출생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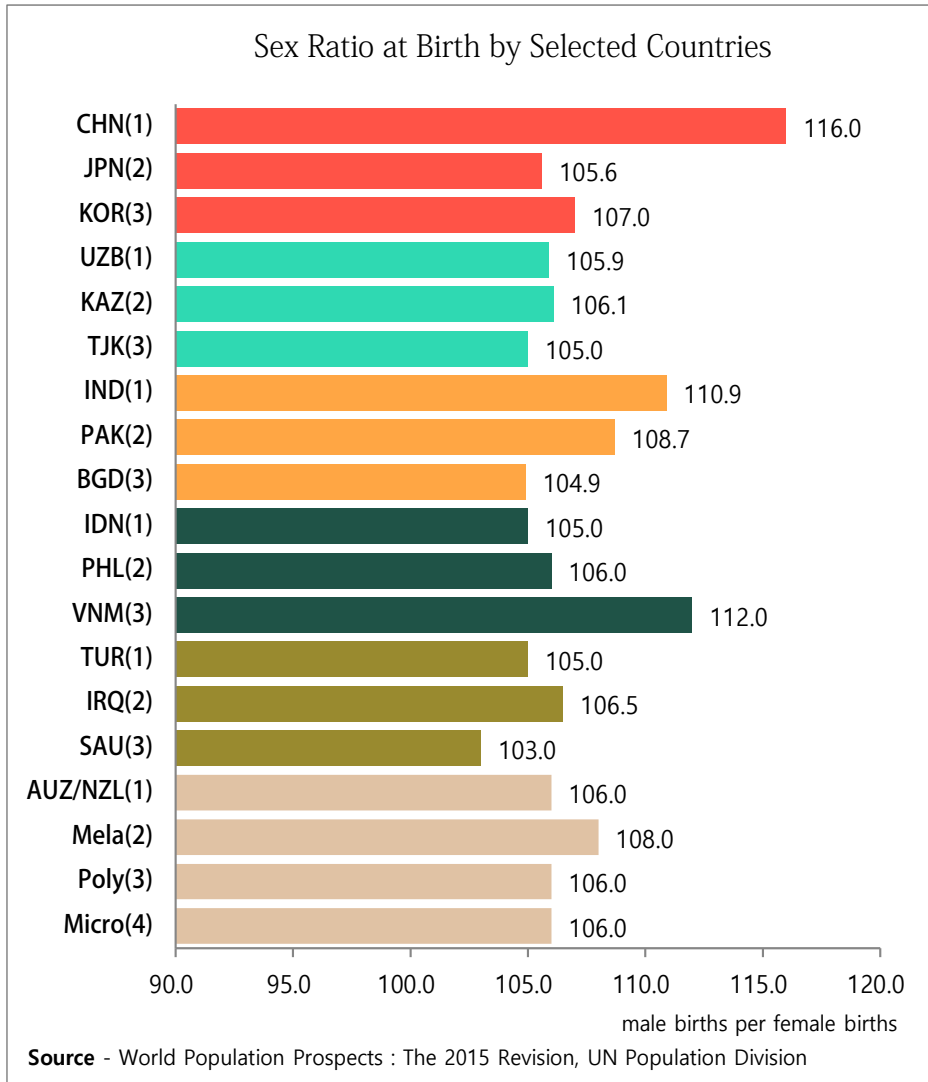
* 아태지역 지역별 출생성비



❖ 아태지역 지역별 출생성비

- **동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의 출생성비는 1955년부터 1985년까지 107을 유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990년부터 110이상의 출생성비를 기록하였고 2000년부터는 115이상을 기록하면서 아태지역 내 가장 높은 출생성비를 기록
- **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의 출생성비는 1955년부터 1985년까지 106을 유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00년부터는 110이상의 출생성비를 기록
-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4개 지역의 출생성비는 1955년부터 2015년 지금까지 큰 변동 없이 105에서 106사이의 출생성비를 유지

* 아태지역 주요국가별 출생성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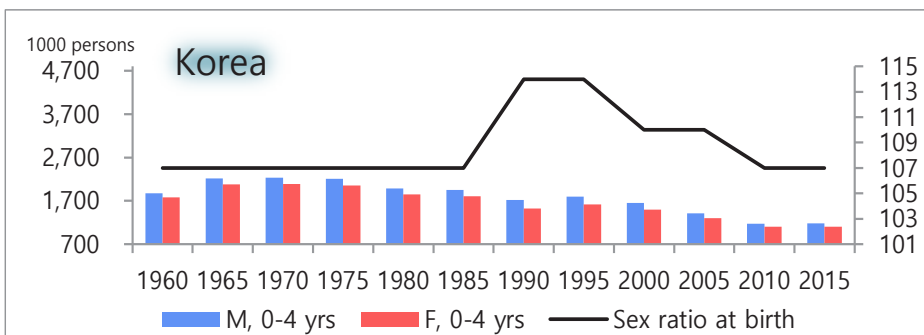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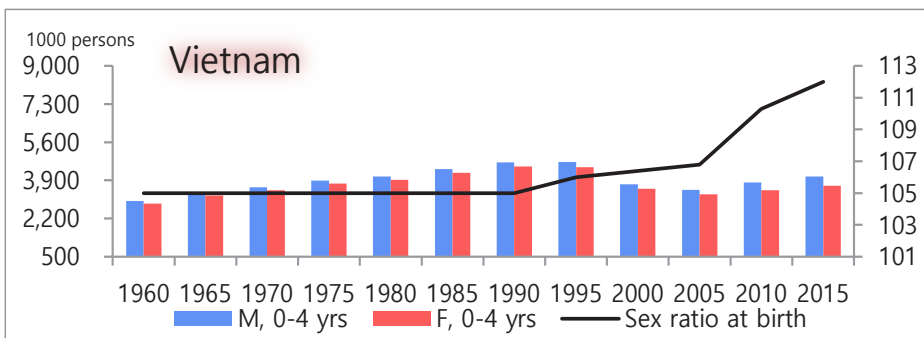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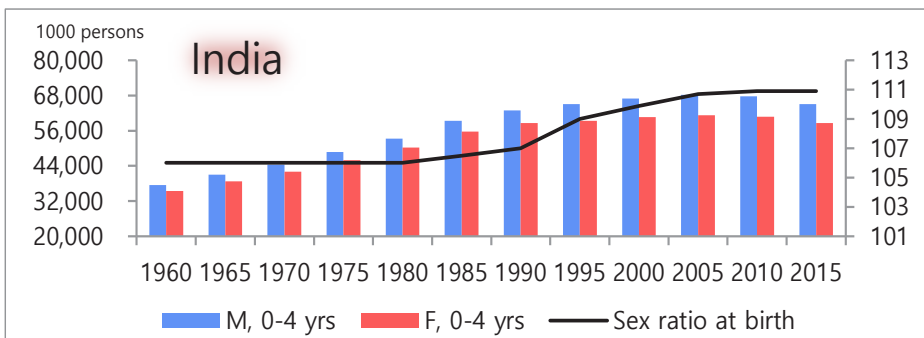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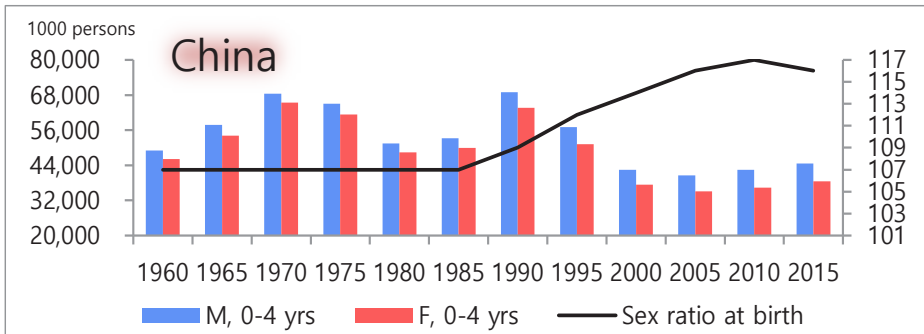


❖ 아태지역 주요국가별 출생성비 (2015)

- 국가별 인구순위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성비는 1990년 이후부터 110이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생태학적으로 일반적인 출생성비라고 할 수 있는 103-107을 넘어섬
- 동남아시아 베트남의 출생성비가 2005년부터 110이상으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향후 결혼이주와 관련하여 '인구유출'국가에서 '인구유입'국가로 변화될 가능성 시사

6-2. 아태지역 출생성비

* 아태지역 출생성비 불균형 국가



출생성비 불균형 사례 - China, Korea, India, Vietnam

❖ 원인

- 남아선호사상: 문화/종교의 영향과 더불어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음. 1980년 이후 인구 감소를 위한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남아 선호사상에 영향을 미쳐 성비 불균형이 심화
- 남녀의 사회 경제적 지위 격차: 여성의 지위나 소득이 남성보다 낮은 사회에서는 장기 적으로 남아를 출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환경이 조성되어 남아 출산율이 높음
- 태아 성감별 기술 발달: 남아선호사상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태아 성감별 기술 발달로 인한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해지면서 남아 출산이 증가함. 태아 성감별 기술 발달이 원 인이 되는 경우, 대체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도심 지역에서 남아 출산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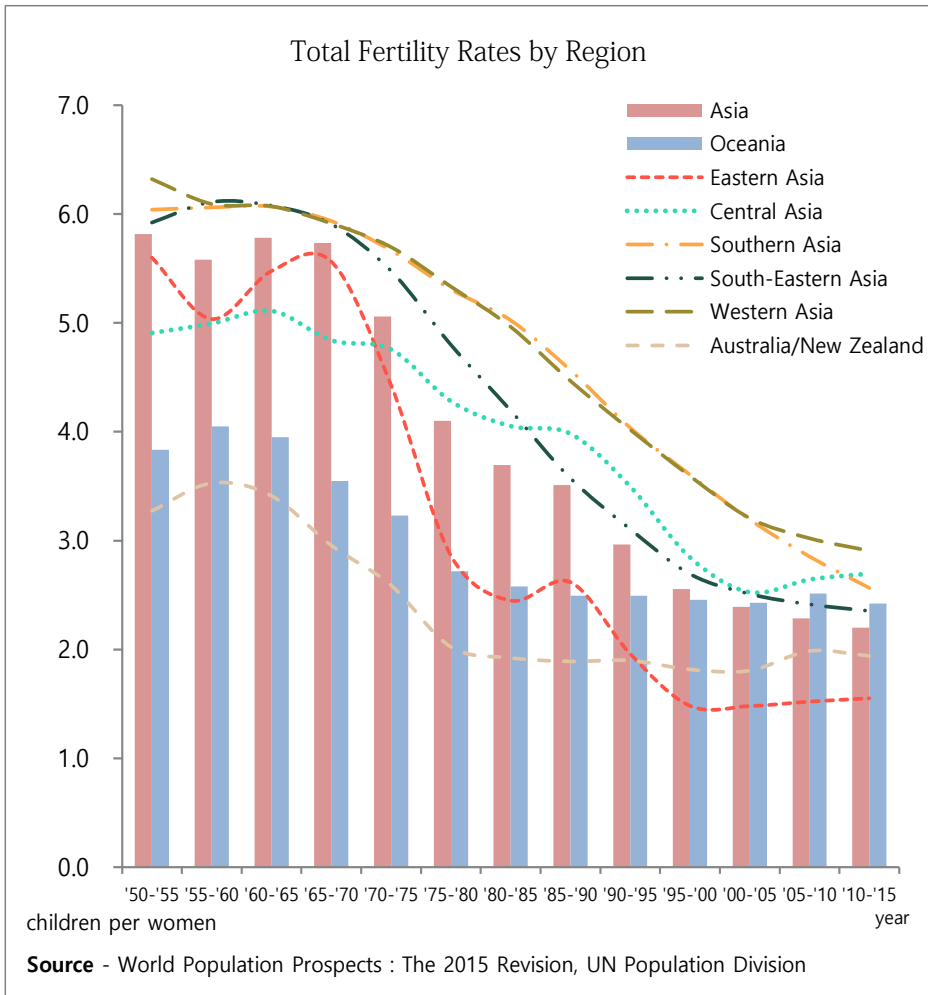
출생성비 불균형 회복 사례 - Korea

❖ 이유

- 저출산 및 태아성감별 금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저출산 및 태아성감별 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자녀의 성별을 선택할 수 없게 되면서 선택적인 남아 출산이 제한됨
-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가치관 변화: 산업화, 도시화,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로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아들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전통적인 부양관 등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아들선호풍조가 약화됨
- 법적 제도 개선: 2005년에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는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남성이 호주가 되고 여성이 호주에 예속되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벗어남. 또한 남성 중심의 상속제도를 개혁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부계체계가 약화됨

7-1. 아태지역 출산력 지표 (1)

* 아태지역 지역별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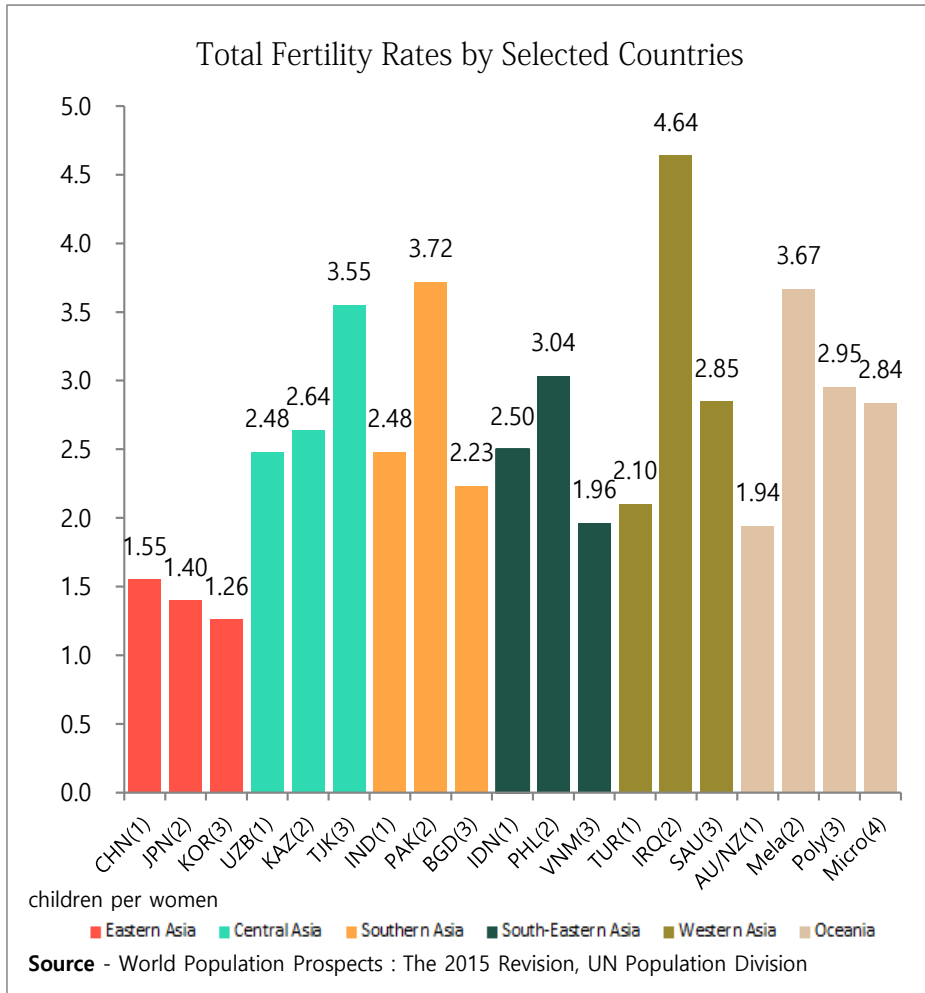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 한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합계출산율

- 아시아:** 1950-1955년, 아시아의 합계출산율은 5.82였으나 점차 감소하면서 1980년부터는 4.0미만으로 감소, 1990년부터는 3.0미만으로 감소하였고 2010-2015년에는 2.20을 기록
- 오세아니아:** 1950-1955년, 오세아니아의 합계출산율은 3.84였으나 1955-1960년 소폭 상승 후에 점차 감소하면서 1960년부터는 3.0미만으로 감소하였고 2010-2015년에는 2.42를 기록하며 아시아의 합계출산율을 역전

* 아태지역 주요국가별 합계출산율 (2015)



❖ 아태지역 지역별 합계출산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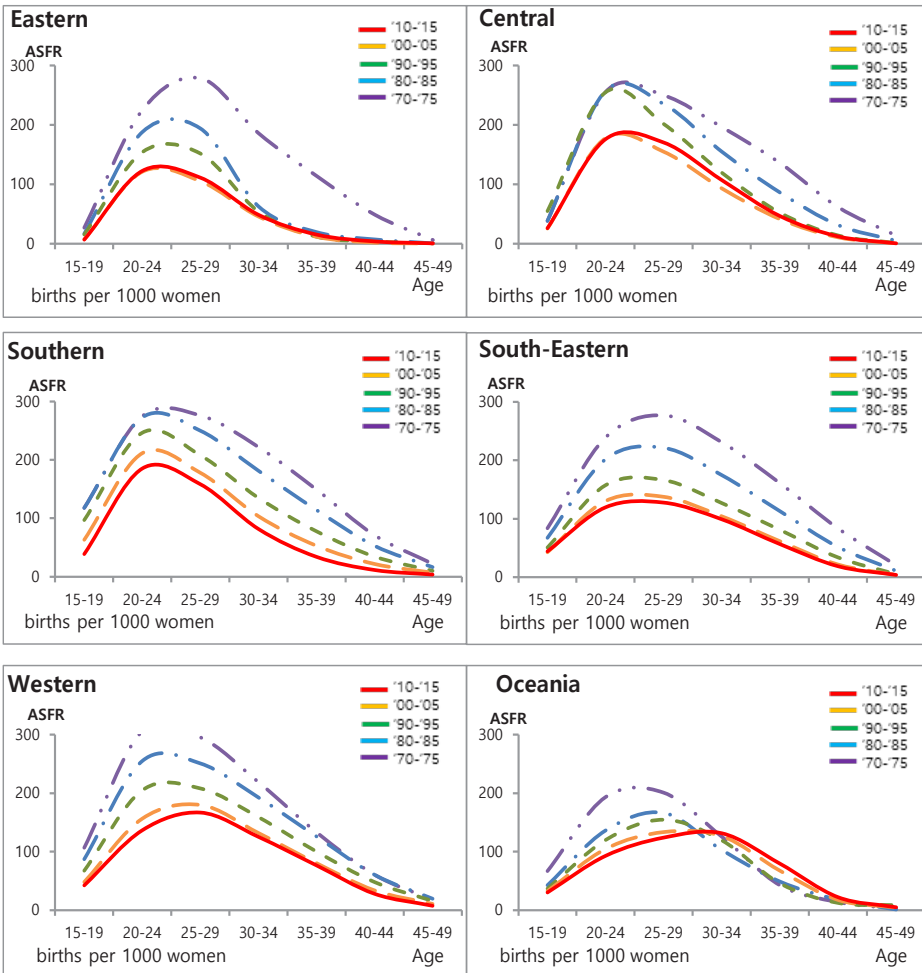
- 서아시아 2.91, 중앙아시아 2.70, 남아시아 2.56, 오세아니아 2.42, 동남아시아 2.35, 동아시아 1.55

❖ 아태지역 주요국가별 합계출산율 (2015)

- 2015년 기준, 동아시아지역의 중국, 일본, 한국은 2.0미만의 매우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
- 아태지역 내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서아시아지역의 이라크로 4.64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동아시아지역의 한국으로 1.40의 합계출산율을 기록

7-2. 아태지역 출산력 지표 (1)

* 아태지역 지역의 연령별출산율



Source -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UN Population Di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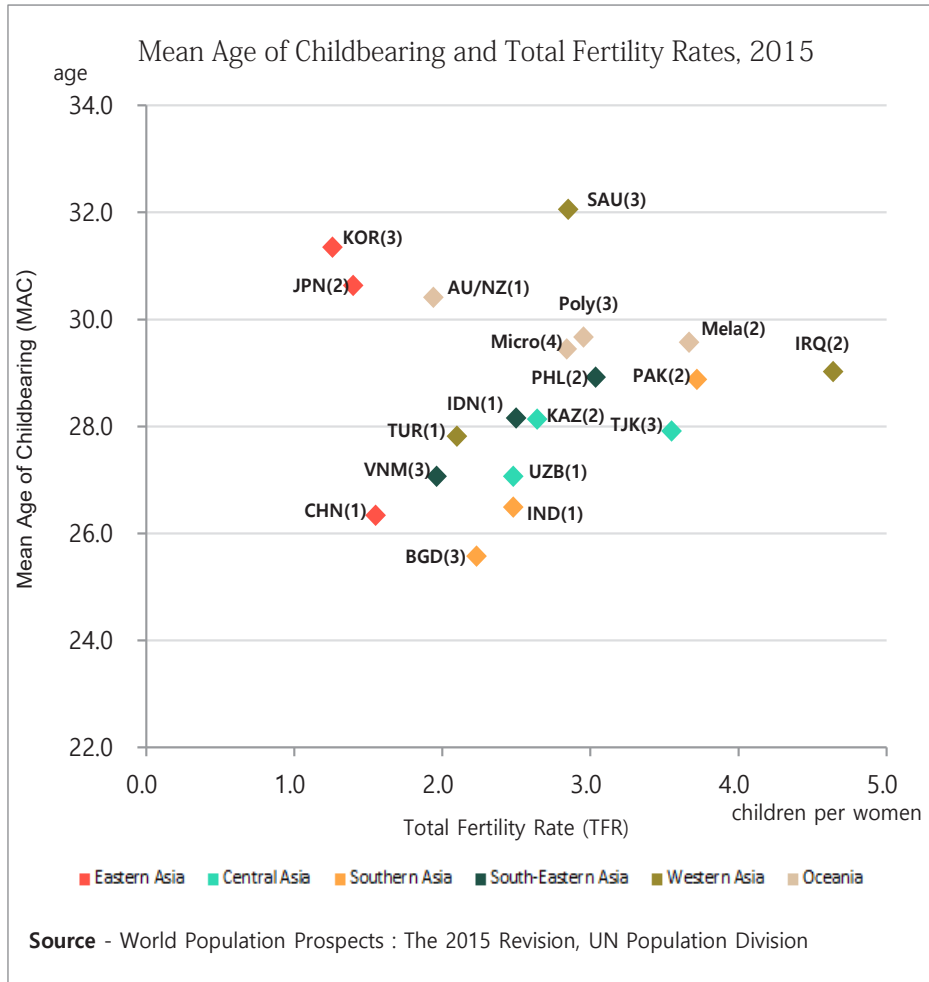
● 연령별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ASFR)

- 특정연도의 15-49세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를 해당 연령의 여성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출산력 지표

❖ 아태지역 지역의 연령별출산율

- 남아시아지역, 동남아시아지역, 서아시아지역은 전 연령 그룹에서 연령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동아시아지역은 2010년, 중앙아시아지역은 2000년부터 30-44세 연령 그룹에서 출산율이 소폭 상승
- 오세아니아는 1990년 이후부터 30세 이상 연령 그룹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 아태지역 주요국가의 평균출산연령과 합계출산율 (2015)



❖ 아태지역 지역의 평균출산연령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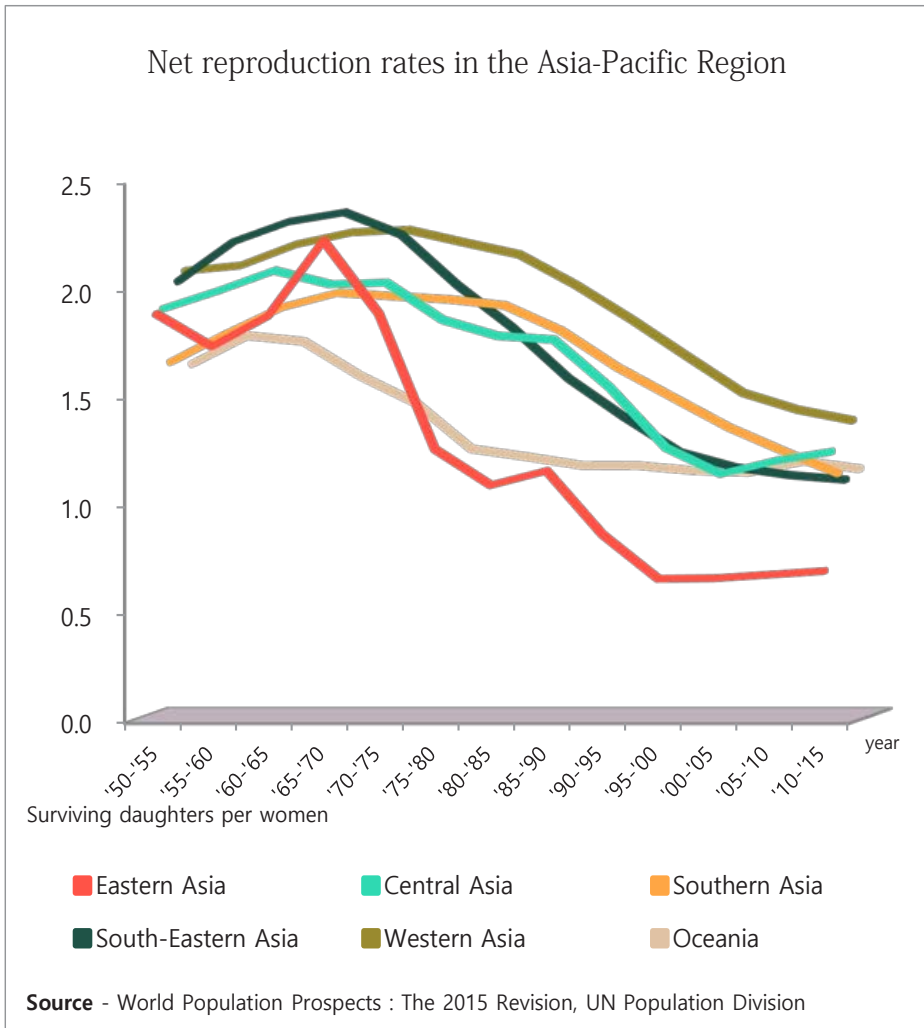
- 오세아니아 29.79세, 서아시아 28.96세, 동남아시아 28.31세, 중앙아시아 27.62세, 남아시아 26.87세, 동아시아 26.83세

❖ 아태지역 주요국가의 평균출산연령 (2015)

- 동아시아지역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은 26.33세의 낮은 평균출산연령을 기록한 반면 일본은 30.63세, 한국은 31.34세의 높은 평균출산연령을 기록
- 아태지역 내 평균출산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는 서아시아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로 32.06세의 평균출산연령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남아시아지역의 방글라데시로 25.57세의 평균출산연령을 기록

8-1. 아태지역 출산력 지표 (2)

* 아태지역 지역별 순재생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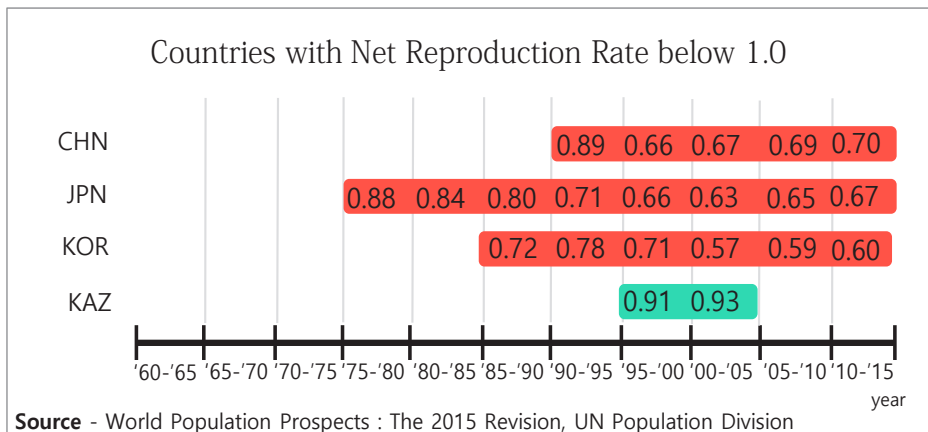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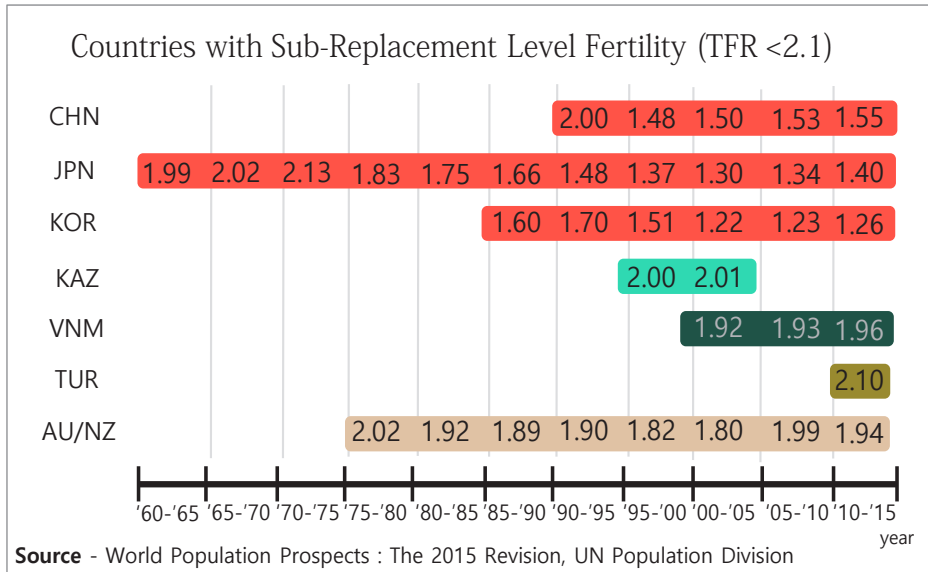
● 인구 순재생산율(Net Reproduction Rate: NRR)

- 한 여성이 출산하여 자신이 출산한 연령까지 키운 여아의 수. 순재생산율이 1.0 보다 작을 경우 인구 감소

❖ 아태지역 지역별 순재생산율

- 동남아시아지역은 1965-1970년에 아시아 지역 내 가장 높은 2.33의 순재생산율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2015년에는 1.09를 기록
- 동아시아 지역은 1965-1970년에 2.23의 순재생산율을 기록하였으나 급격히 감소하다가 1990년 이후 부터는 1.0 미만인 되었음

* 아태지역 저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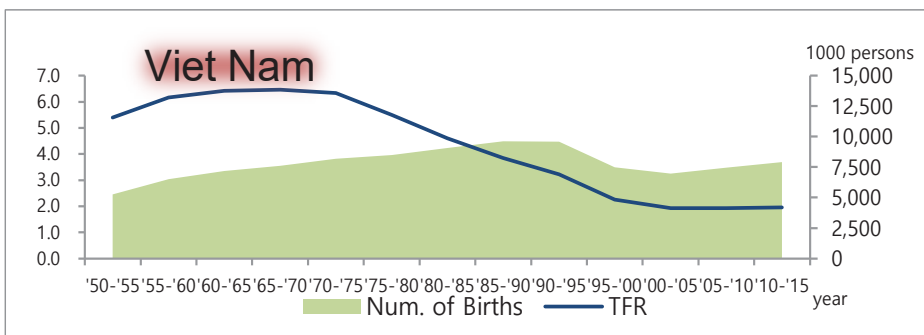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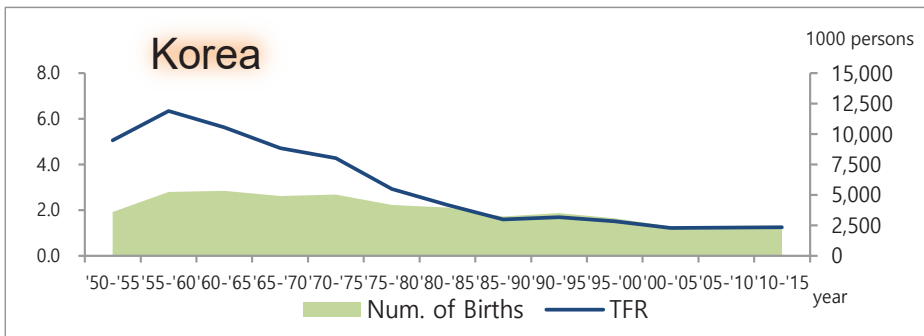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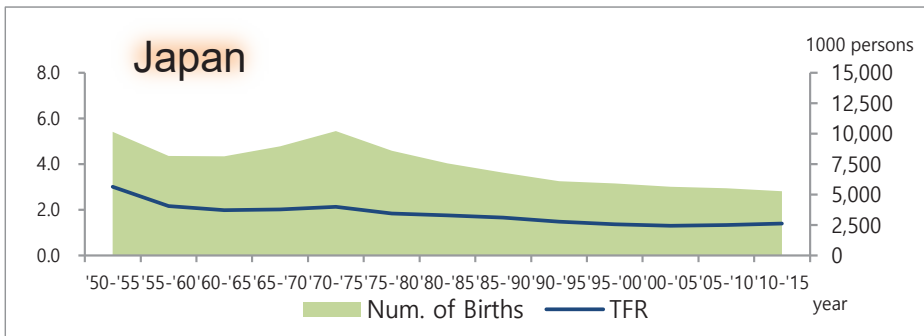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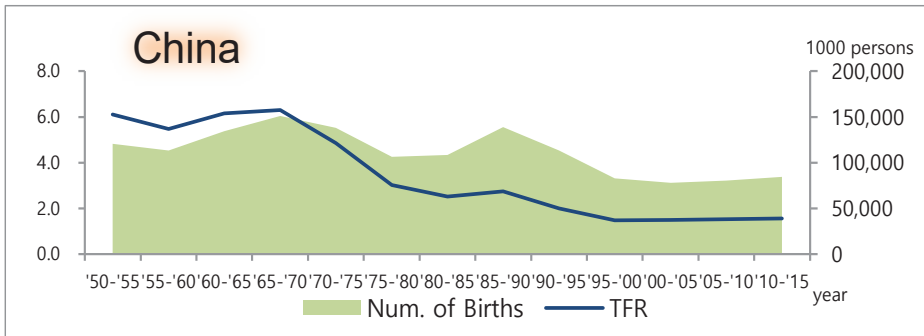


❖ 아태지역 저출산 국가 (합계출산율 2.1 미만)

- 일본은 1960년대 초부터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한국은 1985년, 중국은 1990년부터 저출산 국가에 진입함. 특히 한국의 경우, 2000년대 부터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으로 나타나는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남
- 카자흐스탄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후 점차 회복하면서 2010-2015년 현재는 2.64의 합계출산율을 기록
- 호주 및 뉴질랜드는 1975년, 베트남은 2000년, 터키는 2010년부터 저출산 국가에 진입함

8-2. 아태지역 출산력 지표 (2)

* 아태지역 저출산 국가



Source -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UN Population Division

저출산 문제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영향

- 노동력 감소: 출생아 수 감소로 생산가능인구 규모 축소. 노동력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하여 산업 활동이 위축되며, 저축, 소비지출, 투자지출 감소로 이어져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하락
-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부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의 증가로 사회적 지출을 위한 정부 세출은 증가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

저출산 문제의 원인

❖ 원인

-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 및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미혼 여성 증가 및 기혼 여성의 첫출산 평균연령 증가
-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자녀 양육이 노동력 증대로 인식되기 보다는 교육비용 증가 등 비용적 측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짐
-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1960년대 이후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개인주의가 확대되면서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의무에서 선택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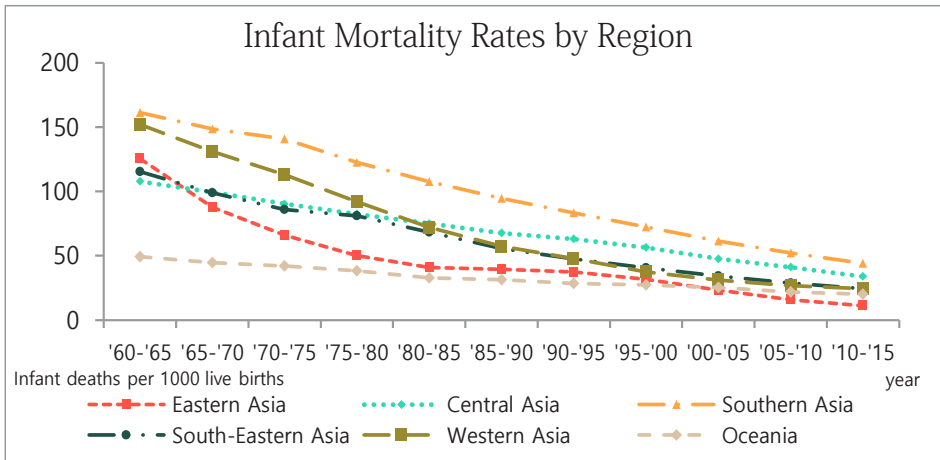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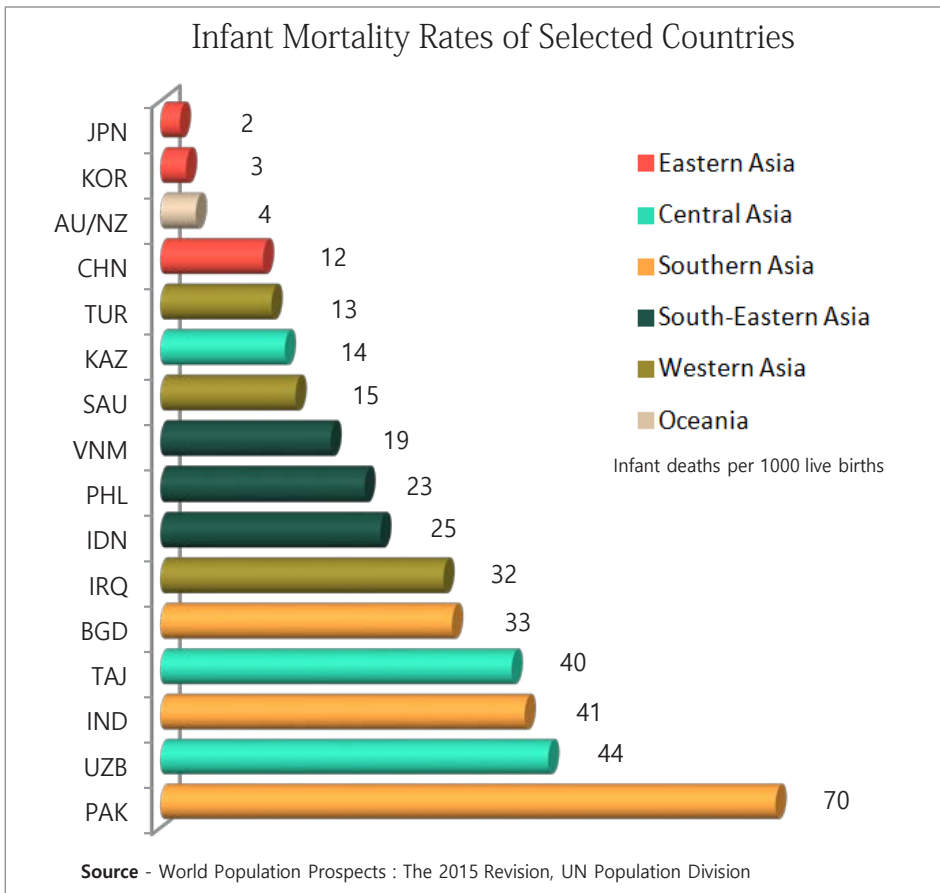
- 청장년층의 사회경제적 안정: 혼인기에 접어든 청장년층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통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 감소
-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재정립: 사회환경 개선 및 인구교육을 통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정립
- 보육서비스 정책: 일-육아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활성화, 사내 보육 기관 증대 등 적극적인 보육 서비스 정책 시행
- 세금 혜택 및 지원금 정책: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하여 정부의 출산 보조금, 아동 양육비 지원 정책 시행

9-1. 아태지역 사망률 지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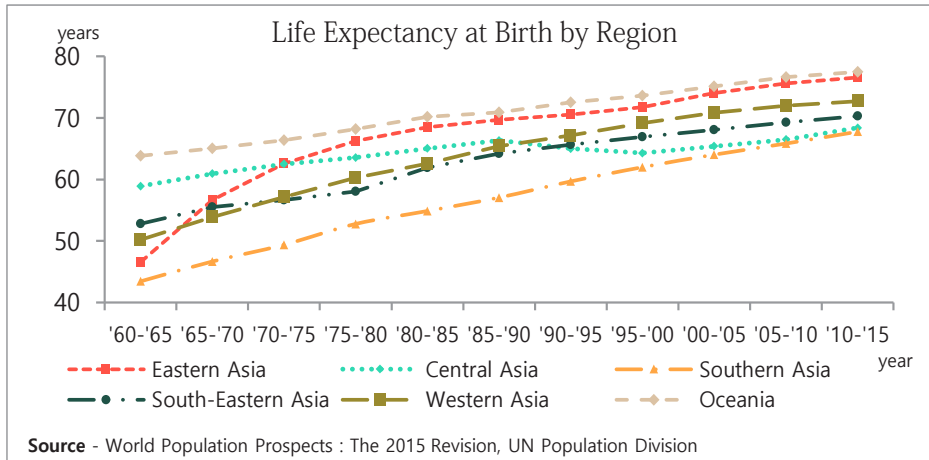
* 아태지역 지역별 영아사망률



* 아태지역 주요국가별 영아사망률 (2015)



* 아태지역 지역별 출생시 기대여명



● 영아 사망률

-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 수를 해당 연도의 1년간 총 출생아 수로 나눈 비율로, 보통 1,000분비로 나타냄

❖ 아태지역 지역별 영아사망률

- 아시아 지역의 영아 사망률은 1960년대에는 100 이상이었으나 2010년에는 50 미만으로 감소
- 동아시아 지역은 1960년대에는 아태지역 중 세 번째로 높은 영아사망률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크게 감소하면서 2000년대 이후부터는 가장 낮은 영아사망률을 기록
- 오세아니아는 1960년부터 큰 변동 없이 꾸준히 50 이하의 낮은 영아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음
- 2015년,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동아시아의 일본 (IMR: 2)이며, 동아시아의 한국 (IMR: 3), 오세아니아의 호주/뉴질랜드 (IMR: 4)가 뒤를 이음

● 출생시 기대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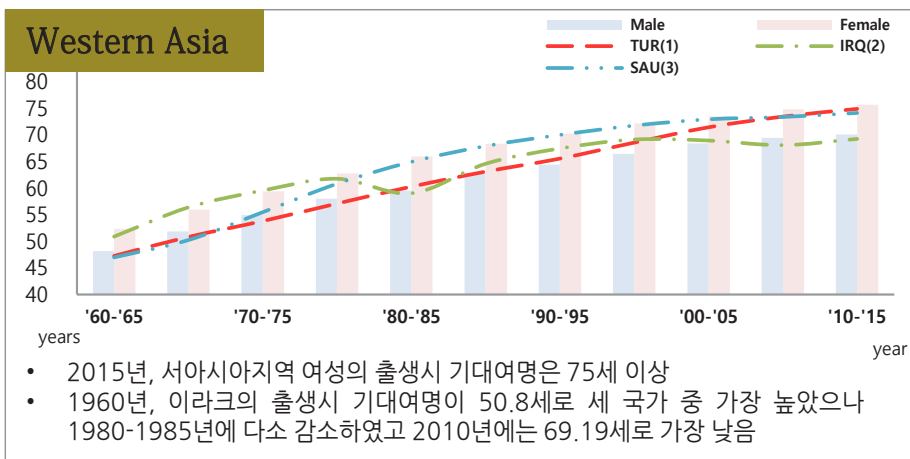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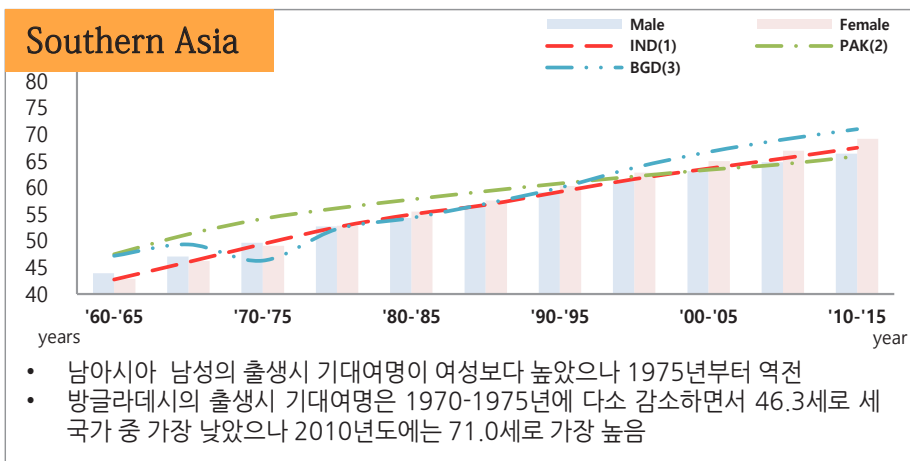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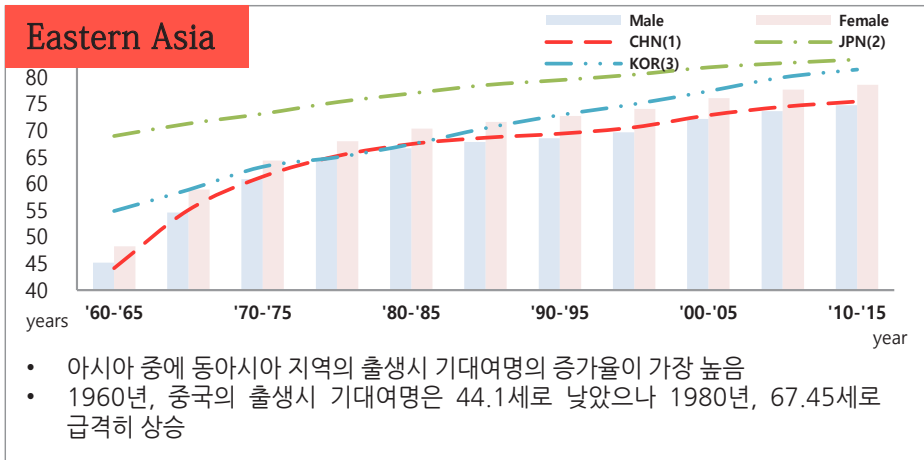
-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 아태지역 지역별 출생시 기대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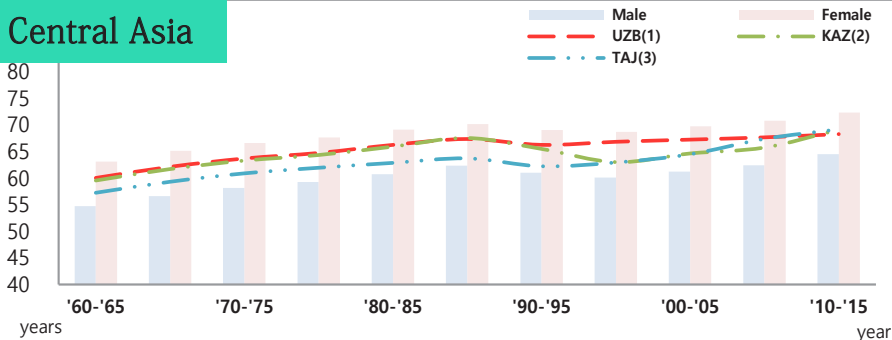
- 1960년, 아시아지역의 출생시 기대여명은 모두 60세 미만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60세 후반 이상을 기록
- 2015년, 오세아니아와 동아시아 지역의 출생시 기대여명은 70세 후반으로 높음

9-2. 아태지역 사망률 지표 (1)

* 아태지역 주요국가별 출생시 기대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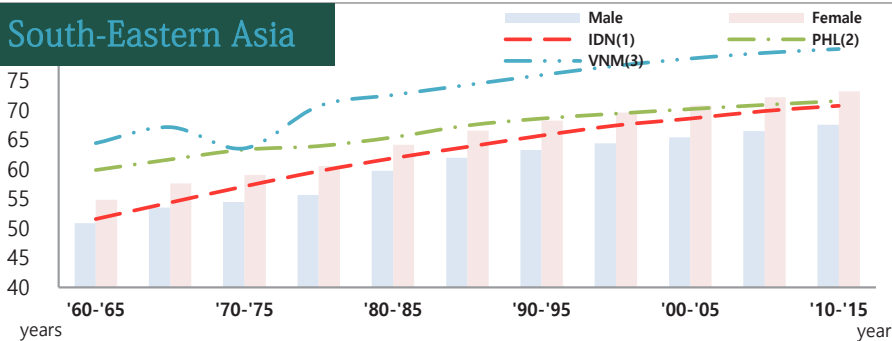


Central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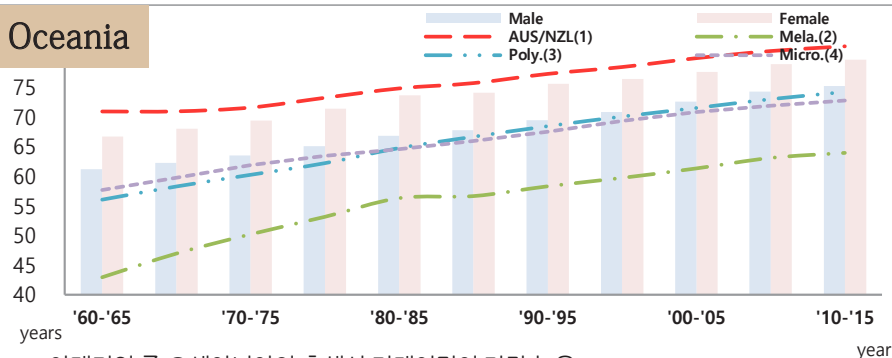
- 중앙아시아지역은 남성의 출생시 기대여명과 여성의 출생시 기대여명의 격차가 큼
- 1960년, 타지키스탄의 출생시 기대여명이 57.2세로 세 국가 중 가장 낮았으나 2010년도에는 69.1세로 가장 높음

South-Eastern Asia



- 2015년, 동남아시아지역 여성의 출생시 기대여명은 70세 이상
- 베트남의 출생시 기대여명은 1970-1975년에 63.5세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80.31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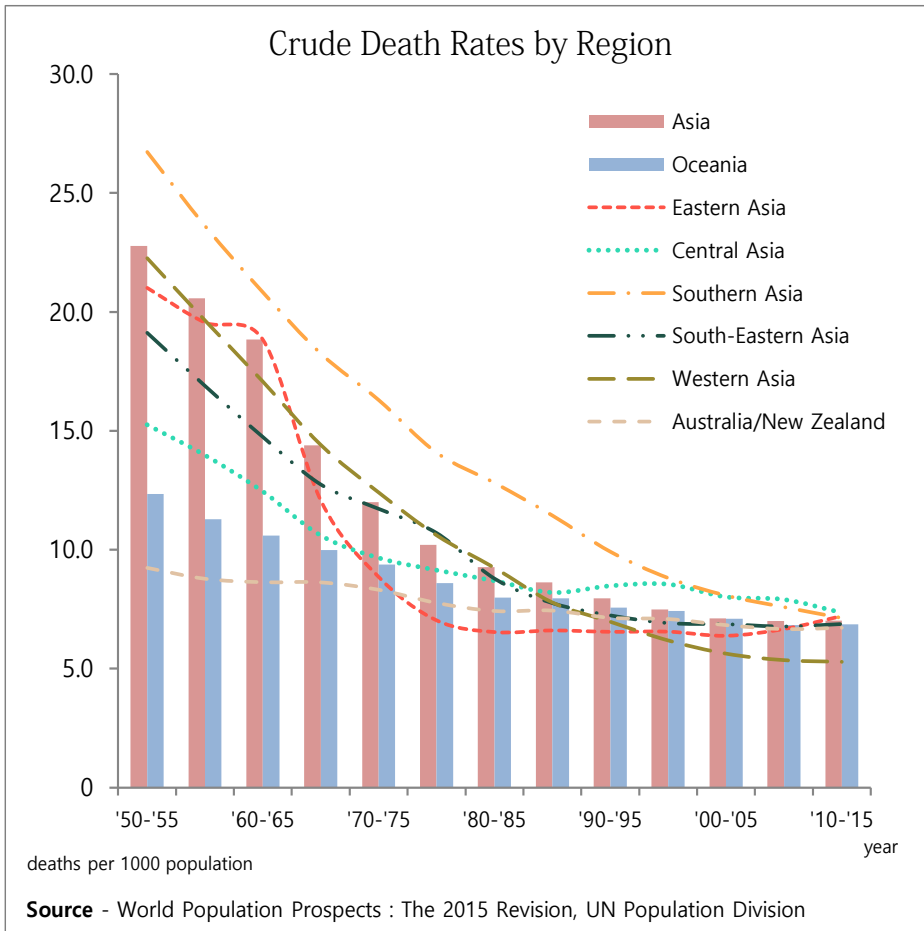
Oceania



- 아태지역 중 오세아니아의 출생시 기대여명이 가장 높음.
- 1960년, 호주/뉴질랜드의 출생시 기대여명은 71.0세였으며, 2000년부터 80.0세 이상을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82세로 가장 높음

10-1. 아태지역 사망률 지표 (2)

* 아태지역 지역별 조사망률



● 조사망률 (Crude Death Rate: CDR)

-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 연간 총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비율
-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조사망률도 높아지므로 연령별 인구구조가 다른 지역 간의 직접적인 사망수준 비교가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연령별 인구구조는 3회차 '인구구조'편 참조)

❖ 아태지역의 지역별 조사망률

- 아시아:** 1950-1955년, 아시아의 조사망률은 22.8이었으나 1980-1985년, 10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10-2015년 기준, 7을 기록
- 오세아니아:** 1950-1955년, 오세아니아의 조사망률은 12.3이었으나 1970-1975년 10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2015년 기준, 6.9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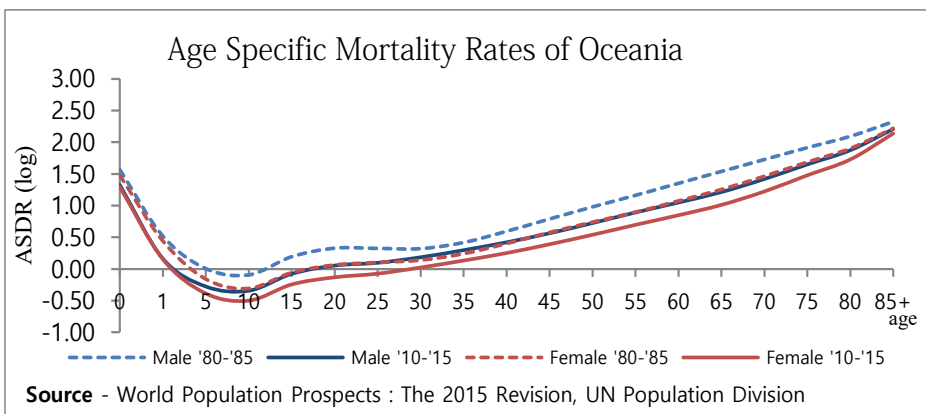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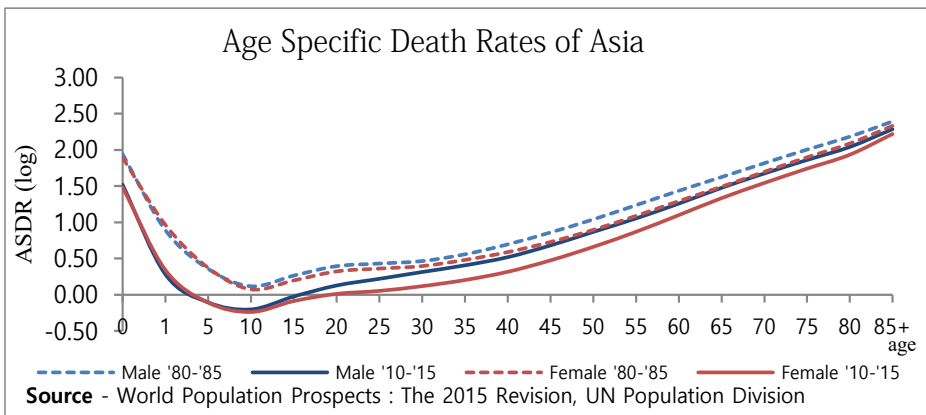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연령별 사망률의 변화

● 연령별사망률(Age Specific Death Rate: ASDR)

- 특정 연령의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령별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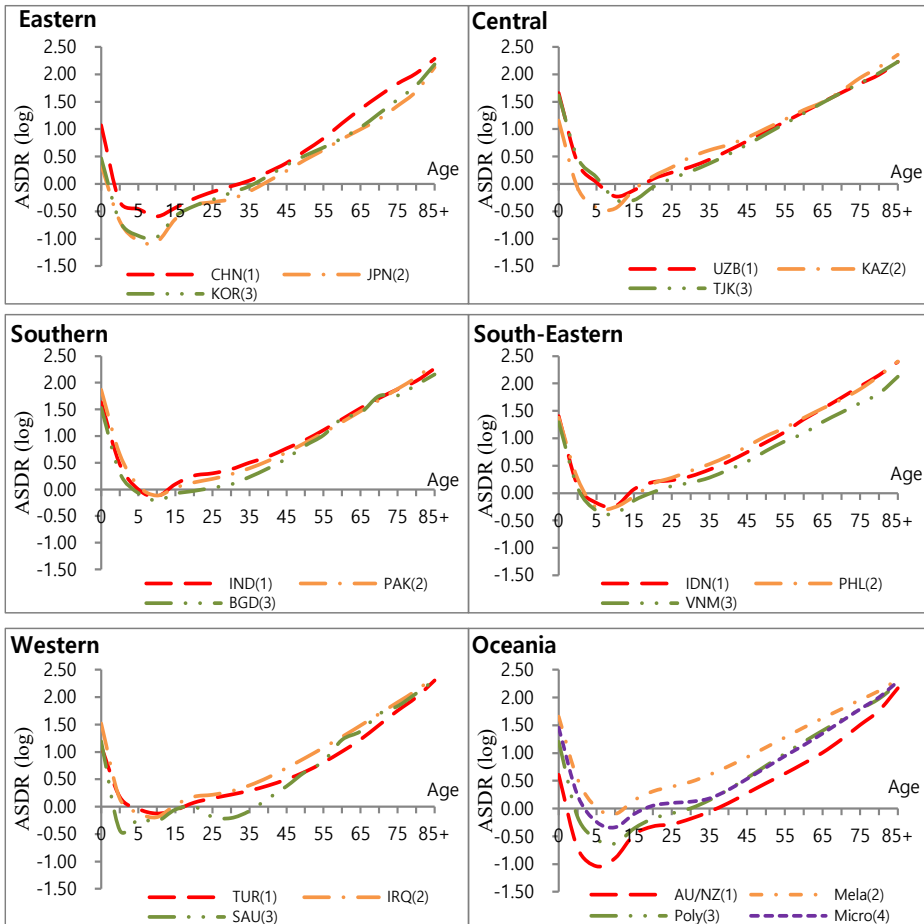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연령별사망률

- **아시아:** 1980년-1985년, 0세-1세 남성의 사망률은 87.59, 여성의 사망률은 78.24였으며, 85세 이상 남성의 사망률은 247.95, 여성의 사망률은 215.83이었음. 2010년-2015년, 0세-1세 남성의 사망률은 33.20, 여성의 사망률은 30.51이며, 85세 이상 남성의 사망률은 193.13, 여성의 사망률은 165.89로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
- **오세아니아:** 1980년-1985년, 0세-1세 남성의 사망률은 37.03, 여성의 사망률은 30.20이었으며, 85세 이상 남성의 사망률은 212.26, 여성의 사망률은 166.50이었음. 2010년-2015년, 0세-1세 남성의 사망률은 21.37, 여성의 사망률은 19.67이며, 85세 이상 남성의 사망률은 161.58, 여성의 사망률은 137.15로 전체적으로 감소



10-2. 아태지역 사망률 지표 (2)

* 아태지역 주요국가의 연령별사망률 (2015)



Source -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UN Population Division

❖ 아태지역 주요국가의 연령별사망률 (2015) - 1000명당 사망자 수

- **동아시아: 0세-1세** > 중국 11.76, 한국 2.92, 일본 2.02 / **85세 이상** > 중국 191.69, 한국 151.48, 일본 133.67
- **중앙아시아: 0세-1세** > 우즈베키스탄 45.68, 타지키스탄 41.25, 카자흐스탄 14.31 / **85세 이상** > 카자흐스탄 227.78, 타지키스탄 170.92, 우즈베키스탄 170.37
- **남아시아: 0세-1세** > 파키스탄 73.69, 인도 42.83, 방글라데시 34.07 / **85세 이상** > 파키스탄 228.16, 인도 183.93, 방글라데시 144.45
- **동남아시아: 0세-1세** > 인도네시아 25.53, 필리핀 23.65, 베트남 19.66 / **85세 이상** > 필리핀 251.24, 인도네시아 250.93, 베트남 201.52
- **서아시아: 0세-1세** > 이라크 33.05, 사우디아라비아 15.58, 터키 12.76 / **85세 이상** > 이라크 236.22, 사우디아라비아 204.79, 터키 201.52
- **오세아니아: 0세-1세** > 멜라네시아 45.18, 미크로네시아 28.37, 폴리네시아 15.86, 호주뉴질랜드 4.03 / **85세 이상** > 멜라네시아 211.99, 미크로네시아 193.28, 폴리네시아 176.43, 호주뉴질랜드 14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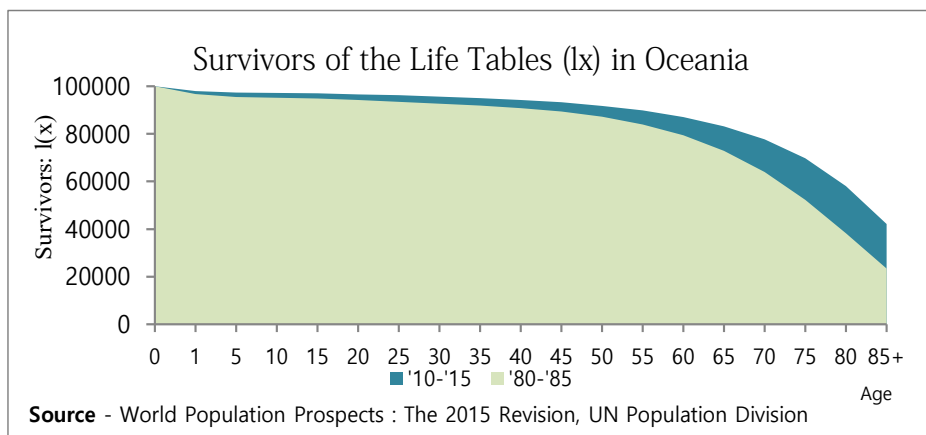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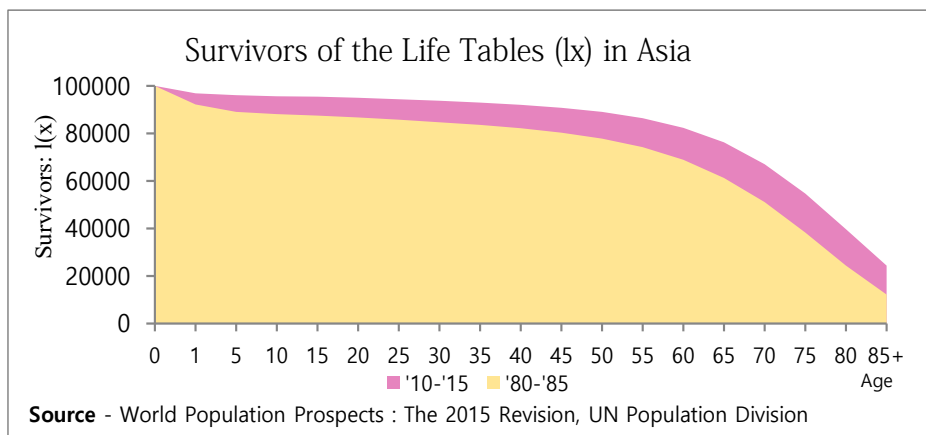
* 생명표 개념

● 생명표 (Life Table)

-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특정한 출생 코호트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정리한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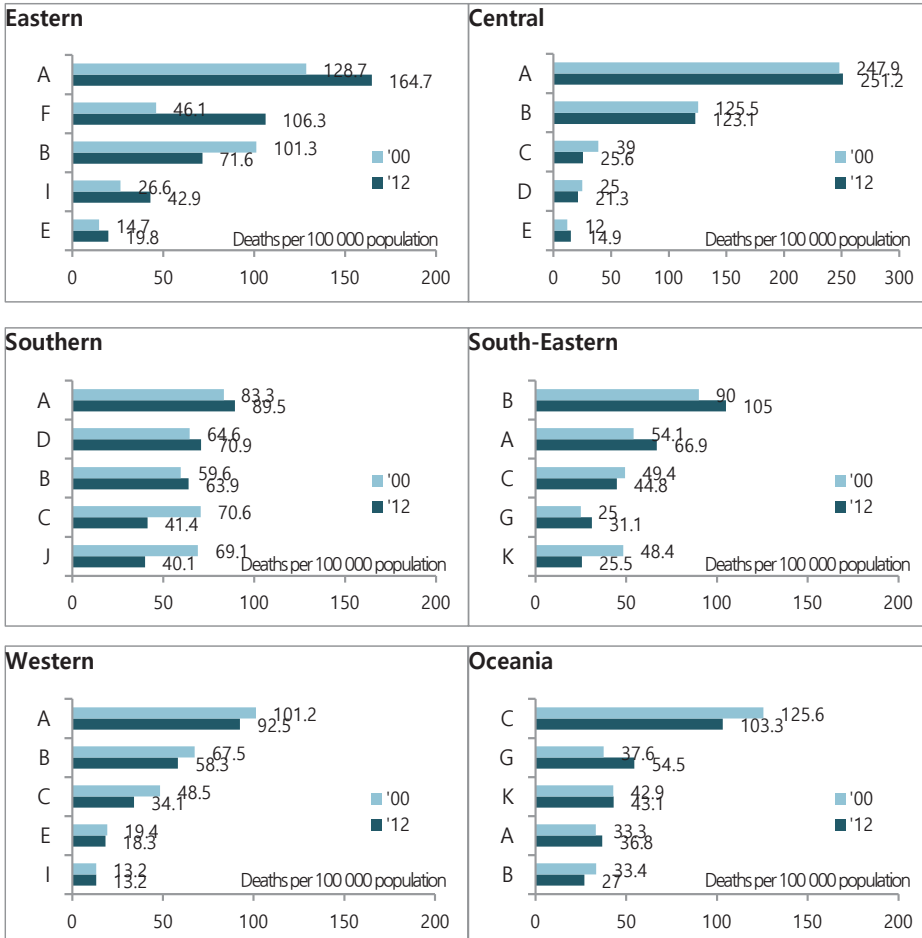
❖ 생명표의 함수

- 연령별 사망률(m_x): x세의 사망자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1,000분비)
- 연령별 사망확률(q_x): x세의 생존자가 (x+n)세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
- 연령별 사망자수(d_x): x세의 생존자가 (x+n)세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수
- 연령별 생존자수(l_x): 10만 명 중, 만 x세까지 생존하는 사람의 수
- 생존확률(S_x): x세의 생존자가 (x+n)세까지 살아남을 확률
- 연령별 정지인구(L_x): x세의 생존자가 (x+n)세에 도달하는 동안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년수의 합계
- 총 생존년수(T_x): x세의 생존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살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년수의 합계
- 기대여명(e^o_x): x세의 생존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11-1. 아태지역 사망률 지표 (3)

* 아태지역 지역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2000, 2012)



A 허혈성 심장질환 **B** 뇌졸중 **C** 하부 호흡기 감염
D 만성 폐쇄성 폐질환 **E** 교통사고
F 고혈압성 심장병 **G** 당뇨병 **H** 조산 합병증
I 기관, 기관지, 폐암 **J** 설사성 질환 **K** 결핵

❖ 아태지역 지역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2000, 2012)

- 동아시아: 2012년, 2000년에 비하여 고혈압성 심장병에 의한 사망률 증가
- 중앙아시아: 2000년, 2012년, 허혈성 심장병,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 높음
- 남아시아: 2012년, 2000년에 비하여 하부 호흡기 감염, 설사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 감소
- 동남아시아: 2012년, 2000년에 비하여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 증가, 결핵에 의한 사망률 감소
- 서아시아: 2000년, 2012년, 허혈성 심장병,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 높음
- 오세아니아: 2012년, 2000년에 비하여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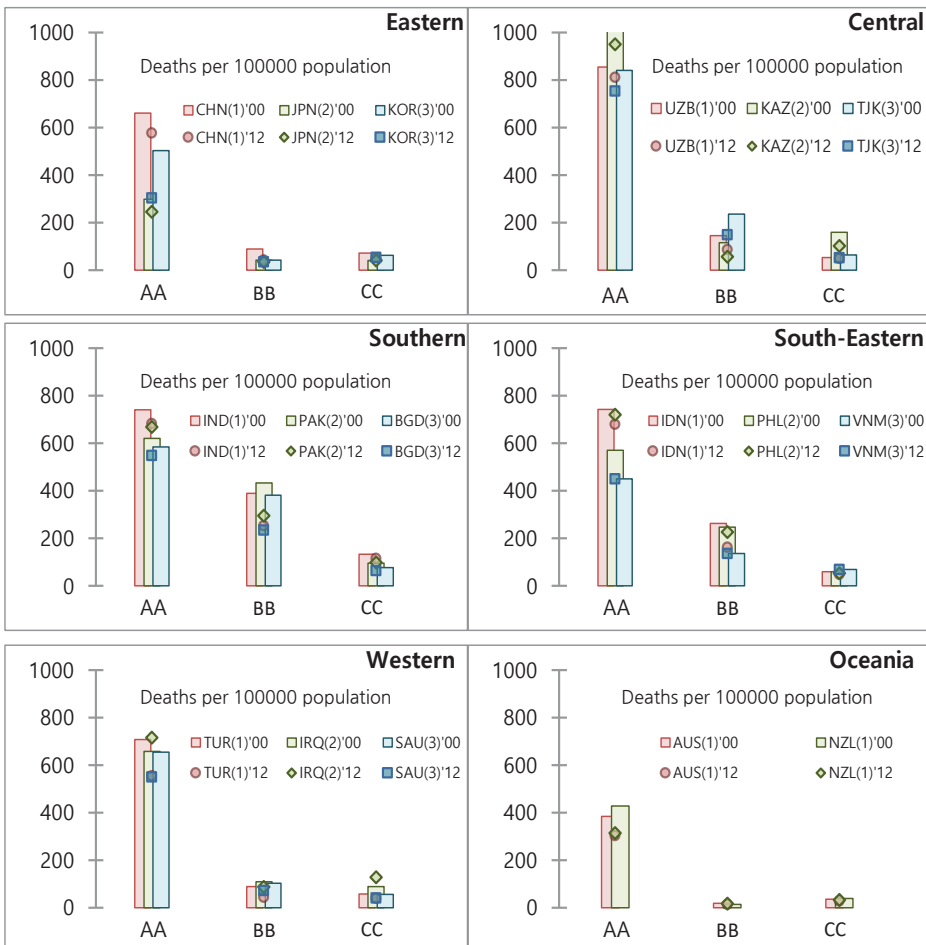
* 아태지역 주요국가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2000, 2012)

❖ 아태지역 주요국가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2000, 2012)

조사망률은 국가간의 비교가 어려운 점에 주의 (10-1. 아태지역 사망력 지표(2) '조사망률' 참고)

- **동아시아**: 2012년, 한국은 2000년에 비하여 비전염성 질병에 의한 사망률 크게 감소
- **중앙아시아**: 2012년, 중앙아시아의 세 국가는 2000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사망률 감소
- **남아시아**: 2012년, 파키스탄은 2000년에 비하여 전염성 질병, 약물중독 또는 사고에 의한 사망률 증가
- **동남아시아**: 2012년, 필리핀, 베트남은 2000년에 비하여 전염성 질병에 의한 사망률 증가
- **서아시아**: 2012년, 이라크는 2000년에 비하여 비전염성 질병, 약물중독 또는 사고에 의한 사망률 증가
- **오세아니아**: 2012년, 뉴질랜드는 2000년 비하여 전염성 질병에 의한 사망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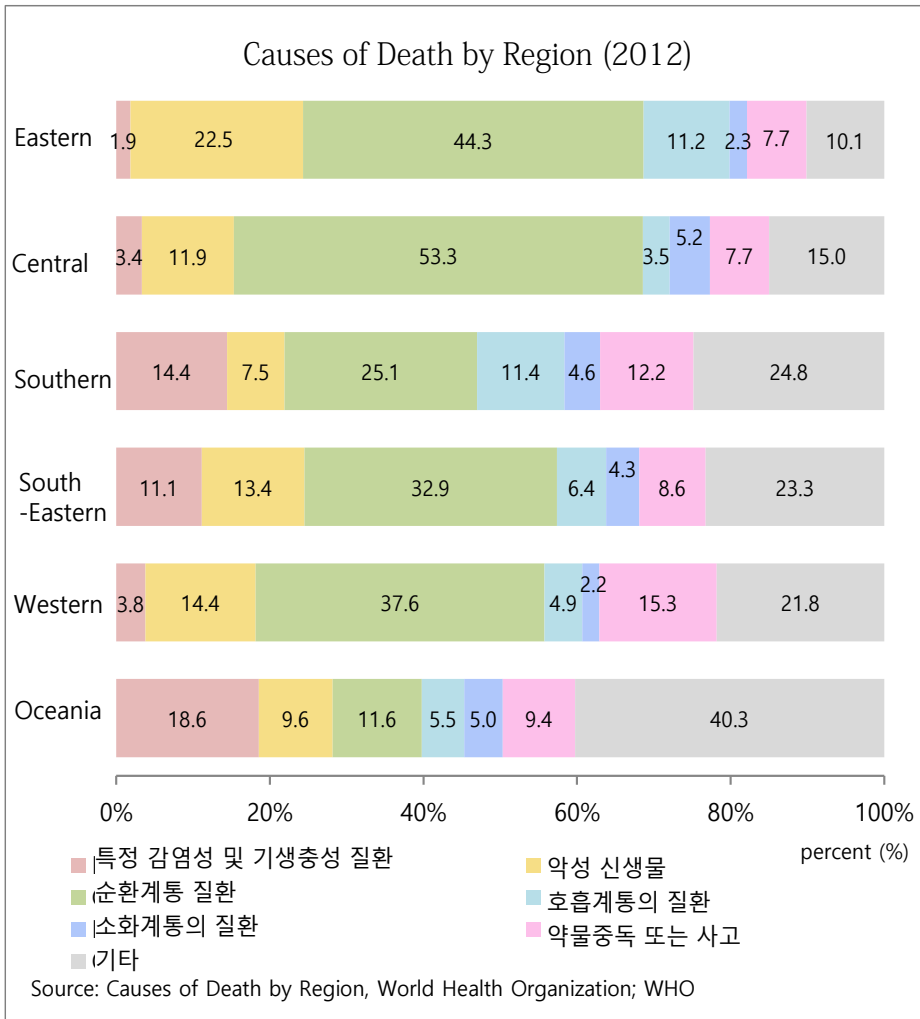
AA 비전염성 질병 **BB** 전염성 질병 **CC** 약물중독 또는 사고



Sourc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1-2. 아태지역 사망력 지표 (3)

* 아태지역 지역별 사망원인 (2012)



❖ 아태지역 지역별 사망원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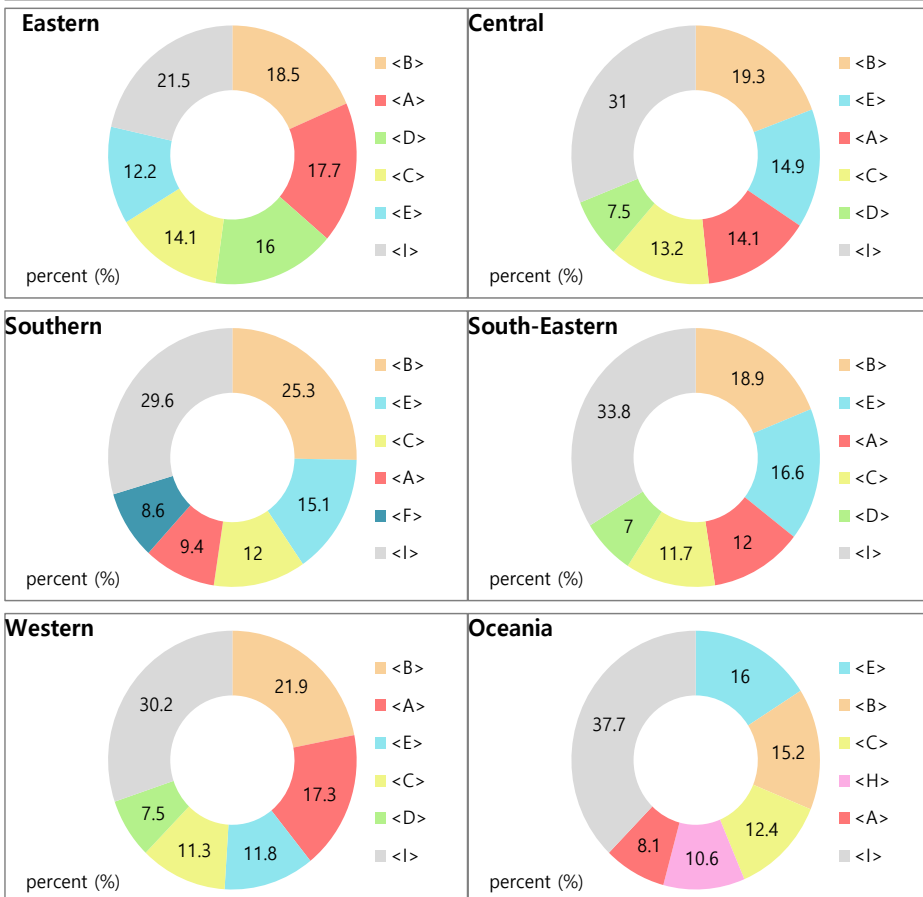
- **동아시아:** 다른 지역에 비하여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의한 사망(1.9%)이 적음
- **중앙아시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순환계통 질환에 의한 사망(53.3%)이 많음
- **남아시아:**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호흡계통 질환에 의한 사망(11.4%)이 많음
- **동남아시아:** 순환계통 질환(32.9%), 악성 신생물에 의한 사망(13.4%)이 많음
- **서아시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악성 신생물(14.4%), 약물중독 또는 사고에 의한 사망(15.27%)이 많음
- **오세아니아:** 다른 지역에 비하여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의한 사망(18.6%)이 많음

* 아태지역의 지역별 5세 미만 영유아 사망원인 (2015)

❖ 아태지역의 지역별 5세 미만 영유아 사망원인 (2015)

- 동아시아: 5세 미만 영아 사인은 조산, 태아기형, 사고 순으로 높음
- 중앙아시아: 5세 미만 영아 사인은 조산, 급성 하부 호흡기 감염, 태아기형 순으로 높음
- 남아시아: 5세 미만 영아 사인은 조산, 급성 하부 호흡기 감염, 출산질식 순으로 높음
- 동남아시아: 5세 미만 영아 사인은 조산, 급성 하부 호흡기 감염, 태아기형 순으로 높음
- 서아시아: 5세 미만 영아 사인은 조산, 태아기형, 급성하부 호흡기 감염 순으로 높음
- 오세아니아: 5세 미만 영아 사인은 급성하부호흡기 감염, 조산, 출산 질식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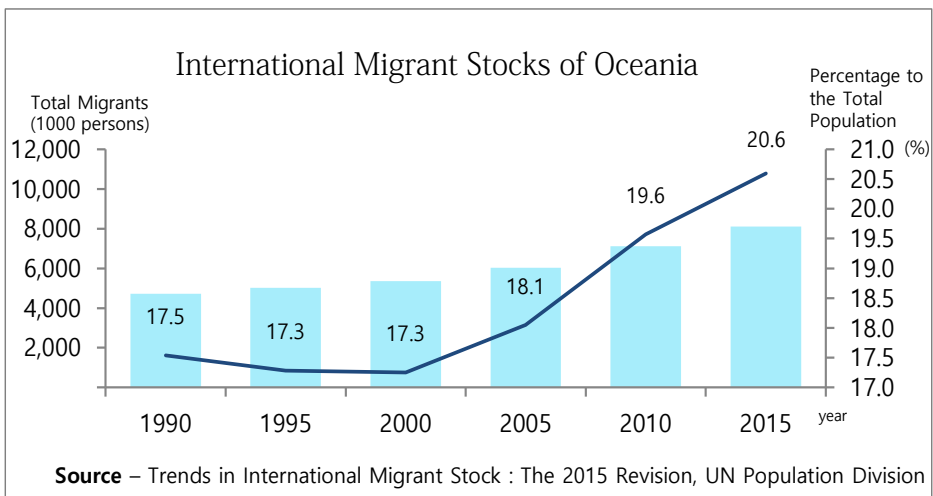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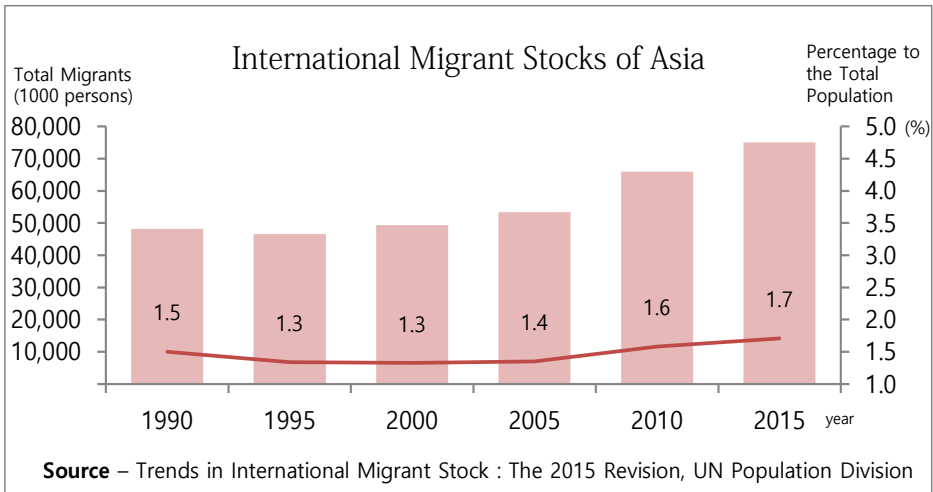
<A> 태아기형 조산 <C> 출산질식, 출산외상
<D> 사고 <E> 급성 하부호흡기 감염
<F> 패혈증 <G> 설사성 질환
<H> 말라리아 <I> 기타



Sourc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2-1. 아태지역 국제이주 스톡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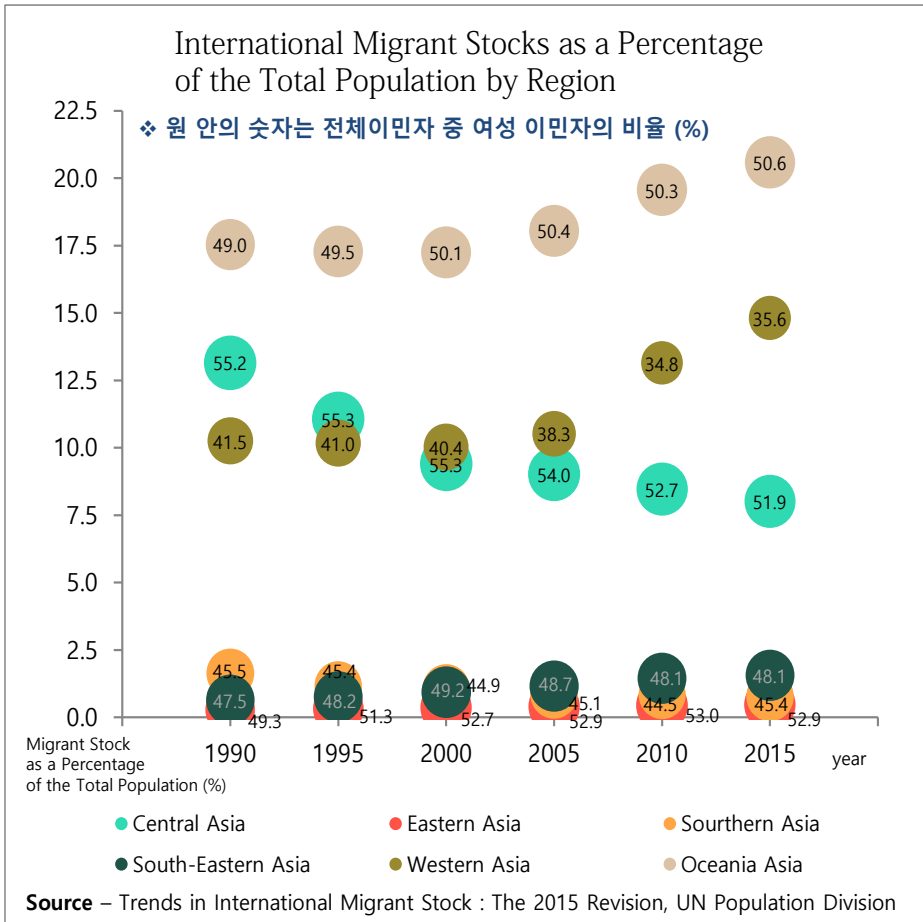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국제이주 스톡통계



❖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국제이주 스톡통계

- 아시아:** 아시아의 이민자는 1990년에는 약 4,800만 명이었으며 1995년에 약 4,600만 명으로 감소. 2010년에 약 6,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5년에는 약 7,500만 명으로 증가. 총 인구 대비 이민자의 비율을 보면, 1990년에는 1.5%였으며 1995년에는 1.3%로 감소하였다가 2005년 이후부터 증가하면서 2015년에는 1.7%를 기록
-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의 이민자는 1990년에는 약 470만 명이었으며 2005년에는 약 600만 명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약 810만 명으로 증가. 총 인구 대비 이민자의 비율을 보면, 1990년에는 17.5%였으며 1995년에는 17.3%로 감소하였다가 2008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5년에는 20.6%를 기록

* 아태지역 총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 및 여성 이민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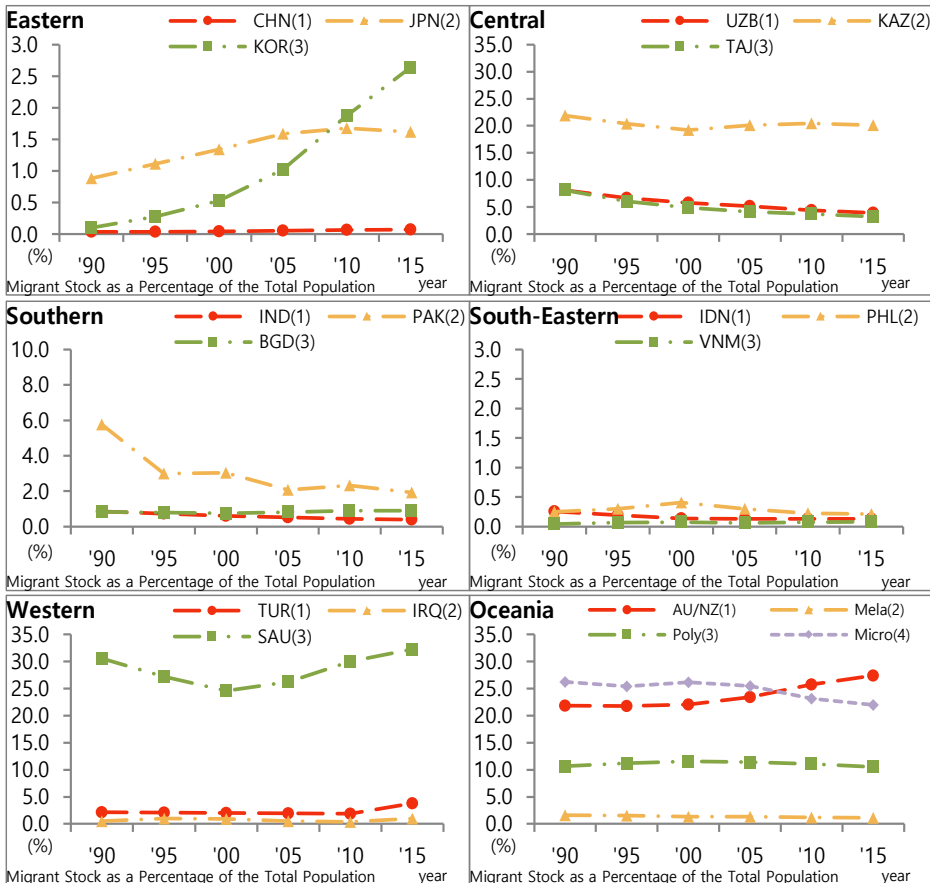


❖ 아태지역총인구대비이민자비율및전체이민자중여성이민자의비율

- **동아시아:** 동아시아의 총 인구 대비 이민자의 비율은 1990년에는 0.3%였으며 2015년에는 0.5%으로 다소 증가. 여성 이민자의 비율은 2015년 기준 52.9% 기록
-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총 인구 대비 이민자의 비율은 1990년에는 13.2%였으며 2015년에는 8%로 감소. 여성 이민자의 비율은 2015년 기준 52.9% 기록
- **남아시아:** 남아시아의 총 인구 대비 이민자의 비율은 1990년에는 1.6%였으며 2015년에는 0.8%로 감소. 여성 이민자의 비율은 2015년 기준 45.4% 기록
-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총 인구 대비 이민자의 비율은 1990년에는 0.6%였으며 2015년에는 1.6%로 증가. 여성 이민자의 비율은 2015년 기준 48.1% 기록
- **서아시아:** 서아시아의 총 인구 대비 이민자의 비율은 1990년에는 10.3%였으며 2015년에는 14.8%로 증가. 여성 이민자의 비율은 2015년 기준 35.6% 기록
-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의 총 인구 대비 이민자의 비율은 1990년에는 17.5%였으며 2015년에는 20.6%로 증가. 여성 이민자의 비율은 2015년 기준 50.6% 기록

12-2. 아태지역 국제이주 스톡통계

* 아태지역 주요국가별 총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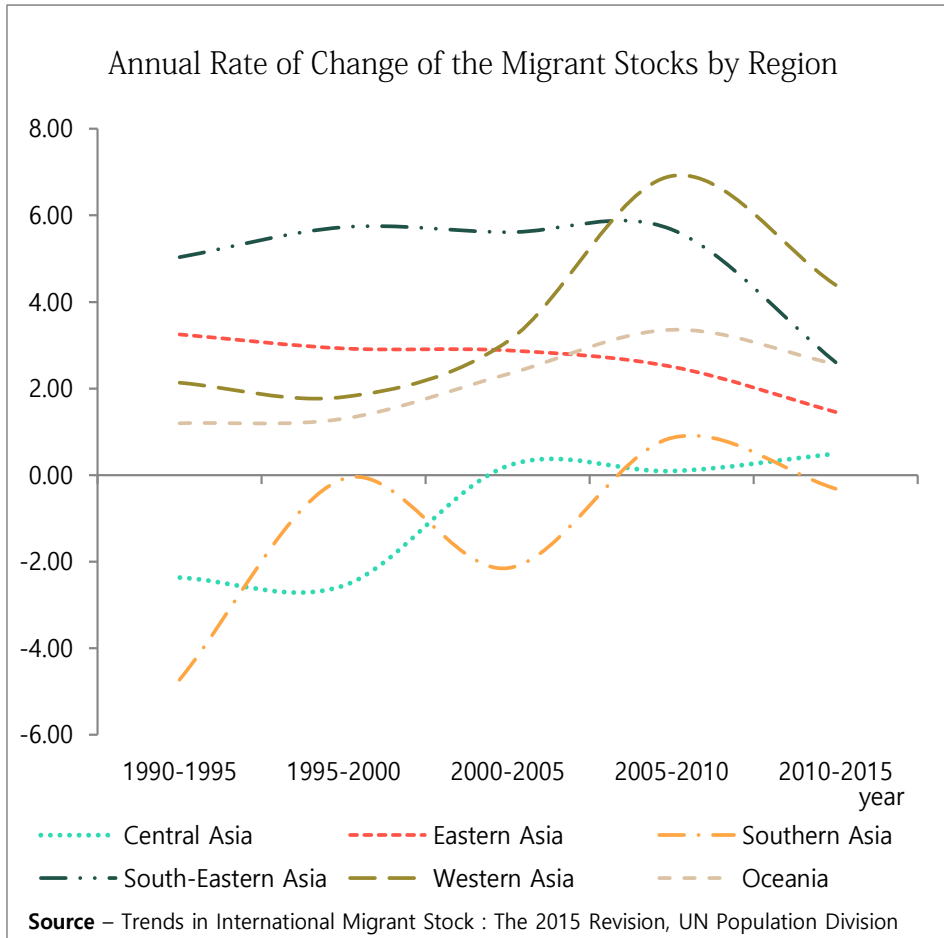


Source –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nt Stock : The 2015 Revision, UN Population Division

❖ 아태지역 주요국가별 총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

- **동아시아:** 1990년, 일본의 총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이 0.9%로 가장 높았으나 2010년 한국의 총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이 일본을 역전 하면서 2015년도에는 2.6%를 기록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은 1990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인구 대비 이민자의 비율 20.0% 이상 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은 감소하여 2015년도 기준 3% 미만 기록
- **남아시아:** 1990년, 파키스탄의 총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이 5.8%였으나 2010년을 제외하고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5년에는 1.9%를 기록
-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세 국가의 총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은 큰 격차 없이 1990년부터 1% 미만을 유지
- **서아시아:** 1990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총 인구대비 이민자 비율이 30.6%였으며 2000년까지 다소 감소하다가 2005년부터 증가 하면서 2010년부터 다시 30% 이상을 기록
- **오세아니아:** 1990년, 호주 뉴질랜드의 총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이 21.8% 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5년 27.4%로 증가

* 아태지역 지역별 국제이주 스톡통계의 연간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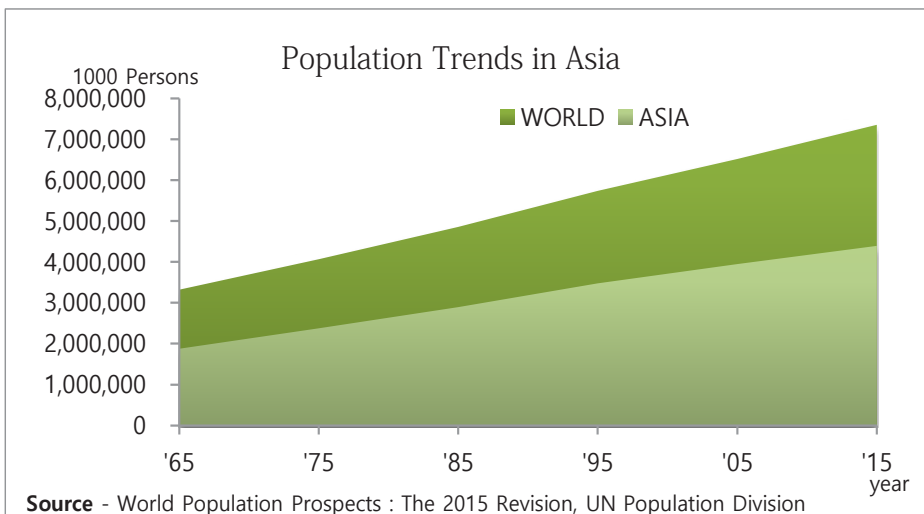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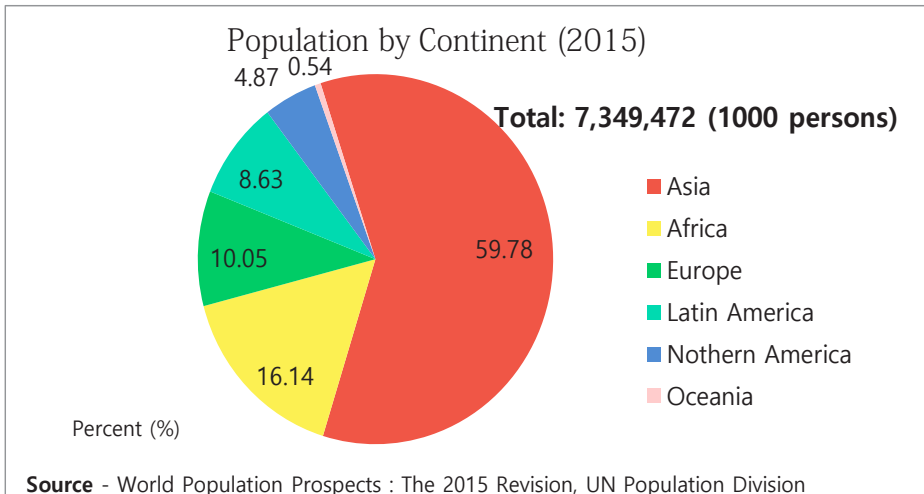


❖ 아태지역 지역별 국제이주 스톡통계의 연간변화율

-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지역의 국제이주 스톡통계의 연간변화율은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러스를 기록
- **동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이주 스톡통계의 연간변화율은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 **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의 국제이주 스톡통계 연간변화율은 2000년까지 증가 하였다가 2000년-2005년 다시 감소하였고 2005년-2010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플러스를 기록한 경우도 있음
-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지역의 국제이주 스톡통계 연간 변화율은 2010년부터 급격히 감소
- **서아시아:** 서아시아지역의 국제이주 스톡통계 연간 변화율은 2005-2010년에 크게 증가
-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지역의 국제이주 스톡통계 연간 변화율은 2010년까지 점차 증가

13-1. 세계 속의 아태지역 (1) : 인구 및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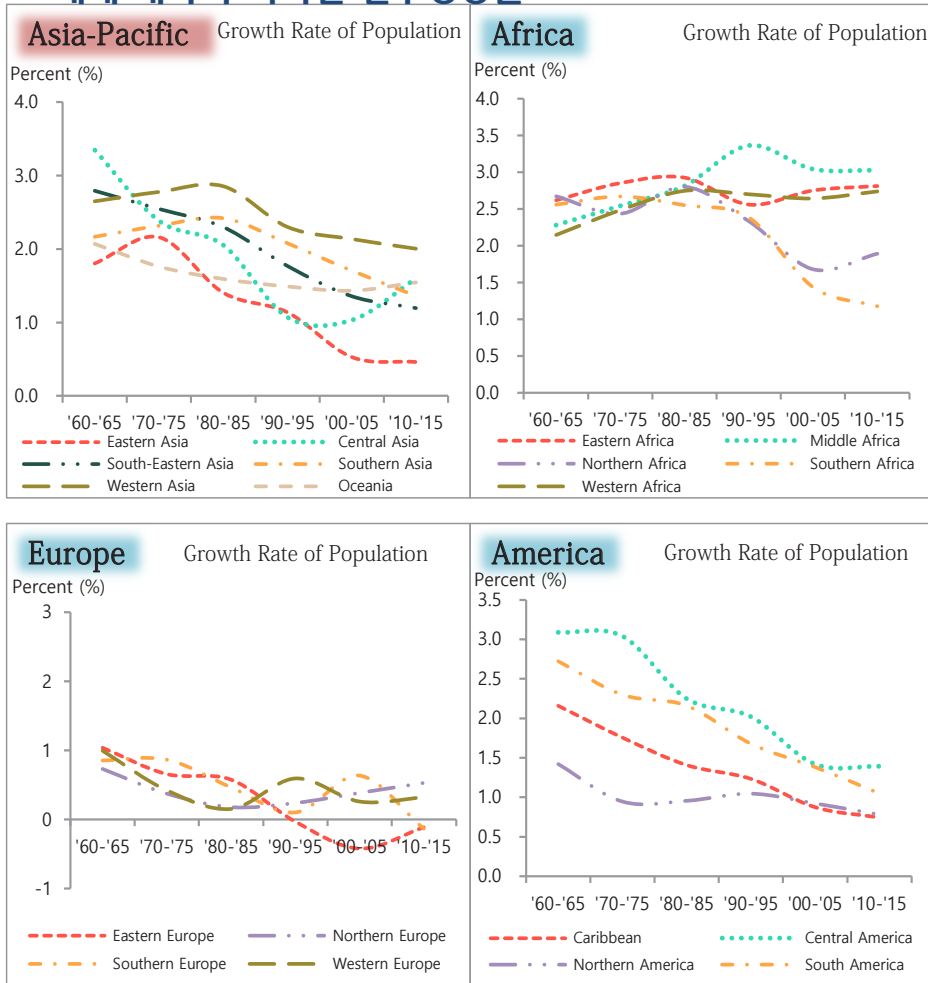
* 세계 대륙별 인구분포



❖ 세계 대륙별 인구분포

- 2015년 현재, 세계 인구는 약 73억 4천만 명이며, 이 중 아시아가 약 43억 9천만 명인 59.7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이어 아프리카 16.14%, 유럽 10.05%, 남아메리카 8.96%, 북아메리카 4.87%, 오세아니아 0.54%로 구성
- 1965년, 세계 인구는 약 33억 2천만 명이었으며, 아시아의 인구는 약 18억 4천만 명이었음. 1995년에는 세계 인구 50억 명, 아시아의 인구는 30억 명을 넘어섰으며 2005년에는 세계 인구 60억 명을 넘어서고 아시아의 인구는 약 40억 명으로 증가

* 세계 대륙의 지역별 인구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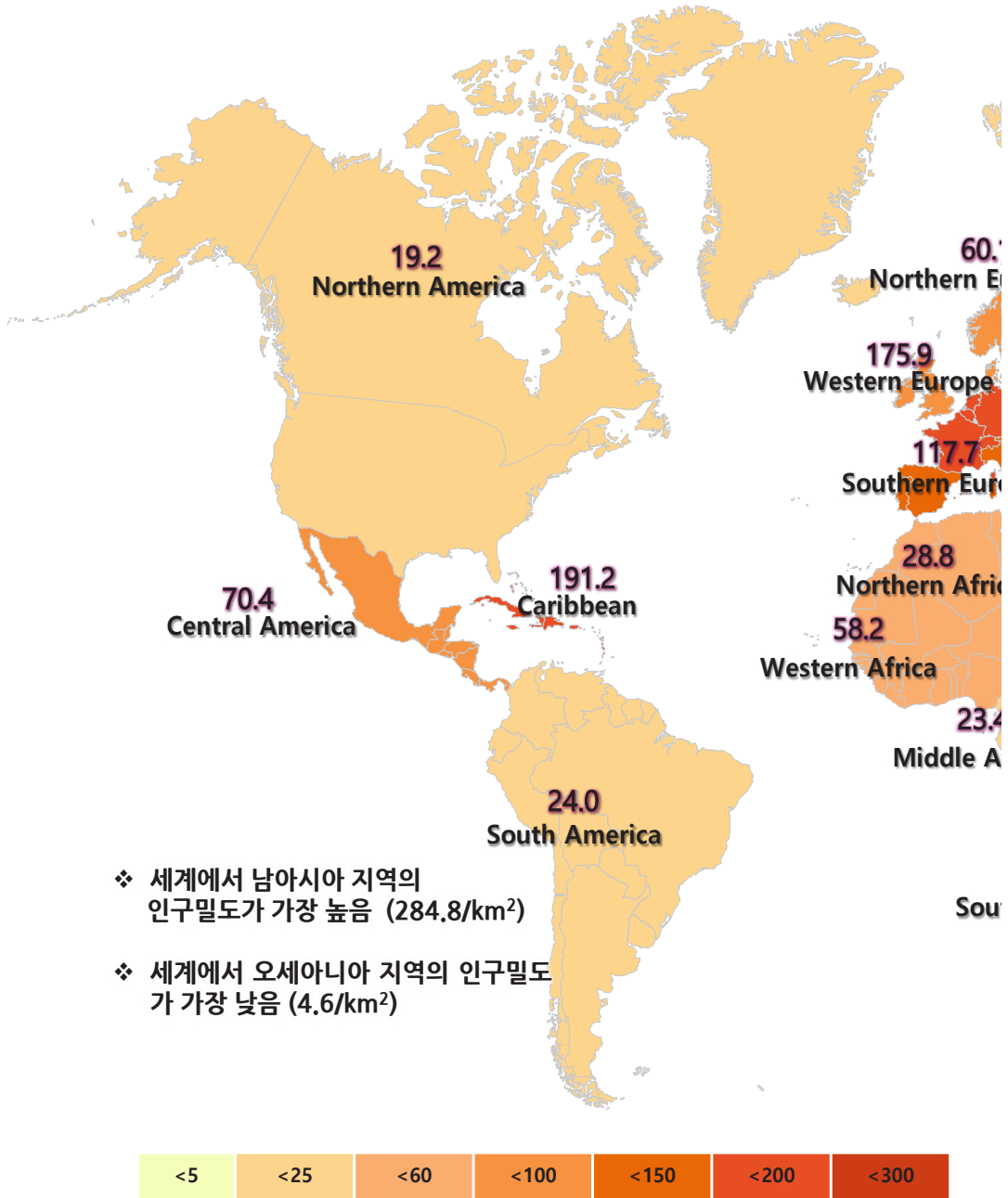
Source -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UN Population Di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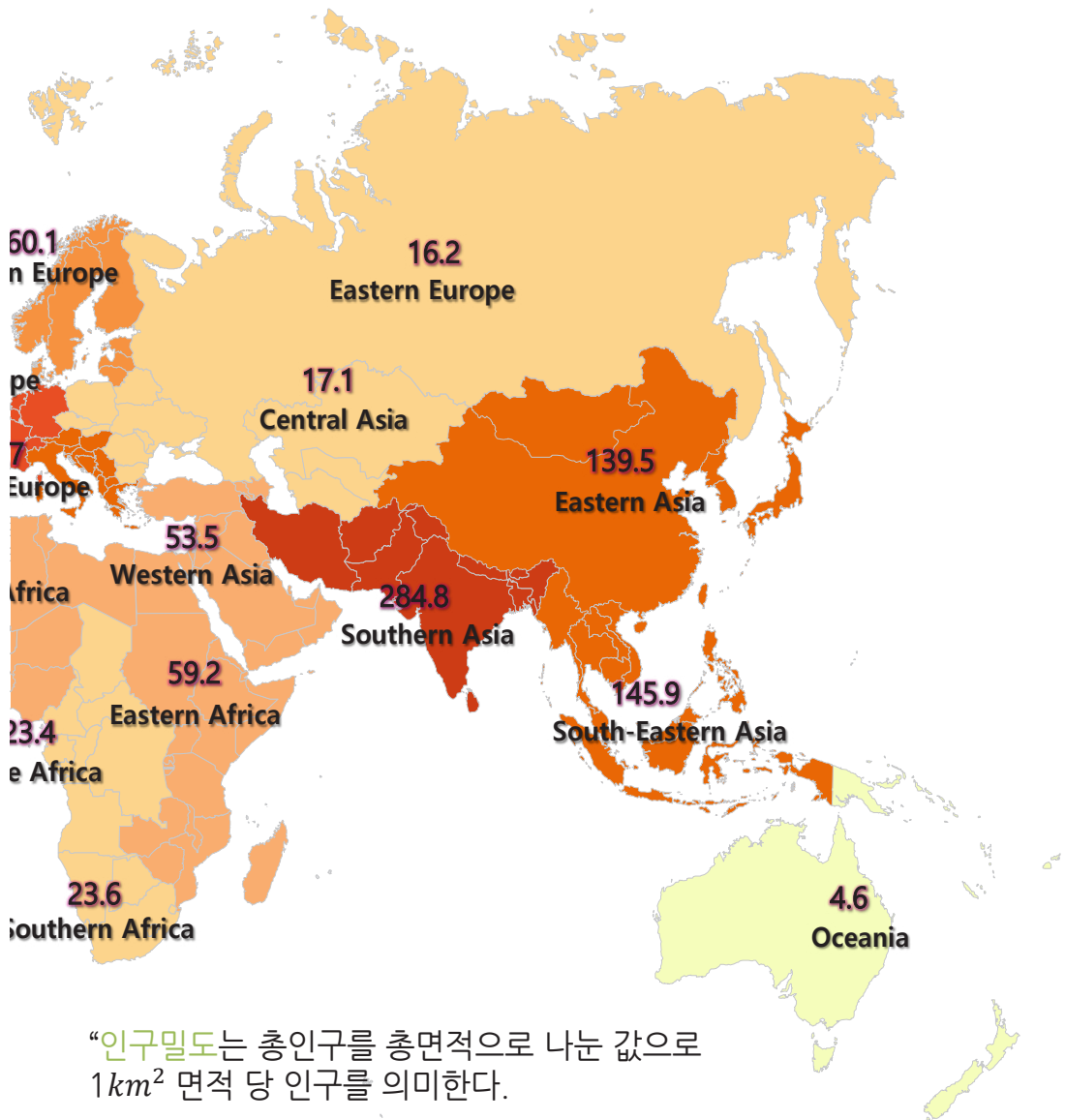
❖ 세계 대륙의 지역별 인구성장률

-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5년 기준, 서아시아 지역의 인구성장률이 2%로 가장 높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인구성장률이 0.46%로 가장 낮음
- **아프리카**: 2015년 기준,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인구성장률이 3.03%로 가장 높으며, 남아프리카 지역의 인구성장률이 1.17%로 가장 낮음
- **유럽**: 2015년 기준, 북유럽 지역의 인구성장률이 0.53%로 가장 높으며, 남유럽지역의 인구성장률이 -0.13%로 가장 낮음. 동유럽지역의 인구성장률도 마이너스 인구성장률 기록
- **아메리카**: 2015년 기준, 중앙 아메리카 지역의 인구성장률이 1.39%로 가장 높으며, 카리브 제도 지역의 인구성장률이 0.74%로 가장 낮음

13-2. 세계 속의 아태지역 (1) : 인구 및 인구밀도

* 세계 대륙의 지역별 인구분포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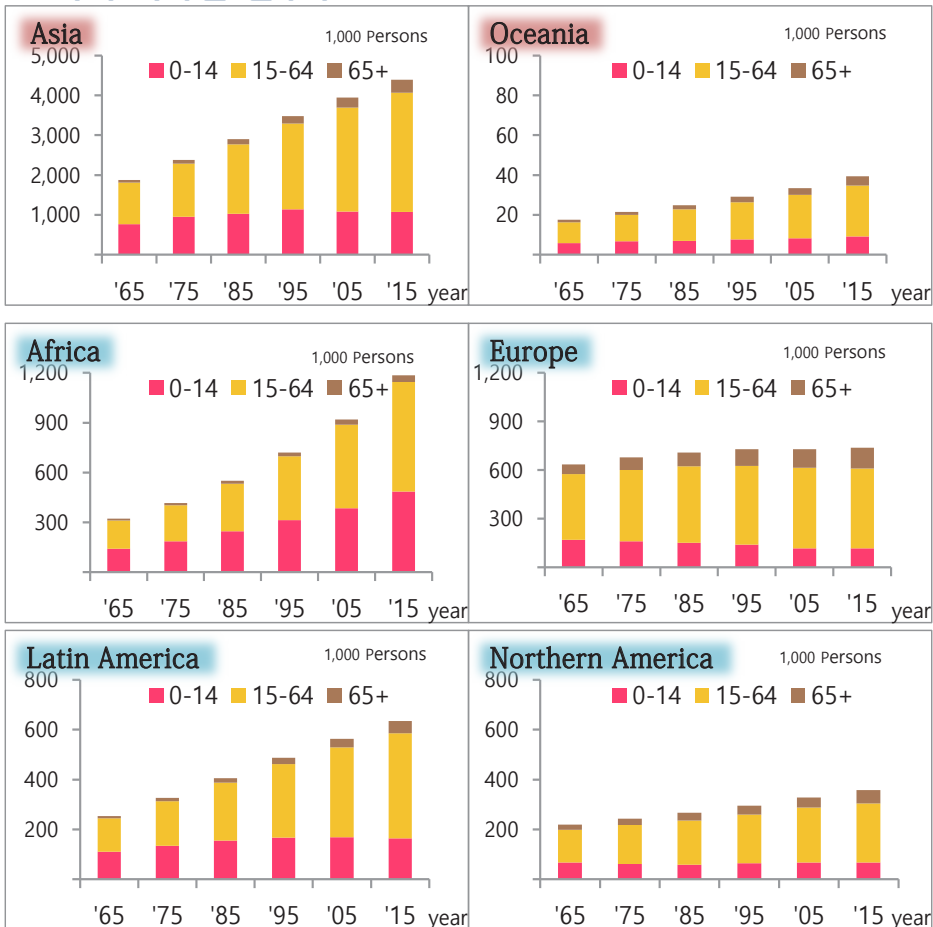




Source -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UN Population Division

14-1. 세계 속의 아태지역 (2) : 인구구조 및 부양비

* 세계 대륙별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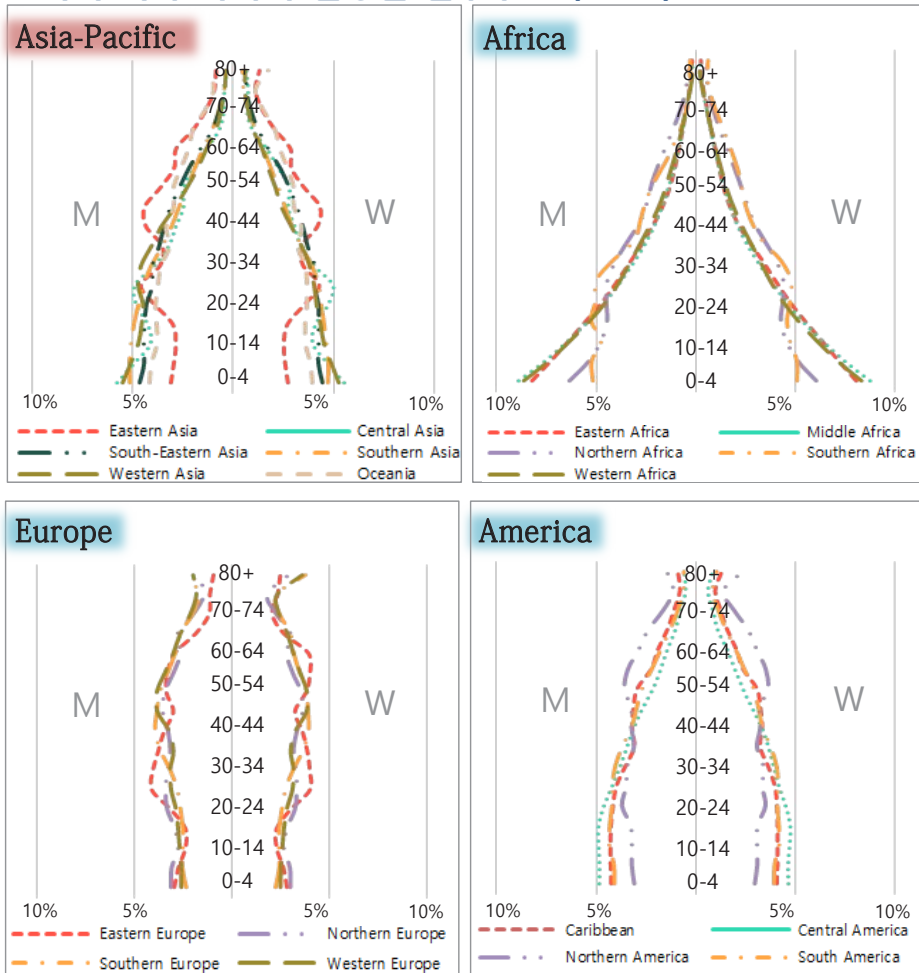


Source -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UN Population Division

❖ 세계 대륙별 인구구조

- **아시아**: 2015년 기준, 아시아의 인구는 약 43억 9천만 명이며, 1965년도에 비해 0-14세의 인구는 약 1.40배,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4.96배 증가
- **오세아니아**: 2015년 기준, 오세아니아의 인구는 약 3천 9백만 명이며, 1965년도에 비해 0-14세의 인구는 약 1.60배,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3.68배 증가
- **아프리카**: 2015년 기준, 아프리카의 인구는 약 11억 8천만 명이며, 1965년도에 비해 0-14세의 인구는 약 3.45배,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4.15배 증가
- **유럽**: 2015년 기준, 유럽의 인구는 약 7억 3천만 명이며, 1965년도에 비해 0-14세의 인구는 약 10분의 7 이하로 감소,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2.16배 증가
- **라틴아메리카**: 2015년 기준, 라틴아메리카의 인구는 약 6억 3천만 명이며, 1965년도에 비해 0-14세의 인구는 1.49배,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4.98배 증가
- **북아메리카**: 2015년 기준, 북아메리카의 인구는 약 3억 5천만 명이며, 1965년도에 비해 0-14세의 인구는 큰 변동이 없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3.6배 증가

* 세계 대륙 지역의 연령별 인구구조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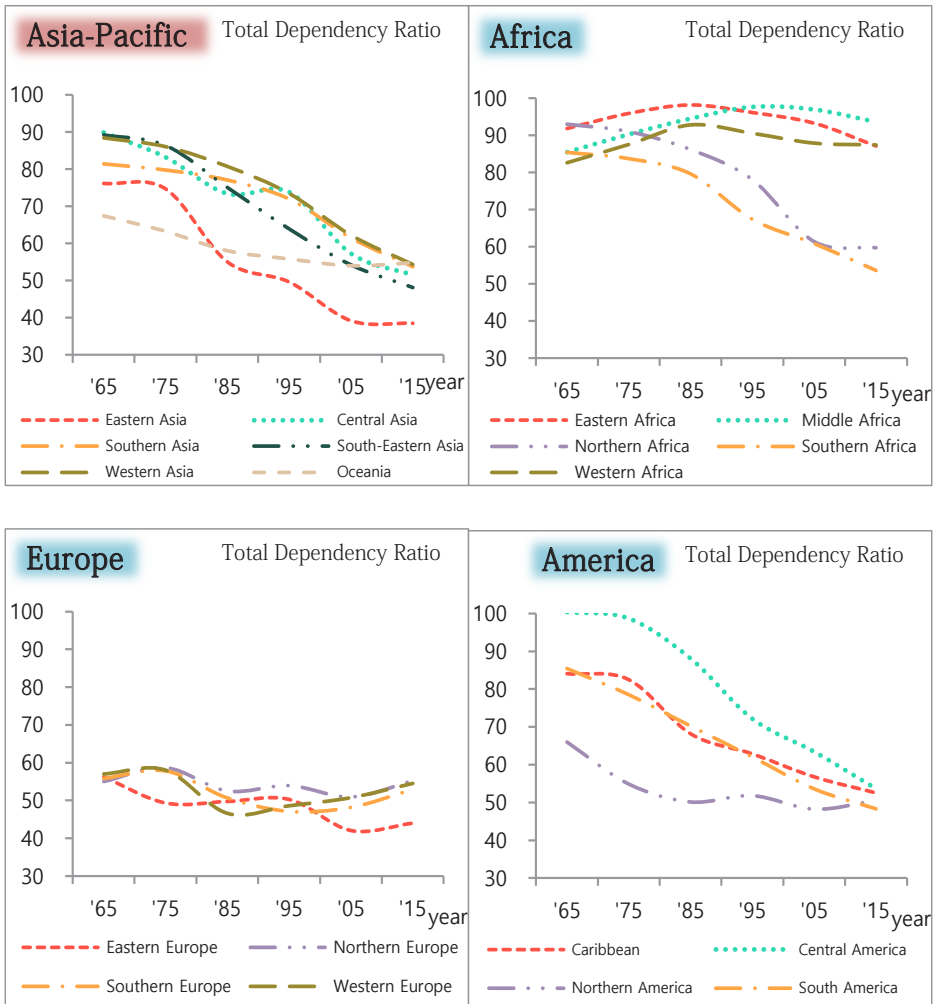
Source -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UN Population Division

❖ 세계 대륙 지역의 연령별 인구구조 (2015)

- **아시아**: 2015년 기준, 전체인구에서 0-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46%,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52%임
- **오세아니아**: 2015년 기준, 전체인구에서 0-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3.46%,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4%임
- **아프리카**: 2015년 기준, 전체인구에서 0-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0.97%,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50%임
- **유럽**: 2015년 기준, 전체인구에서 0-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74%,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7.58%임
- **라틴아메리카**: 2015년 기준, 전체인구에서 0-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5.72%,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61%임
- **북아메리카**: 2015년 기준, 전체인구에서 0-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65%,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4.93%임

14-2. 세계 속의 아태지역 (2) : 인구구조 및 부양비

* 세계 대륙의 지역별 총 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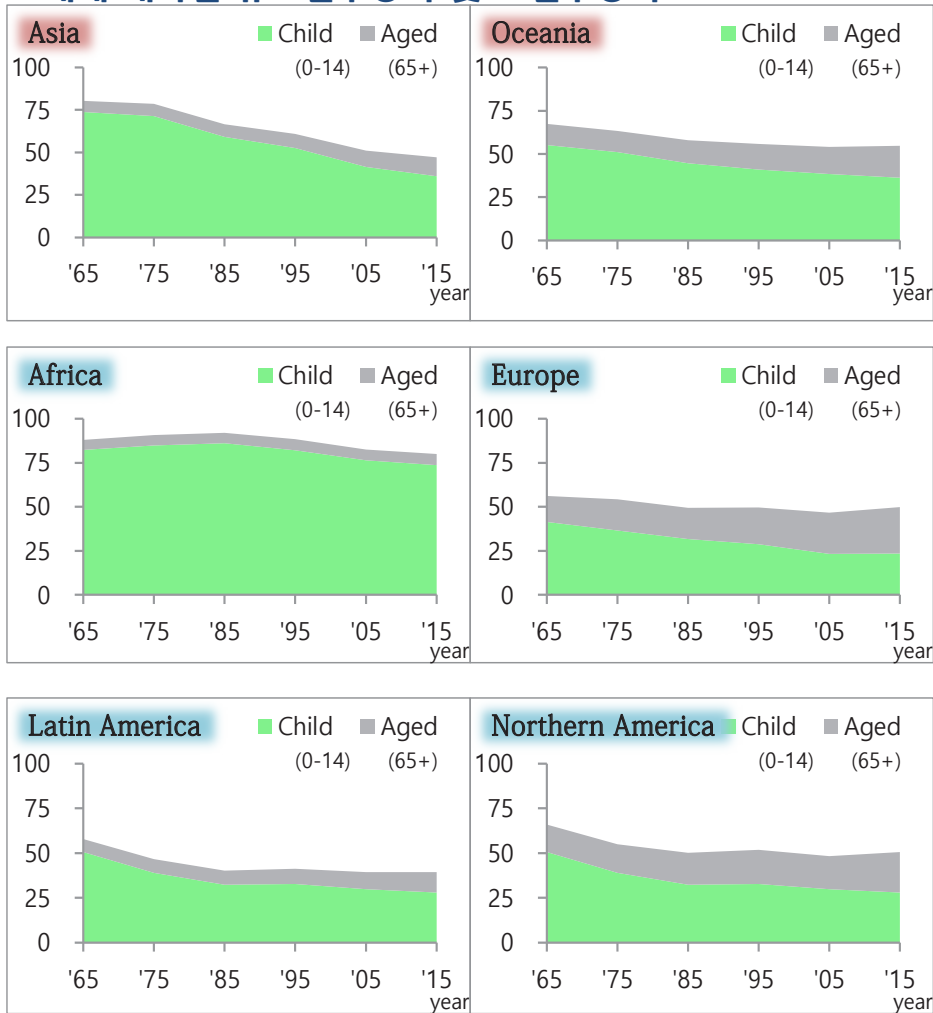


Source -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UN Population Division

❖ 세계 대륙의 지역별 총 부양비

-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5년 기준, 서아시아 지역이 54.3으로 총 부양비가 가장 높으며, 동아시아 지역이 38.6으로 총 부양비가 가장 낮음
- **아프리카**: 2015년 기준, 중앙아프리카 지역이 93.6으로 총 부양비가 가장 높으며, 남아프리카 지역이 53.6으로 총 부양비가 가장 낮음
- **유럽**: 2015년 기준, 북유럽 지역이 55.3으로 총 부양비가 가장 높으며, 동유럽 지역이 44.0으로 총 부양비가 가장 낮음
- **아메리카**: 2015년 기준, 중앙아메리카 지역이 53.6으로 총 부양비가 가장 높으며, 남아메리카 지역이 48.6으로 총 부양비가 가장 낮음

* 세계 대륙별 유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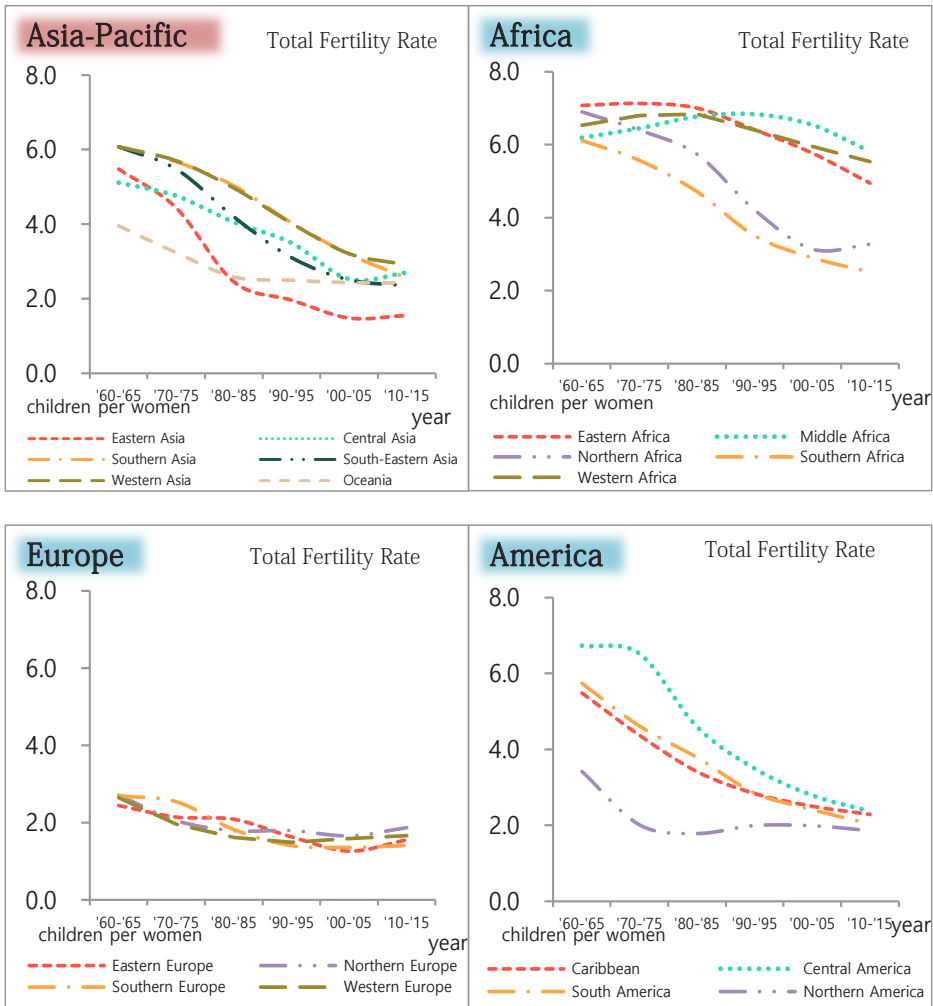
Source -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UN Population Division

❖ 세계 대륙별 유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

- **아시아**: 2015년 기준, 유소년부양비는 36.0으로 감소, 노년부양비는 11.1로 증가
- **오세아니아**: 2015년 기준, 유소년부양비는 36.3으로 감소, 노년부양비는 18.5로 증가
- **아프리카**: 2015년 기준, 유소년부양비는 73.8로 감소, 노년부양비는 6.3으로 증가
- **유럽**: 2015년 기준 유소년부양비는 23.6으로 감소, 노년부양비는 26.4로 증가
- **라틴아메리카**: 2015년 기준, 유소년부양비는 38.6으로 감소, 노년부양비는 11.4로 증가
- **북아메리카**: 2015년 기준, 유소년부양비는 28.1로 감소, 노년부양비는 22.5로 증가

15-1. 세계 속의 아태지역 (3) : 출산력 지표

* 세계 대륙의 지역별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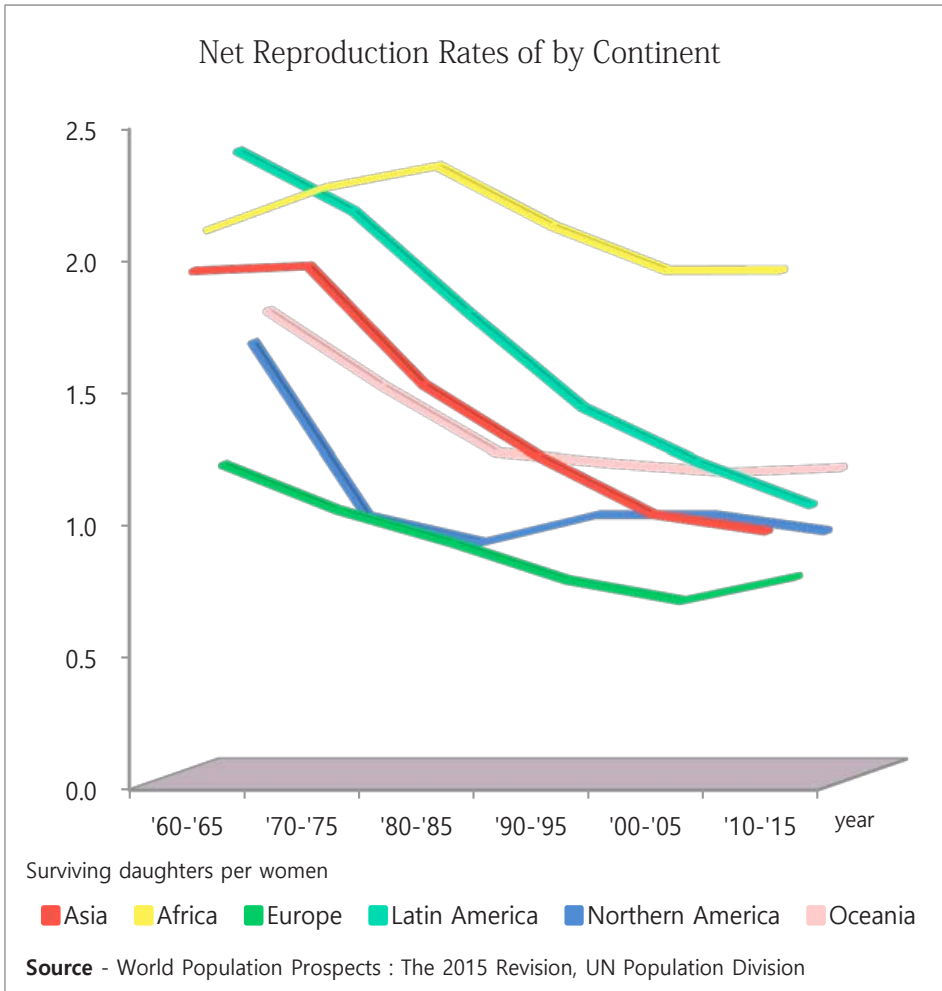


Source -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UN Population Division

❖ 세계 대륙의 지역별 합계출산율

-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5년 기준, 서아시아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2.91로 가장 높으며 동아시아지역의 합계출산율이 1.55로 가장 낮음
- **아프리카**: 2015년 기준,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5.82로 가장 높으며 남아프리카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2.51로 가장 낮음
- **유럽**: 2015년 기준, 북유럽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1.87로 가장 높으며 남유럽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1.41로 가장 낮음
- **아메리카**: 2015년 기준,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2.37로 가장 높으며 북아메리카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1.86으로 가장 낮음

* 세계 대륙별 순재생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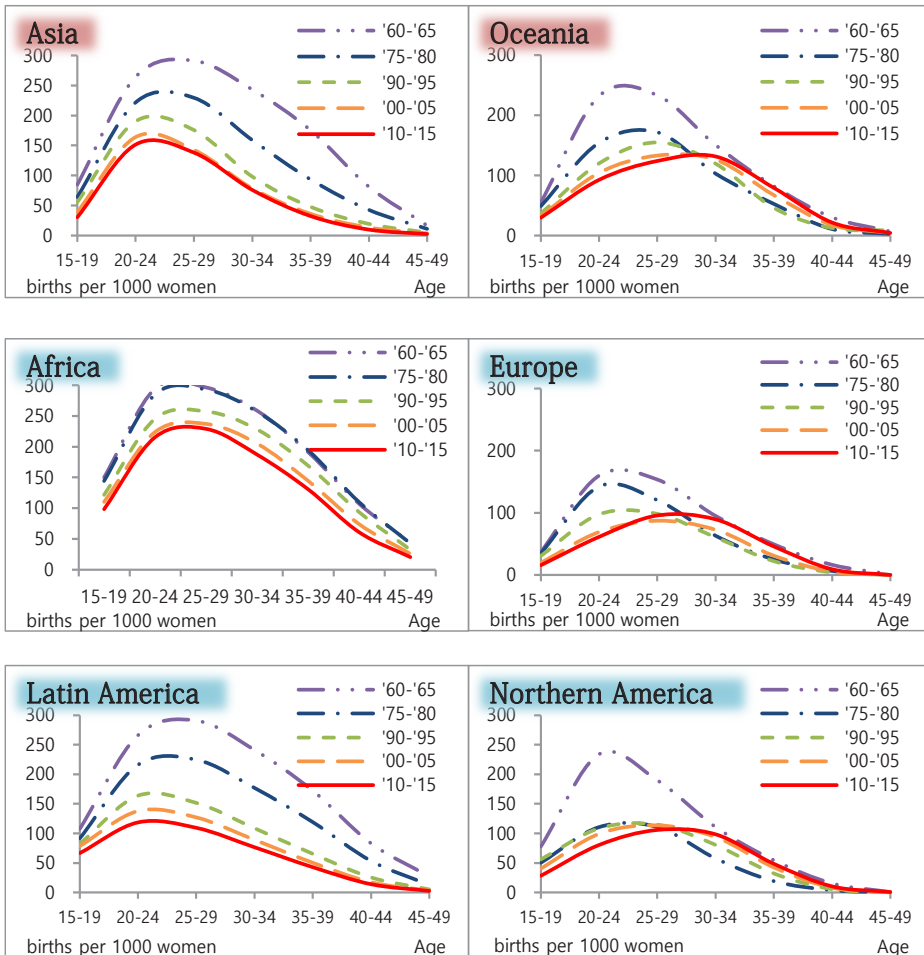


❖ 세계 대륙별 순재생산율

-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5년 기준, 서아시아 지역의 순재생산율이 1.35로 가장 높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순재생산율이 0.70으로 가장 낮음
- **아프리카**: 2015년 기준,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순재생산율이 2.29로 가장 높으며 남아프리카 지역의 순재생산율이 1.09로 가장 낮음
- **유럽**: 2015년 기준, 북유럽 지역의 순재생산율이 0.90으로 가장 높으며 남유럽 지역의 순재생산율이 0.67로 가장 낮음
- **아메리카**: 2015년 기준,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순재생산율이 1.12로 가장 높으며 북아메리카 지역의 순재생산율이 0.90으로 가장 낮음

15-2. 세계 속의 아태지역 (3) : 출산력 지표

* 세계 대륙별 연령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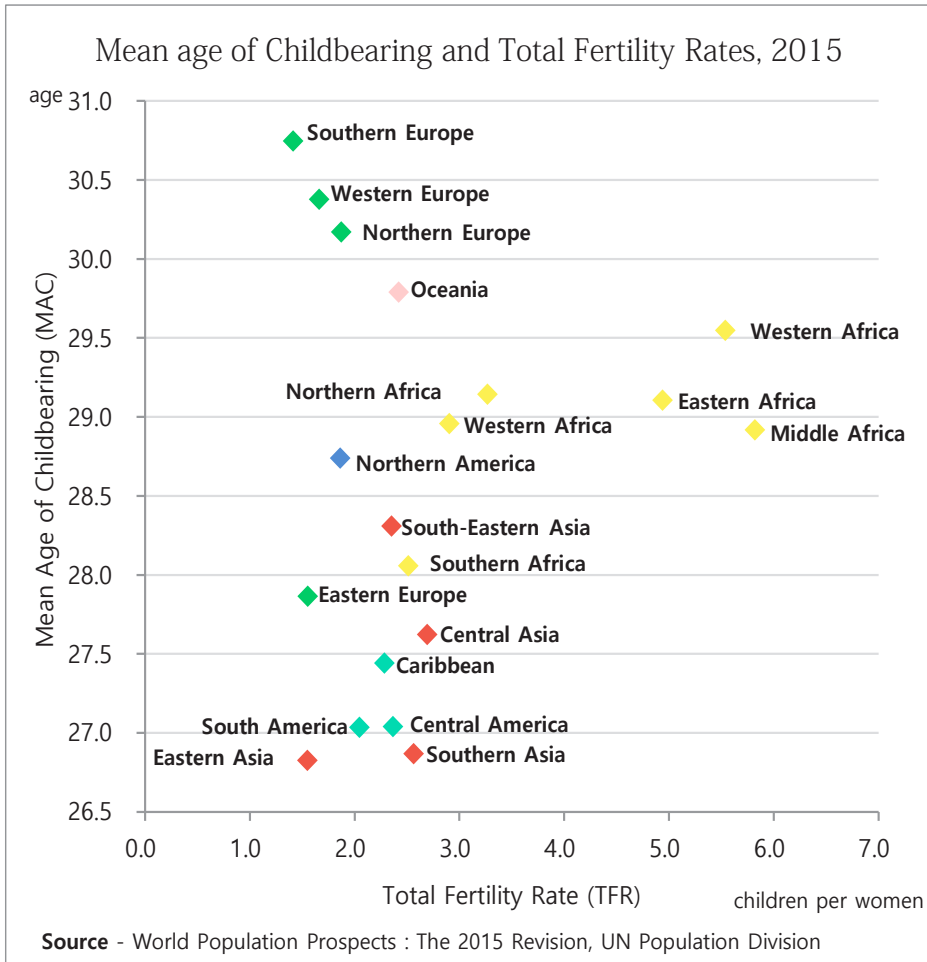


Source -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UN Population Division

❖ 세계 대륙별 연령별출산율

- **아시아:** 아시아는 전 연령 그룹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는 1990년 이후부터 30세 이상 연령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출산율 증가
-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1975년-1980년에 25세-44세 연령 그룹에서 출산율이 증가 하였으나 그 이후 전 연령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출산율 감소
- **유럽:** 유럽은 2000년부터 35세 이상 연령 그룹에서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25세-29세 연령 그룹에서도 출산율이 증가
-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는 전 연령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출산율 감소
-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는 1990년 이후부터 30세 이상 연령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출산율 증가

* 세계 대륙의 지역별 평균출산연령과 합계출산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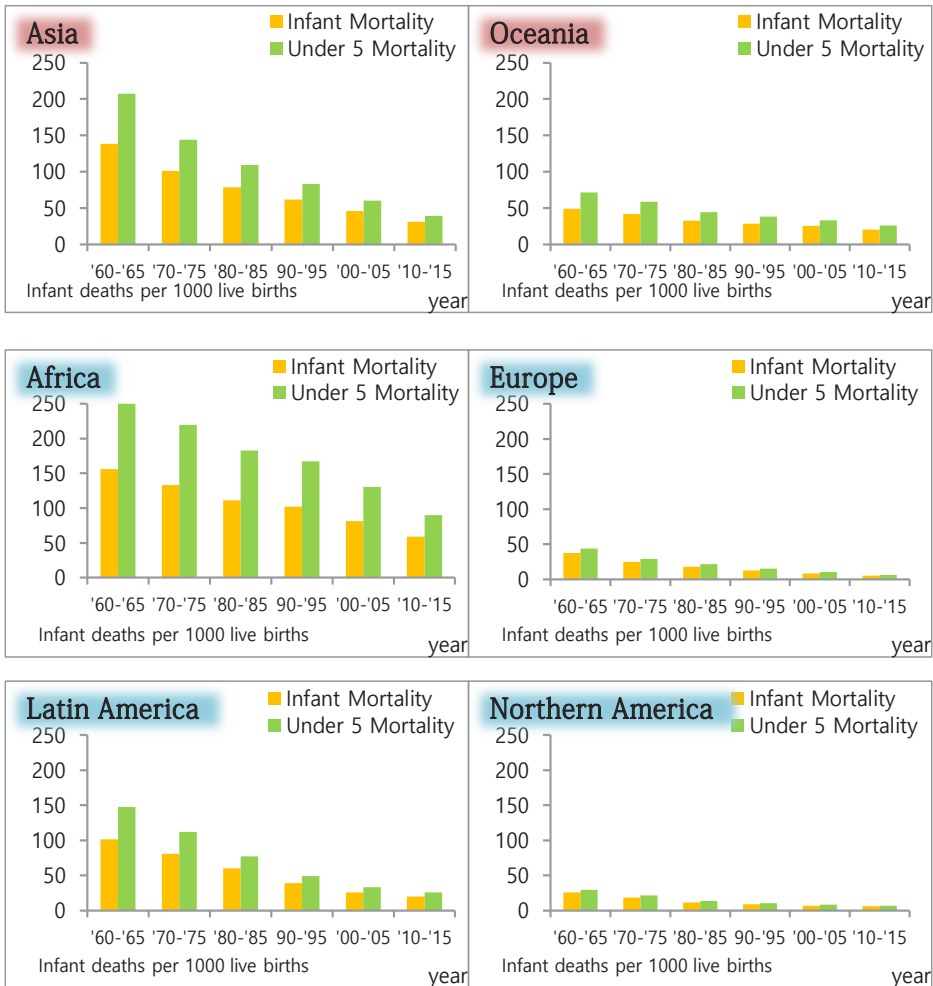


❖ 세계 대륙의 지역별 평균출산연령과 합계출산율 (2015)

-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5년 기준, 오세아니아 지역의 평균출산연령이 29.79세로 가장 높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균출산연령이 26.83세로 가장 낮음
- 아프리카: 2015년 기준, 서아프리카 지역의 평균출산연령이 29.55세로 가장 높고 남아프리카 지역의 평균출산연령이 28.06세로 가장 낮음
- 유럽: 2015년 기준, 남유럽 지역의 평균출산연령이 30.75세로 가장 높고 동유럽 지역의 평균출산연령이 27.86세로 가장 낮음
- 아메리카: 2015년 기준, 북아메리카 지역의 평균출산연령이 28.74세로 가장 높고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평균출산연령이 27.04세로 가장 낮음

16-1. 세계 속의 아태지역 (4) : 사망률 지표

* 세계 대륙별 영아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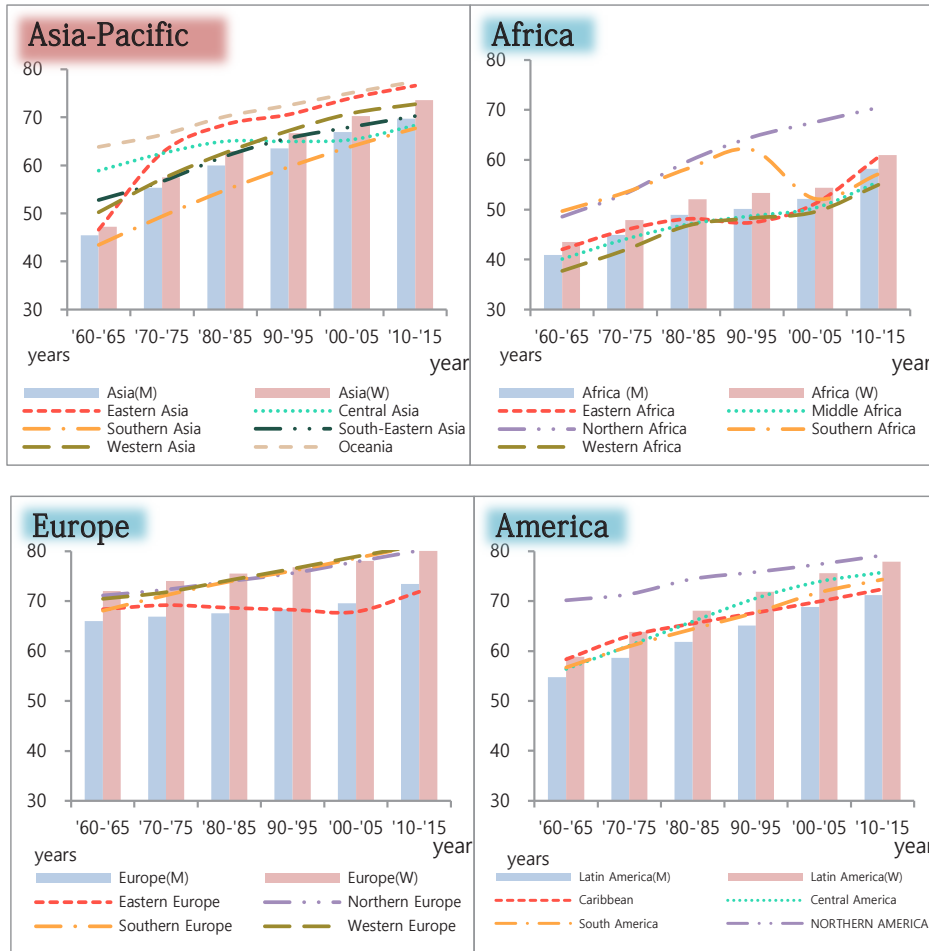


Source -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UN Population Division

❖ 세계 대륙별 영아사망률

- **아시아**: 아시아의 영아사망률은 1965년에는 138이었으나 2015년에는 31로 크게 감소
-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의 영아사망률은 1965년에는 49였고 2015년에 20으로 감소
-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영아사망률은 1965년에는 156이었으나 2015년에는 59로 크게 감소
- **유럽**: 유럽의 영아사망률은 1965년에는 37이었고 2015년에는 5로 감소
-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영아사망률은 1965년에는 101이었고 2015년에는 20으로 감소
-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의 영아사망률은 1965년에는 26이었고 2015년에는 6으로 감소

* 세계 대륙의 지역별 출생시 기대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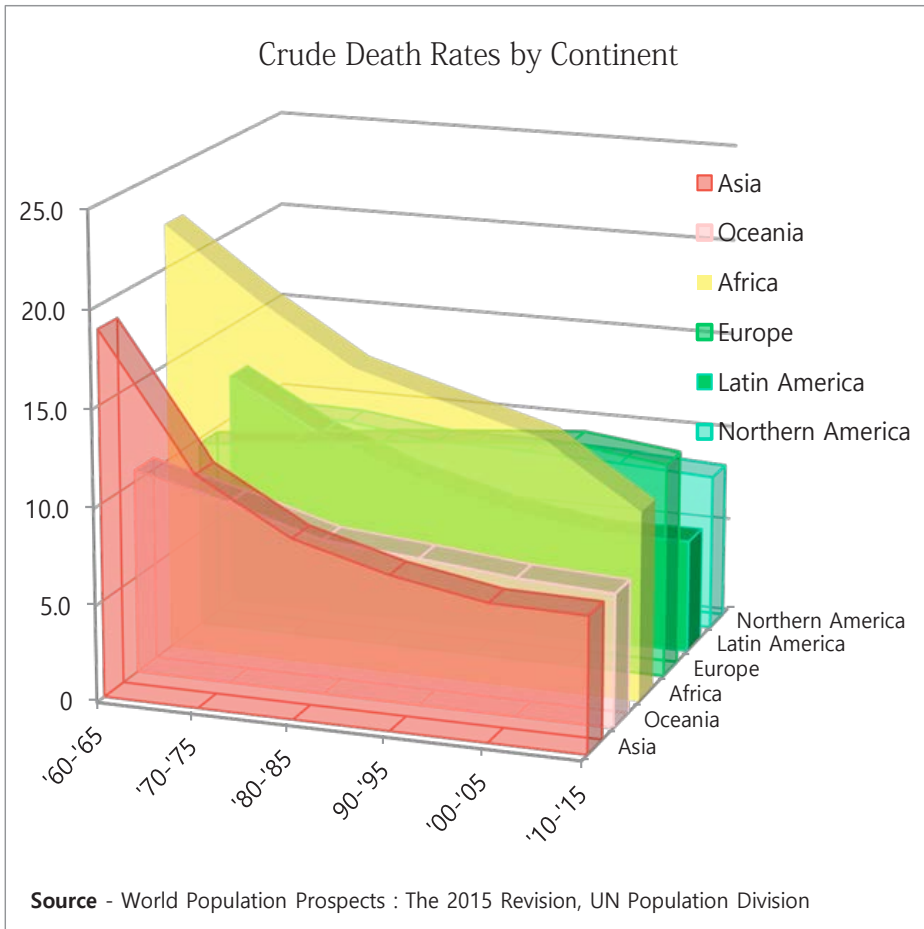
Source -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UN Population Division

❖ 세계 대륙의 지역별 출생시 기대여명

-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5년 기준, 오세아니아의 기대여명이 77.46세로 가장 높으며 남아시아 지역의 기대여명이 67.74세로 가장 낮음
- **아프리카:** 2015년 기준, 북아프리카 지역의 기대여명이 70.49세로 가장 높으며 서아프리카 지역의 기대여명이 55세로 가장 낮음
- **유럽:** 2015년 기준, 남유럽 지역의 기대여명이 81.19세로 가장 높으며 동유럽 지역의 기대여명이 71.86세로 가장 낮음
- **아메리카:** 2015년 기준, 북아메리카 지역의 기대여명이 79.16세로 가장 높으며 카리브해 지역의 기대여명이 72.43세로 가장 낮음

16-2. 세계 속의 아태지역 (4) : 사망률 지표

* 세계 대륙별 조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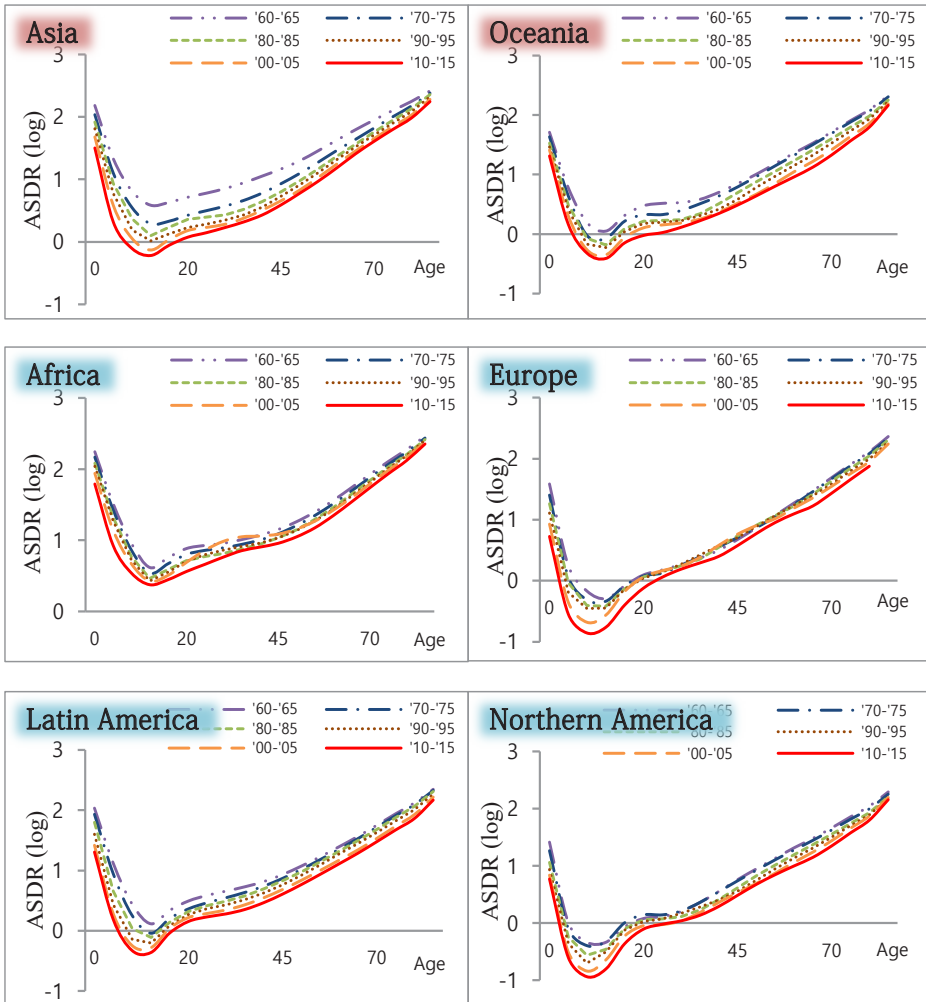


❖ 세계 대륙별 조사망률

- 연령구조가 다른 지역 간의 직접적인 사망수준 비교가 어려운 점 유의

- **아시아**: 아시아의 조사망률은 1965년에는 18.8이었으나 2015년에는 7.0으로 크게 감소
-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의 조사망률은 1965년에는 10.6이었으며 2015년에는 6.9로 감소
-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조사망률은 1965년에는 22.3이었으나 2015년에는 9.8로 크게 감소
- **유럽**: 유럽의 조사망률은 1965년에는 9.7이었으나 2015년에는 11.1로 증가 (동유럽 지역 지속적 증가, 남유럽 지역 1985년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
-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조사망률은 1965년에는 12.3이었으나 2015년에는 5.9로 감소
-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의 조사망률은 1965년에는 9.3이었으나 2015년에는 8.1로 감소

* 세계 대륙 지역의 연령별 사망률



Source -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UN Population Division

❖ 세계 대륙 지역의 연령별 사망률

- 아시아: 2015년 기준, 0-1세의 사망률은 31.92, 65-70세 사망률은 25.69
- 오세아니아: 2015년 기준, 0-1세의 사망률은 20.54세, 65세-70세 사망률은 13.33
- 아프리카: 2015년 기준, 0-1세의 사망률은 61.77, 65세-70세 사망률은 34.67
- 유럽: 2015년 기준, 0-1세의 사망률은 5.31, 65세-70세 사망률은 16.76
- 라틴아메리카: 2015년 기준, 0-1세 사망률은 20.13, 65세-70세 사망률은 19.30
- 북아메리카: 2015년 기준, 0-1세 사망률은 5.90, 65세-70세 사망률은 14.13

